

SCENARIO SHOWCASE

电影剧本创投会

시나리오 쇼케이스

Contents

1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 004 크리티컬 아워 - 김호연
- 012 퇴마사기단 - 민경근
- 017 드라이버 - 이승현
- 024 송도 - 조사무엘
- 030 커넥션 - 조상범

2부 경기콘텐츠진흥원·한국영화감독조합

- 036 Critical Hour - Alex KIM
- 046 Exorcist Swindlers -
Kyounggeun MIN
- 052 Driver - Seunghyun LEE
- 059 Songdo - Samuel CHO
- 067 Connection - Sangbum CHO

- 074 关键时刻 - 金浩然
- 082 退魔诈骗团 - 閔庚根
- 088 司机 - 李承炫
- 095 松島 - 赵Samuel
- 101 连接 - 趙相凡

- 108 똥스 - 김준
- 113 재판 - 이주헌
- 120 밤도망 - 최신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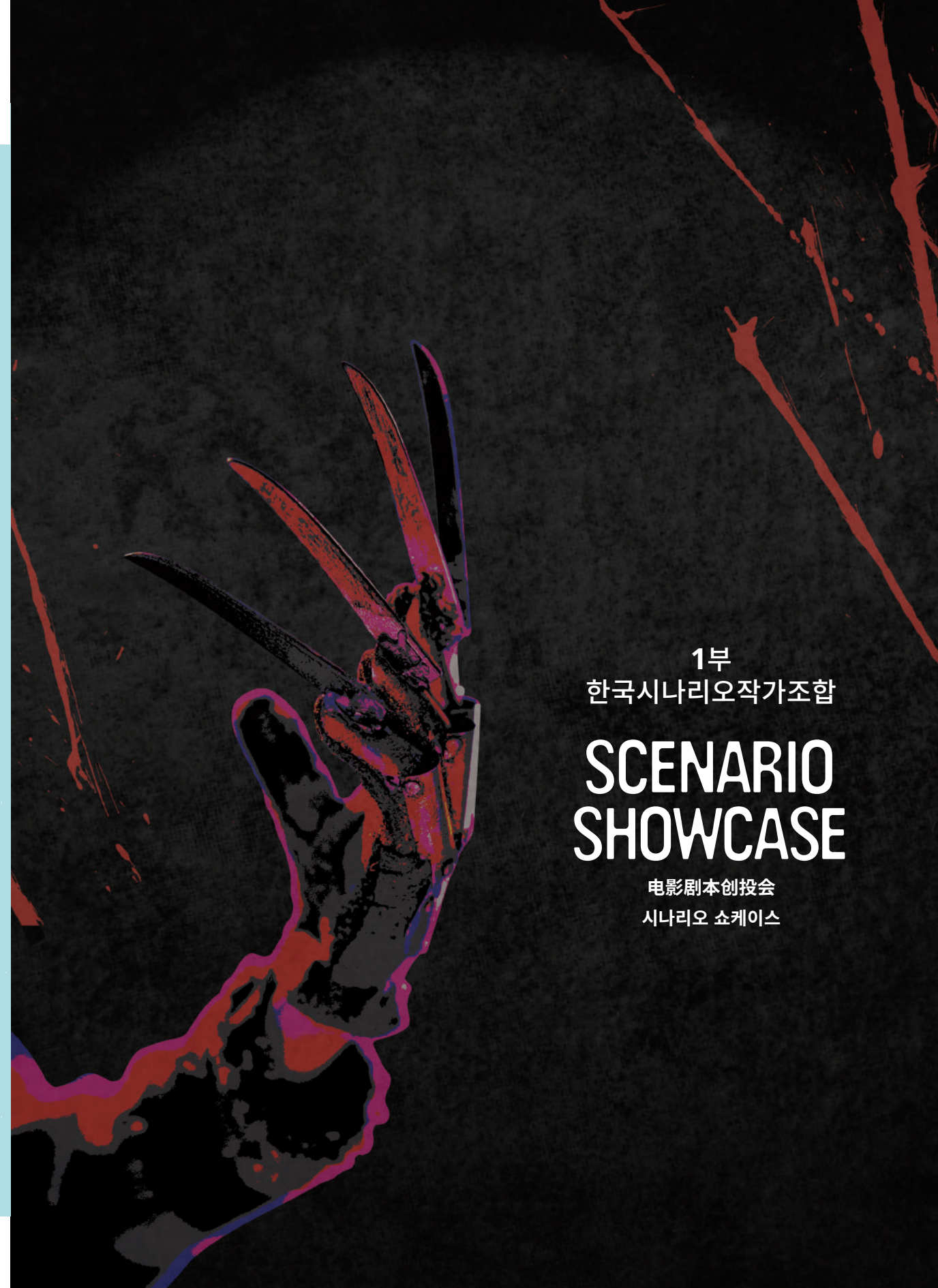
- 124 The plumps - June KIM
- 131 Trial - Juhean LEE
- 138 Run Away From The Night -
Sinchoon CHOI

- 142小胖 - 金俊
- 147 裁判 - 李柱宪
- 153 半夜逃走 - 崔新春

1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SCENARIO SHOWCASE

电影剧本创投会
시나리오 쇼케이스



크리티컬 아워

김호연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와 <연적>, <고스트라이터즈>를 출간했으며 영화 <태양을 쏘라>의 각본과 <남한산성>의 각색에 참여했다.

이력

2009 CJ E&M 콘텐츠개발팀 기획개발 작가
2010 김용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팀
2011 강제규 감독 시나리오 작가팀
2013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
2015 영화 <태양을 쏘라> 각본
2015 장편소설 <연적>
2017 영화 <남한산성> 각색
2017 장편소설 <고스트라이터즈>

수상 및 선정

2011 시나리오 <호환> '스크린라이터스 판' 영진위 지원작 선정
2012 시나리오 <경성의 주먹>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 1, 2차 지원작 선정
2013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
2017 스토리 <폴리스 라인> 부천 시나리오 쇼케이스 선정
2017 시나리오 <고스트캡> CJ 문화재단/O'PEN 지원작 선정

집필 작품

2015 영화 <태양을 쏘라> 각본
2017 영화 <남한산성> 각색

작품의도

“형사 아저씨 저 촉법소년이에요. 저 못 잡아 가시는 거 아니죠?” 질 나쁜 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1학년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형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분을 못 참던 형사의 얼굴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피투성이로 무릎 꿇은 피해 여중생의 사진을 SNS에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역시 가해자 중 하나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법 강화에 대한 청원에 청와대에 올라갔고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습니다. 저는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아이들 책임일까요? 아뇨. 어른들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게 만든 사회 책임입니다. 우리 어릴 적엔 ‘깍두기’라고 해서 좀 굼뜬 친구도 놀이에 끼워줬습니다. 지금은 걱정하고 왕따를 놓습니다. ‘휴거’라는 말도 놀라웠습니다. ‘휴먼시아 거지’의 준말로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휴거 애들은 자기 아파트 놀이터에 못 오게 한다는 이야기 역시 충격이었습니다.

<크리티컬 아워>는 형사물의 외피를 쓴 사회파 드라마입니다. 강남의 한 중학교. 기업가의 외아들이 납치되고, 크리티컬 아워 내에 소년을 구해야 하는 강남서 강력수사팀. 이 팀의 여형사 장인영은 싱글맘으로의 어려움과, 팀 내 왕따란 이중고 속에 수사를 합니다. 그녀는 기업가의 집을 조사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에 놀랍니다. 또한 납치된 소년이 2년 전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였음을 알아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모와 소년, 그리고 2년 전 사건의 피해자와 연루자를 만날수록, 인영은 인간의 잔인함과 부조리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과연 인영은 크리티컬 아워 내에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영이라는 약자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이자, 승자만능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시간’에 대한 영화입니다.

시놉시스

장인영(33.여)

강남경찰서 형사와 강력수사팀원.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 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로 경찰에 특채. 170에 62킬로의 탄탄한 체구. 올림픽에서도 판정 시비 불공정에 울어야 했던 그녀는, 경찰이 돼서 공정한 세상에 일조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실은 ‘할 말은 하는’ 고집스런 성격으로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처지. 세상은 그녀가 메치기엔 너무나 많은 편견과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래도 그녀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승부를 건다. 고집스럽게.

강한솔(14.남)

한동그룹 강회장의 외아들. 강회장은 냉혹한 기업가이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아내를 비롯한 주변 모두를 하찮게 여긴다. 그래서일까 아들 한솔 역시 어린 나이에 또래들을 무시하고 조종한다. 금수저에, 잘 생겼으며, 아이큐 164에 양자물리학 원서를 읽는 천재. 당연히 인기가 많지만 감정을 나누는 데 관심이 없는 한솔은, 사람들을 꿰뚫어보고 약점을 파악해 조종하는 걸 즐긴다. 그게 또래든, 선생이든, 자신을 유괴한 사람이든.

조우석(37.남)

한솔을 납치한 장본인. 전직 형사. 인영이 특채로 갓 들어왔을 때 강력계 동료로 그녀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배. 사실 인영이 들어오기 전까지 강력계 왕따였던 그는, 결국 맞지 않는 옷 같다며 아동청소년계로 옮긴다.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그는 어떤 일인지 경찰을 그만두고 알콜중독에 빠져 괴로운 삶을 보내다, 급기야 한솔을 납치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인영은 우석을 다시 마주하고는, 과거의 진실과 우석의 비밀을 떠올리게 된다.

Critical Hour : 납치 혹은 실종 사건에서 통계학적으로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

Prologue

뒷모습으로만 등장하는 사내가 트렁크를 연다. 트렁크 안. 테이프로 입이 막히고 몸이 결박된 소년이 누워있다. 죽은 듯 꼼짝 않던 소년, 서서히 사내를 묘한 눈빛으로 돌아본다. 사내, 소년을 트렁크에서 꺼내 끌고 간다. 어딘가로.

Critical Hour

18:05분. 강남경찰서. 내부 조사실. **장인영 형사(33)**가 호명되고 있다. 단발에 소년 같은 얼굴을 한 인영이

진술을 한다. 맞은편의 **최형사(38)**는 골이 난 표정. 조사위원이 유도 수업 중에 인영의 가슴을 터치한 것을 최형사에게 확인한다. 최형사는 탭을 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인영은 상습적이었다고 따진다. 결국 최형사가 감봉처분을 받는다. 조사가 끝나고 최형사가 인영을 어깨로 치고 나가며 두고 보자 이죽인다. 사무실로 돌아온 인영. 동료들의 불만스런 시선을 무시하고 자기 자리에 앉다가 기겁한다. 엉망이 되어있는 자신의 책상. 인영, 한바탕 하려는데... 사건호출이 떨어지고 모두 반장실로 향하게 된다.

샤프한 인상의 **형사반장(45)**이 막 들어온 실종신고에 대해 브리핑한다. 한동그룹 **강형석(48)** 회장의 외동 아들, 중학교 1학년 **강한솔(13)**이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 강형석의 아내인 **홍채경(36)**의 신고에 따르면 동급생이 한솔을 본 마지막 시간은 13시 경. 불과 다섯 시간의 공백이지만 평소의 한솔이라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한솔은 방과 후 차로 학원을 돌아야 하고, 어딜 가든 두 명의 경호원이 그를 지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호원들이 손쓸 새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동그룹 회장의 외아들이란 점에 반장은 유괴사건으로 판단되며, 실종 수사를 유괴 수사로 전환하기로 한다. 다섯 시간 지난 크리티컬 아워. 수사, 스타트.

팀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하는 반장, 하지만 아무도 인영과 한 팀이 되길 거부한다. 결국 반장은 인영에게 홀로 강회장 집을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모두들 출발하고 반장이 인영을 부른다. 강력반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 서로 지켜주지 못하는 팀원은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인영을 질책하는 반장. 인영,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출동한다.

19:24분. 청담동. 최고급 빌라. 120평 공간의 럭셔리한 내부 인테리어에 놀라는 인영. 유괴사건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점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응접실.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한솔의 엄마 채경과 인사하는 인영. 강회장의 상황을 묻자 중요한 회의가 있어 아직 회사에 있다고 한다. 아무리 중요한 회의가 있어도 아들이 유괴됐을 수도 있는데... 의아하지만 인영은 일단 집안을 살피다가 한솔의 방으로 들어간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안. 마치 성직자의 방처럼 책상 위엔 성경 하나 놓인 채 그 흔한 피규어 하나 없다. 책장에는 교과서와 참고서, 그리고 심리학, 철학, 인문, 양자물리학에 라틴어 원서까지... 성인 그것도 고학력자나 읽을 책들이 꽂혀있다. 펼쳐 유심히 살펴보면, 참고서와 양자물리학 원서의 필체가 똑같다. 중학교 1학년 강한솔은, 천재다.

채경에게 한솔에 대해 묻는 인영. 채경은 강회장과 아들 모두 천재라며, 자신의 둔한 머리로는 천재 부자의 속내를 통 알 수 없다고 꾸짖는다. 의심 가는 주변인물은 없냐고 묻는 인영. 그러자 채경이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딤냐는 듯 인영을 바라본다. 적이 너무 많아 언젠가 한솔에게 해코지가 돌아올지 몰라 경호원을 둘이나 고용했다는 채경, 갑자기 울먹인다. 인영이 채경을 위로하는데, 그녀의 시선에 닿은 사진액자 속 노란 교복의 한솔. 남산 밑에 위치한 명문 사립초등학교다. 그런데 한솔의 방에서 본 졸업앨범은 강남의 사립초등학교였다. 이유를 묻자 전학을 갈 수도 있는 거지 뭐가 문제냐는 채경. 채경의 미세한 과민 반응을 포착한 인영, 질문을 이어간다. 그러자 채경이 숨을 고른 뒤 입을 연다. 동급생들은 물론 그 아이들 부모들까지 모두 한솔일 시샘했어요. 그건 마녀사냥이었어요. 채경의 말에 따르면 2년 전 한솔은 학폭 사건의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됐다는 것.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다가 그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눈빛이 빛나는 인영, 강회장 집을 나선다.

한편 회의를 마치고 나온 강회장과 독대하는 형사들. 강회장, 납치라는 말에 비웃음이 서린다. 함부로 기사

화되었다가는 소송을 걸 거라고 하는 강회장. 아들을 찾는 것엔 관심이 없고 회사와 자신의 이미지만 신경 쓰는 듯한 모습에 혀를 내두르는 형사들. 강회장이 그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덧붙인다. 우리 아들은 누구에게 유괴되고 그럴 애가 아닙니다. 자기 발로 돌아올 거니 쓸데없이 공권력 낭비하지 마세요.

22:35분. 강북 명문 초등학교. 숙직 교사에게 당시 사건을 확인하는 인영. 역시 채경의 말과는 확연히 다르다. 한솔이 단순히 연루된 게 아니라 학폭을 주도했고, 동급생 도운을 2년 간 집요하게 괴롭혔다는 것. 결국 도운은 가출을 했고 그로 인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고 한솔과 괴롭힌 학생들이 전학 가는 걸로 사건은 종결됐다. 언론 역시 한동에서 막았는지 기사 한 줄 나지 않았다. 인영은 도운이라는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며 주소를 묻는다. 주저하는 선생. 인영이 재촉하자 마지못해 말한다. 도운이는...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놀라는 인영, 서둘러 본부로 연락해 부모의 신원확인을 요청한다.

23:50분. 분당. 신원확인으로 찾아온 자살한 도운의 부모 집. 벨을 누르자 초췌한 중년 여자 나온다. 그녀는 대화를 거부하지만 겨우 설득해 집에 들어가는 인영. 처음엔 말을 아끼던 그녀, 한 순간 입을 열고 아들의 자살은 모두 강한솔 때문이라고 밝힌다. 전학을 가고도 한솔은 지속적으로 아들을 괴롭혔다는 것. 부모들 모르게 교묘하게 괴롭혔고, 결국 아들은 더 이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 게다가 그놈의 부모가 기사도 다 막았고 학교도 우리를 억압했다는 그녀. 인영이 그제야 한솔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별다른 반응이 없는 그녀. 남편의 행방을 묻는 인영. 그러자 그녀가 비웃고는 남편은 범인일 리 없으며, 강회장을 만나고 나서 남편이 꼼짝도 못했이라며 화를 낸다. 그럼 남편은 지금 어디? 남편과는 아이가 죽은 뒤 별거했다는 여자, 그만 나가줄 것을 요청한다. 인영, 서울로 오며 반장에게 보고한다.

24:41분. 경찰서에 집결한 형사들이 회의를 한다. 1) 한솔은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다. 2) 돈을 원한다면 벌써 연락이 왔을 것이다. 3) 원한관계 중 현재 자살한 아이의 아버지 정태욱(47)의 행방이 묘연하다. 4) 결론은 정태욱을 찾아야 한대로 모여 진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그의 위치가 확인된다. 강릉. 강릉으로 한솔을 납치해 갔다?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다. 더구나 정태욱의 고향이 강릉이다. 익숙한 곳을 찾아 가기 마련 아닌가. 확신에 찬 반장이 직접 형사들과 강릉에 가기로 한다. 인영도 자원하지만 거부된다. 최고참 김형사, 장형사는 집에 가 아이 유치원 보내야지, 라며 놀린다. 노력보는 인영. 그러다 치겠네. 계속 놀리는 동료들.

01:30분. 집에 돌아온 인영. 여섯 살 딸을 키우는 이혼녀로, 함께 사는 어머니가 딸을 돌보고 있다. 늦게 들어온 걸 타박하며 형사 일 그만두라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잠든 딸을 살피는 인영. 그때 딸이 깨어나고 인영에게 이야기꽃을 피운다. 엄마가 경찰이라니까 안 믿던 남자애를 때려준 이야기다. 근데 개가 자기 아빠한테 이른다고 했어. 자기 아빠 남잔니까 엄마가 경찰이라도 못 이긴다면서. 바보, 엄마가 남자보다 더 센데. 그래, 역시 우리 딸 똑똑하구나. 근데 엄마 개네 아빠 연락와도 잡아가면 안 돼. 그래도 같은 반 친구니까. 딸의 말에 미소가 머금어지는 인영, 순간 정신이 번쩍 든다. 인영,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서둘러 집을 나선다.

02:27분. 인영, 경관들과 경호원들 대기 중인 한솔의 집 도착한다. 응접실에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앉아있던 강회장과 채경, 인영이 들어오자 수사 진척 상황을 묻는다. 자살한 아이에 대해 알았냐고 되묻는 인영. 답하지 않는 그들. 자살한 아이의 아버지가 강릉에 있어 출동했다며, 그와 연락한 적 없냐고 다시 묻는 인영. 놈은 범인이 아니오. 강회장이 말하며 경찰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이유를 묻자 아내에게 들어가라고 하고

는 인영과 독대하는 강회장. 그 사람은 내 돈을 받았지. 몇 번. 게다가 내가 계속 돈을 줄 텐데 왜 굳이 납치를 하지? 되묻는 강회장의 말에 말문이 막히는 인영, 반장에게 전화를 건다.

강릉. 반장과 형사들, 오피스텔을 덮치면, 폐인처럼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정태욱. 납치도, 뺑도 아니다. 허탈한 그들. 그때 인영의 전화 울리고 반장이 받는다. 인영이 강회장의 진술을 말하자 짜증내며 전화 끊는 반장. 반장, 강회장을 최초 면담했던 두 형사의 조인트를 간다.

한솔의 집. 인영, 강회장에게 한솔의 가해 사건에 대해 질문하지만 자신만의 화법으로 대답을 피하는 강회장, 오히려 인영을 겁박한다. 그때 낯선 남자 둘이 들어온다. 경찰이 너무 무능해 탐정을 고용했다는 강회장. 인영, 수치심을 느끼며 집을 나선다. 인영은 직접 당시 사건을 확인하기로 하고,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향한다.

04:15분. 남대문경찰서. 협조를 얻어 당시 사건 보고서를 확인하는 인영. 역시 한솔이 실제 주동자였으며,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들까지 정신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담당자 보고다. 매우 잘 정리된 보고서에 작성자 이름을 살피는 인영, 깜짝 놀란다. 아동청소년과 조우석(39) 경위. 조선배... 인영이 유도메달리스트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초기에 그녀를 물심양면 도와줬던 그다. 인영, 조경위에 대해 묻자 일 년 전 옷을 벗었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인영, 미심쩍음을 느끼고 더 캐묻자 조형사가 명문 초등학교 학폭사건과 피해 학생 자살 뒤 많이 힘들었다고들 말한다. 이후 퇴직을 하고 폐인처럼 살아왔다는 사실까지 알아내는 인영, 조형사의 행방을 쫓기로 한다.

07:05분. 아침이 밝았음에도 어두컴컴한 모처. 한솔을 의자에 묶어놓은 채 취조하듯 묻고 있는 조형사. 한솔에게 그가 한 짓들을 일일이 들려 확인한다. 한솔, 틀렸다며 고개를 젓는다. 조형사가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으박지르자, 한솔은 방금 언급한 것보다 더 많은 짓들을 벌였다며 입꼬리를 올린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라고 덧붙이는 한솔. 조형사가 치를 떨며 한솔을 때린다. 한솔은 맞으면서도 의연하게 군다. 오히려 흥분한 조형사가 조금해보이고 납치된 한솔이 느긋한 이상한 상황.

인영은 조형사와의 지난 시간을 떠올려본다. 여자라고, 특채라고, 차별받던 자신에게 유일하게 다가와 준 동료였던 조형사. 하지만 신입이 어느 무리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그 무리의 왕따라고 했던가? 강력반으로 활동하기엔 왜소한 체구와 무술 실력, 반장의 물음에 수줍은 미소로 얼버무리다 혼나던 모습... 신참인 자신이 보기에조차 조형사에게 강력반은 아니었다. 결국 안 맞는 것 같다며 아동 청소년계로 옮겨갔던 조형사. 인영은 거기서 끝났지만 그녀에게 고마웠던 선배로 기억되던 그가, 지금 이 사건의 납치용의자라니.... 수사 내용을 반장에게 보고하는 인영. 강릉에서 허탕치고 돌아와 전전긍긍하던 반장은 인영의 말대로 조형사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한다. 근데 어디를 팔까요? 남대문서는 장인영이가 갔다면서요... 반장이 짜증을 낸다. 못난 놈들, 장인영이 뒤나 따라가.

12:35분. 인영, 과거 조형사의 강력계 동료를 찾아간다. 동료, 조형사 그 놈 언젠가 사고 칠 거 같았다고 비아냥댄다. 인영이 정색하고 조형사의 은신처로 예상되는 곳은 없냐고 묻는다. 동료, 몇 가지 사건을 언급하는데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 인영이 답답해하며 더 묻자, 동료가 대뜸 인영에게 이혼하고 외롭지 않냐며 농을 건다. 발끈하는 인영. 그러자 놈은 조형사를 자기에게 물으면 안 되지 않냐며, 너랑 뭐 있지 않았냐며 도발한다. 화가 치밀던 인영, 무언가 떠오른다. 놈이 조형사랑만 놀아서 서운했다며 지금이라도 여떠나고 또 치근덕댄다. 어깨에 팔을 얹는 놈을 유도기술로 순식간에 제압하는 인영. 고통스러워하는 놈에게 너야

말로 그렇게 둔하니 수사도 늘 엉망이었지. 내뺄고는 차에 오르는 인영. 차를 몰아가며 반장에게 보고한다, 동인천 헌책방에 조형사의 아지트가 있다고. 과거 조형사와 함께 그곳에 제보자를 숨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13:47분. 조형사. 한술의 진술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직접 확인시킨다. 한술이 다 듣고는 비웃는다. 형사 아저씨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증거능력도 없고, 무엇보다 지금 아동학대 건 아시죠? 조형사가 분노한 눈으로 한술을 노려본다. 아동학대 정도가 아냐. 난 널 죽일 거야. 그까짓 거 신경 쓸 거 같아? 한술이 묻는다. 왜죠? 조형사가 한술을 내쉬고 한술에게 차분히 말한다. 너가 말했지. 아저씨 저 촉법소년이예요. 나 못 잡아 가는 거 알죠? 그래, 법으론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 녹취라면 법 따위 집어치고 너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두에게 알릴 수 있을 거야. 그러기 위해선 내가 법을 어기는 것쯤은... 순간 비릿하게 웃고 있는 한술의 표정에 입을 닫고 노력하는 조형사. 그 말에 빈정이 상하신거구나. 아저씨 저 촉법소년이예요. 근데 사실인 걸 어찌죠? 에이 그래도 죽은 도윤이 부모도 아니면서 이러시는 건 오버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도윤이 좋아했던 거예요? 아저씨 도윤이한테 무슨 감정 있으셨던 거예요? 조형사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14:03분. 동인천으로 접어든 인영, 조형사와 함께 헌책방 지하에서 제보자와 보낸 밤을 떠올린다. 그를 지켜야 했고 잠시 잠든 사이 조형사가 제보자와 함께 나누던 대화를 엿듣고 놀랐던 기억... 다음날 제보자를 인계한 뒤 조형사가 인영에게 말했다. 내 아지트, 비밀이다. 인영도 약속했다. 그 비밀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하지만 지금 그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었다. 헌책방 맞은편에 차를 세운 인영, 문을 닫은 헌책방으로 조용히 다가가 안을 살핀다. 문이 닫혔지만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보인다. 확인하는 인영, 그때 반장과 동료들, 현지 기동타격대가 모여든다. 곧 반장의 지시 하에 내부 구조를 기억하는 인영을 앞세워 형사들이 책방 안으로 투입된다. 조심스레 지하로 내려가는 인영과 형사들.

14:13분. 인기척을 느낀 조형사, 긴장한 채 한술을 돌아본다. 한술이 지금이라도 빨리 나 죽이지 않으면 힘들 텐데, 라며 도발한다. 조형사, 광분해 한술을 일으켜 잡아챈 채 목에 칼을 들이댄다. 멈춰! 조우석 앞에 나타난 인영과 형사들. 반장, 총을 겨눈 채 다 끝났다고 아이를 내려놓으라 외친다. 조형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어쩔 줄 몰라하던 중 인영과 눈이 마주친다. 선배... 포기해. 인영이 입술을 달싹이는데, 순간 한술이 조형사의 손을 깨문다. 으. 조형사, 아파하며 도망치려는 한술을 다시 붙잡아 목에 칼을 대는데... 탕! 반장이 쏜 총탄이 조형사의 정수리를 관통한다. 그렇게 납치범이 즉사하고 인질이 구출된다. 실종 25시간 만에 사건 종료. 크리티컬 아워 내 미션 클리어.

After Hour

사건은 알콜 중독에 빠진 전직 형사가, 돈을 노리고 과거 수사 중 알게 된 부잣집 아이를 납치한 것으로 정리된다. 언론은 크리티컬 아워 내 구조 성공을 칭찬하고, 팀은 포상을 받는다. 아울러 구조된 한술은 매력적인 외모와 침착한 인터뷰로 국민적 화제와 동정을 얻는다. 한동그룹이 막았는지 언론에서는 한술의 과거 학폭 사건과 그에 얽힌 전직 형사라는 비하인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현장 증거는 손덜 새도 없이 몽땅 검찰에서 수거해갔다. 인영은 의혹을 품은 채 조형사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장례식. 과거 제보자로 헌책방에서 만났던 사내가 와 있다.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된 인영, 사내로부터 당시 인영이 자신과 조형사가 게이임을 알아채곤 벌레 보듯 했다는 말을 듣는다. 당혹스런 인영,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부인하는데...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운동만 하다 경찰이 되어 시작한 첫 사회생활이었다. 그때 게이를 만난 것도 처음이고 편견도 분명 있었다. 조형사를 이후로 불편하게 대한 게 사실이다. 그제야 떠오르는 기억. 자신 역시 조형사를 차별했다. 참담한 심정에 어쩔 줄 몰라하는 인영.

집에 돌아온 인영. 아이를 재운 뒤 납치 사건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한다. 조형사는 한술을 잡아 돈을 챙길 이유가 없다. 그럼 조형사의 동기는? 결국 한술에게 죽은 도윤이란 아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한술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분노였을까? 한술은 대체 얼마나 간악한 놈이길래, 조형사는 그렇게 놈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걸까? 인영은 한술을 직접 만나기로 마음먹지만, 한층 강화된 경호 시스템으로 인해 쉽지가 않다. 동료들은 이미 포상까지 받은 일에 재 뿌리지 말라고 그녀의 추가 수사를 방해한다. 반장은 조형사의 죽음에 대한 복수 감정 같은 개인감정에 휘둘려 수사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중립적으로 냉철히 대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인영을 원칙적인 이야기로 내리누르는 반장. 원칙이라니 이미 기울어진 방구석인데? 수사의 이중고 속에서 의지를 다지는 인영.

좀 더 근거가 필요한 인영, 한술의 현재 중학교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한술이 지금 학교에서 여전히 왕처럼 군림하며 학생들 간에 왕따를 조장하고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중 가장 피해를 보는 아이는 수민(13)이었다. 여학생이지만 누구 못지않게 당찬 수민은 한술이 아이들을 조장하고 괴롭히는 걸 알고 대항했지만 선생도 친구들도 모두 수민을 유난 떠다고 여겼고, 그로 인해 왕따가 되었다. 그리고 한술은 그런 수민을 어떻게 응징할까 호시탐탐 노리는 중이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치밀함과 악랄함으로 한술은 반 전체를 조종하고 있었다. 마치 지난 번 학교에서의 실수를 만회라도 하듯이.

인영을 만난 수민은 괴로워하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 인영이 수민을 달래준다. 그리고 이를 악문다. 그녀는 이번엔 한술에게서 피해자를 지킬 수 있을까? 지난 한술의 범죄들을 낱알이 밝혀 응징할 수 있을까? 그 싸움은 인영과 한술과의 싸움만이 아닌, 그녀를 둘러싼 세상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렇게 인영과 우리들의 ‘위태로운 시간’은 계속된다.

퇴마사기단

민경근



장르 영화 안에서 친숙하면서도 5도 다른 변주의 쾌감을 추구합니다.

이력

한양대 연극영화과 학사
콘텐츠 진흥원 기획 창작 아카데미 7기 수료
영화산업실무교육 연출 과정 수료
콘텐츠 진흥원 창의인재 수료

수상 및 선정

2015 <도깨비 사냥꾼 이리> 경상북도 시나리오 공모전 장려상 수상
2017 <심청전> 부천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쇼케이스 선정

집필 작품

2015 영화 <치외법권> 원안, 각본
2016 영화 <대결> 각본

작품의도

퇴마사와 귀신의 짜고 치는 퇴마사기극을 유쾌한 버디플레이로 그리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무당 말 한 마디에 맹신하고 휘둘리는 한국 사회를, 귀신마저 자기 탐욕에 이용하는 권력층을 풍자해 귀신보다 인간이 무서운 현실을 환기하는 동시에, 이들을 통쾌하게 사기 쳐 응징하는 쾌감을 선사하고자 한다.

시놉시스

강주 (남, 40대 중반)

귀신과 짜고 치는 퇴마사기꾼

“난 돈 벌고, 넌 한 풀고! 그림 너무 아름답다 진짜..”

귀신 보는 자신의 능력을 저주라 여기며 살아왔지만,
막상 돈 때문에 벼랑 끝에 서자, 이 능력만이 동아줄이 되어줄 줄이야..
새 사업 아이템은 다름 아닌, 귀신과 짜고 치는 퇴마사기!

구천 (남, 20대 후반)

퇴마사와 제휴 맺은 돈에 한 맺힌 꽃미남 귀신

“착하게 살았죠, 살아봤는데 이용만 당하더라고, 세상이란 게.”

절친에게 사기당해 화병으로 요절, 순진했던 자신을 탓하며 구천을 떠도는 청년귀신.
그러던 어느 날, 퇴마사기를 벌이자는 황당한 사업 제의가 들어오는데..
구천은 남은 가족이라도 돈에 좌절하지 않게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강의원 (남, 50대 초반)

악귀까지 돈으로 사 권력에 이용하는 탐욕의 화신

“돈이면 귀신한테 발가락도 팔게 할 수 있어, 이 나라에선.”

차기 시장 유력 사선의원이자,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적폐의 표본.

희토류가 다량으로 매장된 시골 땅을 독차지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를 동원해 주민들을 내쫓고 혈값에 땅을 사들이려는 찰나, 웬 족보도 없는 사기꾼이 나타나 방해를 놓는데..

차신부 (남, 40대 초반)

악귀를 무기로 권력층의 추악한 범죄를 돕는 전직 카톨릭 신부

“한국 사람들 무당말이라면 환장하거든요.”

정치판이든 기업판이든 돈만 쥐어주면 뭐든 하는, 악귀보다 악랄한 음지의 해결사.

신실한 종교인이었지만 귀신 보는 능력이 생긴 뒤로,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런 차신부가 자신과 거울과도 같은 능력의 강주를 맞닥뜨리는데..

귀신이 돈이다!

강주는 귀신 보는 능력을 가졌지만,

세상 사는데 하나 도움 안 되는 이 능력을 외면한 채,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들처럼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망해가는 회사에서 오늘도 감당 못할 업무에 시달리는데 더해,

돈에 한 맺혀 죽은 꽃미남 **총각귀신**, **구천**까지 달라붙어 징징대 죽을 맛인 강주.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도주하고 회사는 부도, 강주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다.

가계 빚 메꾸려 빌렸던 돈은 이자가 불어날 대로 불어나 빚쟁이들까지 협박하며 달려든다.

백세시대 대비는커녕 가족에게 빚만 남겨주게 생긴 벼랑 끝의 순간,

강주는 빚을 장기로 갚으라며 협박하는 빚쟁이 머리에 얹힌 꼬마 귀신을 발견,

사탕으로 유인해 떼어내고, 지병이 사라진 빚쟁이는 일주일 간 채무를 유예해준다. 순간,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이 강주 뇌리를 스친다. 바로 귀신을 볼 수 있는,

갓다버리고만 싶었던 이 저주 같은 능력을 이용해 퇴마 사업을 벌이는 것!

하나 퇴마 무식자인 건 물론, 악귀란 건 본 적도 없고, 본다 한들 쫓아낼 능력도 없는 강주는 아이템을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 귀신 구천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한다. 다름 아닌,

구천이 악귀인 척 고객을 괴롭히면, 강주가 퇴마사인 척 구천을 쫓아내는 것!

그야말로 완벽한 사기극이다. 강주는 돈을 벌고, 구천은 자기 몫을 가족에게 남겨 돈에 맺힌 한을 풀어 이승을 떠나고, 함께 윈윈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손을 잡는 강주와 구천.

과연 벼랑 끝에 처한 가장 강주는 유례없는 퇴마사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지금껏 본 적 없는 퇴마사와 귀신의 전대미문 비즈니스 콜라보!

귀신과 찹고 치는 유쾌한 퇴마사기극이 펼쳐진다!

해고된 걸 아내와 딸에게 숨긴 채 구천과 동거하며 새 사업을 펼치는 강주.

겁 많은 고객 선정 -> 고객 집에 구천이 초현실 현상 일으키면 -> 강주가 찾아와 퇴마.

이 프로세스로 홍보를 펼치고, 초딩들 장난 전화를 버틴 끝에 고객을 낚지만,

귀신이 이승에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기에,

구천이 겁을 줘도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여기에 일일이 반응할 여유조차 없다.

게다가 돈에 악이 반칠 대로 반친 강주와,

쓸데없이 겁 많고 에프엠적인 귀신 구천의 팀웍은 시작부터 뼈격대기만 하는데..

빙의를 하면 이승에서 **괴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강주는 구천을 달달 볶지만,

빙의는 **귀신의 한을 풀어준 자만이** 그 귀신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거라며 안 된다는 구천.

창대했던 사업이 무너져 내리려는 순간, 시골에 홀로 사는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다.

집집마다 귀신 들려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다며, 서울에 옹한 무당 없냐는 아버지. 순간,

어둠 속에 한줄기 빛이 내리쬐인다. 귀신보다 월요일이 무서운 도시 사람들 대신,

이미 겁에 질린 고향 사람들에게 퇴마사기를 벌인다면?!

집에단 출장 핑계를 대고 구천과 귀신 들린 고향 마을 **‘호로면’**으로 달려가는 강주.

호로면은 역시 강주가 고대하던 블루오션이다!

겁먹은 마을 사람들은 강주의 어설픈 퇴마에도 찔떡같은 리액션을 보이며, 사업은 번창한다.

하지만 귀신 들린 마을답게 실제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괴한 현상들. 이때,

강주는 구천을 통해 이 귀신 소동의 실체가 마을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어 혈값에 땅을 사들이려는 조폭들의 **가짜 귀신** 소란 걸 알게 된다.

이 신개념 재개발 계락을 더 파헤치자, 조폭 뒤의 권력의 목적이 단지 땅이 아닌 **마을에 매장된 값비싼 희귀 광물 희토류를 독차지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강주는 희토류를 지키기 위해 조폭 일당의 사기를 폭로하고 이들을 내쫓는다.

조폭들은 스폰서이자 이 **모든 사기극의 설계자인 국회의원 강의원**에게 SOS를 보내는데..

재벌가 출신 사선의원이자 유력 시장 후보 강 의원은 음지의 퇴마사, **차신부**를 고용한다.

음지에서 악명을 떨치는 차신부는 강주처럼 귀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

악귀 하나를 수족처럼 달고 다니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업이나 정치꾼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주는,

강주보다 탐욕의 스케일이 크고 훨씬 악랄한 **또 다른 퇴마사기꾼!**

게다가 **빙의를 시킬 수 있는 차신부**는 악귀를 주민들에게 빙의시켜 호로면에 섬뜩한 테러를 저지르고, 강주는 생전 처음 마주한 진짜 악귀에게 무력하게 당하고 만다. 결국,

강주가 사기꾼임을 까발려 마을에서 내쫓는 차신부. 심지어 사기죄로 고소까지 해버린다.

이 때문에 아내와 딸 역시 그간 강주가 뭘 하고 다녔는지 모두 알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호로면은 귀신이 들렸단 이유로 터무니없는 혈값에 다들 고향을 떠나버리고, **호로면은 완벽하게 강의원 손아귀에 넘어가버린다.** 거기 더해,

호로면에서 끝까지 버티던 마을 노인들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터진다.

동시에 독거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강주는 이게 강의원 선거 메인 공약임을 알게 된다.

희토류 독점은 물론 이제 마을 사람들까지 자기 공약 여론몰이에 희생시키는 강의원.

이제 강 의원은 호로면에 마지막 남은 강주 아버지를 자살로 위장시켜,
노인 자살 문제로 공약 어필의 대미를 장식함과 동시에 마을을 완벽하게 비우려 한다!
게다가 아내와 딸 역시 아버지를 살피러 갔다는 걸 알게 되는데..
강주는 구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급히 호로면으로 향한다.

과연 강주는 악귀까지 고용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강 의원에 맞서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

퇴마사기단, 진짜 퇴마를 벌이다!

호로면으로 달려가자, 이미 빙의되어 자살하려는 아버지를 막고 있는 아내와 딸. 이에,
강주와 구천은 물론 억울하게 죽은 마을 노인 귀신들까지 합세해 겨우 아버지를 막는다.
순간, 차신부는 악귀를 딸에 빙의시켜 강주를 죽이려 하고,
딸과 싸울 수 없는 강주는 악귀에게 딸을 살려 달라며 간절히 호소한다.
진심어린 소통이 이루어지자 자신의 뼈아픈 사연을 내비치는 악귀. 순간,
강주는 자신이 귀신을 보게 된 이유가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기 위함이란 걸** 깨닫는다. 악귀를 위로
해 한을 풀어주자, **빙의를 시킬 수 있는 표식이 강주에게도 생긴다!**
이때, 선해지려는 악귀를 자기 몸에 빙의시켜 무서운 괴력으로 공격하는 차신부.
일촉즉발의 상황, 강주는 그간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을 구천에게 전하고,
구천을 자신에게 빙의시키는 데에 성공한다. 이렇게,
강주-구천, 차신부-악귀로 각각 한 몸이 된 두 팀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빙의되어 괴력의 싸움을 펼치는 차신부에게 빙의 첫 경험인 강주와 구천이 밀린다. 동시에,
함께 있던 강 의원과 조폭들이 가족과 아버지를 위협할 때마다,
구천을 공 패스하듯 조폭들에게 빙의시키며 다양한 방식으로 팀킬을 시킨다. 결국,
구천과 완벽히 한 호흡이 된 강주는 기어이 차신부를 때려눕히고 악귀를 해방시킨다.
넙다 구천을 차신부에 빙의시켜 스스로를 팬 뒤 자수시키고는, 무사히 딸을 구해내는 강주.
도망친 강 의원에게도 빙의해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자기 범죄를 실토함은 물론,
비리로 결탁한 자기 일가까지 길 한복판으로 끌고 나와 범죄를 폭로하는 **사이다 같은 대국민 원맨쇼를 연출**
한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져 체포되는 강 의원과 그 일가.

구천은 한을 풀지만 이승 개입 죄로 이승을 떠도는 기간이 무기한 연장된다. 허나,
지금처럼 억울한 이들을 위해 덕을 쌓는다면 이승을 떠날 수 있다는 선처를 받는다.
이렇게 강주와 구천은 서로의 곁에 남아,
귀신과 진정한 소통으로 한을 풀어줘 이승을 떠나게 해줌은 물론,
이들을 희생시킨 악인들을 벌하고 합당한 보상을 희생자 가족에게 돌려주는,
악귀가 아닌, 그보다 더 악한 악인을 퇴치하는,
이전까지 없던 선의의 퇴마사기단이 된다.

The END.

드라이버

이승현



1977년 서울 생.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 졸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중퇴

이력

2008 심산스쿨 시나리오 상급 박헌수 4기
2008 제3회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icpff) 행사팀장
2011 (주)넥슨 부산스튜디오 센텀인터랙티브 콘텐츠 기획팀
2011 심산스쿨 유대헌반 / 장르반 (멜로, 스릴러, 로코)
2012 영화산업실무교육 7기 (연출) 수료 / 단편 '사랑해' PD

수상 및 선정

2013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마켓 1분기 <플라워타운> 3월 추천.
2013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마켓 2분기 <불륜의 향기> 6월 추천.
2017 CJ 스토리업 8기 / 오픈 영화 1기 <교환원>.

집필 작품

2014 NAVER 웹소설 <마이퍼스트레이디> 연재
2014 KBS 드라마 스페셜 <추한사랑> 각색 / 연출부.
2015 장편영화 <없던 일> 각본.
2016 영화 <더 폰> 중국판 각본. -화책연합-
2017 <마음의 양식> 봄호. 수필기고. 9편.
2018 단편영화 <교환원> 각본/감독.

작품의도

1.5톤 냉장 탑차를 몰며 식당에 야채를 배달하는 한 남자.

그런데 이 남자의 진짜 직업은‘시체 처리사’

마지막 배달지 창고에 이르면, 간헐적으로 나와 있는 포대자루.

죽은 자가 누구인지, 누가 왜 죽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처리하는 것이 약속.

그러던 어느 날.....

한 포대자루에서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아내를 만나게 된다.

왜 자신을 떠났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돌아왔는지 묻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다.

아내와 소통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남자.

그녀의 죽음을 밝혀나가며 시효가 지나서야 아내를 이해하고 뒤늦은 구원을 받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

시놉시스

송윤무(42) - 젊은 시절, 보스의 수족 김필의 부하로 살던 ‘쓸모없는 놈.’선영과의 첫 만남에서 그녀의 목숨을 살리는 대가로 영원히 숨어 지내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났고, 둘 사이의 딸 선주 행방은 묘연한 데 선영 혼자만 돌아왔다. 이제! 선영과 딸을 위해 은일을 벗고 세상으로 들어가 복수를 다짐한다.

고선영(34) - 중소기업 사장이던 아버지. 금수저의 표본이었던 음대 대학원생 선영은 하루아침에 멸문을 경험한 다. 목숨까지 위협받으며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한다. 윤무의 여자로 살기로 다짐했지만 ‘실패한 온달공주’가 돼서 두 번째 삶도 그녀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딸을 위해 다시 한 번 새 삶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최윤정(38) - ‘도구’를 이용하는 가혹한 여자. 이 세상은 가족이거나 가족이 아닌 ‘도구’들 두 종류로 이뤄져 있다. 의대에 다니는 남동생과 음대에 다니는 여동생 뒷바라지를 한다. 가족을 위해 ‘도구’에게 자비는 없다.

김필(44) - ‘생각’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그 생각에는 도덕률은 빠져있다. 영악한 단세포는 다른 세포를 병합해 자신의 몸을 불릴 뿐이다. 자신을 거뒀던 보스도 그렇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력은 그저 자신의 왕국을 불리기 위한 자양분일 뿐이다.

송선주(6) - 송윤무와 고선영의 딸. 아빠를 닮았으면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나, 근자에 새로 밝혀진 유전법칙에 따라 모계 지능을 닮았다. 똑똑하고 맑은 아이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위태롭다.

어두운 새벽 울산 도심 밤거리를 송윤무(42)의 냉장 탑차가 외롭게 달리고 있다.

그의 후방 거울에는 아내 고선영(34)과 딸 선주(6)가 함께 찍은 미니 액자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윤무는 저녁 7-9시 사이 경매를 시작하는 울산 농수산물 시장에 들러 야채를 구매해 식당을 돌며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들르는 설렁탕을 주 메뉴로 하는 대형 식당 <홍가네> 납품을 마치면 그의 하루 일과가 끝난다. 그런데 달에 한두 번은 일면식도 없는 김 실장이란 사람으로부터 문자가 온다. [창고에 물건을 두었다] 그 문자를 받는 날이면 어김없이 <홍가네> 야채 창고 구석에 포대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럴 때면 윤무는 야채를 처리한 후 포대자루를 자신의 탑차에 싣는다. 그리고 평소 구덩이를 파두었던 야산으로 달려가 조용히 망자에 대한 자신만의 의식을 치르고 포대자루를 묻는다. 그 후 차를 타고 일전에 봐두었던 새로운 야산에 가서 미리 구덩이를 파놓고 널빤지를 이용해 위장을 해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정확했고 반복적이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윤무만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대자루를 열어 얼굴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늦은 아침 일어난 윤무는 복적이든 사람들을 피해 여러 야산을 돌아다니며 다음 구덩이 파둘 곳을 미리 봐둔다. 그 과정에서 막걸리를 통째 비우며 외로움과 상실의 고통을 달래는 윤무다. 산에서 내려온 윤무는 아동센터에 전화를 건다. 3년전 자신을 떠난 아내 선영이 혹시나 딸 선주를 고아원에 맡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6살짜리 선주라는 아이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 뿐이었다.

[과거]

6년 전 선영(28)은 중소기업 사장 딸에 음대 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금수저였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외에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은 풍비박산이 났고 선영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 쫓겨났다. 아빠와 오빠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남겨진 선영은 아빠가 찾는 다는 말에 꼬여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했다.

선영은 몸이 묶인 채로 위생이 엉망인 수술실에 누워 있었다. 그녀에게 거짓말을 해 납치를 한 사람은 바로 송윤무(36)였다. 윤무는 선영의 장기를 꺼내라는 보스의 하명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러기엔 선영의 미모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 윤무의 상관인 김필(38)은 말했다.

“너 이 새끼 몸 좀 썬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정신 안차려!! 너 언제 재로 냄비장사해서 돈 뽑을래? 1년에 꼴랑 5-6천 뽑자고? 니가 관리할래? XX새끼야! 형님 승질 몰라서 그래?”

시술을 하는 시술업자가 오기 전 윤무와 선영은 단 둘이 남겨졌다. 선영은 술에 취해 자기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윤무를 설득했다. 자기와 함께 떠나자고, 자신은 영원히 쫓겨 다닐 운명이고 자신을 보호해주면 결혼해주겠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태권도 유망주였으나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뒷골목을 전전한 윤무. 선영은 윤무의 현재 모습에도 불구하고 천성은 착한 사람이란 걸 단박에 알아차렸다. 하지만, “싫어.”

윤무는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난 여자 안 믿어.” 말하며 선영의 몸을 더듬었다. 그 때 시술업자가 들어왔고 윤무는 선영에게서 떨어졌다. 시술업자는 마치 로봇처럼 선영을 마취하는 일에만 집중했다. 선영은 침대에 묶인 채 죽음을 기다리며 윤무를 바라봤다. 그 눈빛을 피하려 부단하게 애쓰던 윤무는 선영이 마취되기 직전 시술업자를 쓰러뜨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지하 시술실을 빠져 나왔다. 그리고 산으로, 들로 전국을 떠돌며 그들이 숨어 지낼 곳을 찾아다녔다.

[현재]

어두운 새벽 울산 도심 밤거리를 송윤무(42)의 냉장 탑차가 외롭게 달리고 있다. 오늘은 김 실장의 문자를 받았고 <홍가네>에 어김없이 포대자루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포대자루를 찾는 윤무의 눈에 큰 가방이 보였다. 자크가 조금 열린 가방이었다. 가방을 옮기던 윤무는 가방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빛을 봤지만 원칙대로 절대 안을 살펴보지 않았다.

야산에 묻기 직전 가방을 잠시 떨어뜨리는 윤무. 열린 자크가 더 벌어지며 여자 손이 빠져 나왔다. 윤무는 손을 집어넣으려다 창백한 여자 손에 끼인 반지를 보게 된다. 아까 반짝이던 그 물체의 정체는 반지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반지는 바로 6년 전 자신이 선영에게 사준 반지와 같았다. 윤무는 원칙을 깨고 떨리는 손으로 자크를 열었다.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심호흡을 한 후 여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아뿔사! 죽은 여자는 3년 전 딸 선주를 데리고 자신을 떠난 고선영이었다.

윤무는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윤무는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었다. 그 동안 자신이 해온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냉장 탑차에 다시 실린 고선영의 시신. 한동안 패닉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던 윤무는 어느 날 선영을 자신만의 염으로 의식을 치르고 땅에 묻는다. “선주 데리고 돌아올게.”

선주를 찾기 위해서는 선영의 죽음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윤무는 한 번도 답문을 보내보지 않았던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히 만나고 싶습니다!] 김 실장에게는 하루 종일 답이 없었다. 윤무는 은행에서 돈을 찾고 술을 먹으려다 달라진 마음가짐 때문인지 태어나 처음으로 술을 참으며 골몰히 생각에 빠졌다.

‘나를 떠난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주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가 그렇게 깊은 골몰에 빠졌을 때 김 실장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문자가 왔다.

[과거]

울산 주변 작은 어촌. 윤무와 선영은 신혼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았다. 보스와 김필은 윤무와 선영을 찾기

않았다. 현재로선 다른 일들이 많아 실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무는 작은 배를 탔고, 둘은 행복하기만 했다.

그런데 선영의 외모가 화근이었다. 어느 날 부턴가 배를 타고 들어오면 윤무는 선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하나 둘 농담처럼 건네는 선영의 외모에 대한 칭찬에 윤무가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무의 어린시절은 선영과 다르게 참담했다. 어머니는 바람이 나서 도망쳤고, 술주정뱅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고아원을 찾아간 윤무였다. 응당 건강하게 자란 선영과 윤무는 양극단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밝고 현명한 선영이 그런 윤무의 불안을 잠재워줬다. 윤무의 불안이 극단에 달해 손지검이라도 하러 치면 오히려 발악하기보다 그를 안아주었고 윤무를 안심시키려는 노력에 힘을 쏟았다. 윤무는 선영의 지혜와 지속적인 노력에 안정을 찾았고 그녀를 믿었다.

그런데 선영은 선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윤무가 언제까지 남의 배만 탈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읍네에 카센타 자리가 나왔는데 선영은 윤무가 기술을 배운 후 나중에 돈이라도 용자해서 그 카센타를 사길 원했다. 선영은 지금 보다 나은 미래를 항상 꿈꿨고, 윤무는 선영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위를 보는 것이 지난 시절 ‘과거’의 영광이 그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 점점 지쳐간다고 오해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둘의 다툼은 잦아졌고, 약간의 패배주의와 만성적인 나태에 젖은 윤무는 자꾸 허상만 쫓는 거 같은 선영에게 욕박지르기 시작했다.

[현재]

공장 외곽지대 창고에서 김 실장과 부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무는 김 실장에게 시체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김 실장은 대노하며 <홍가네>를 비롯해 여기저기에 전화를 넣기 시작한다. <홍가네>에선 CCTV가 망가져 있어서 지금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홍가네> 구석구석을 잘 아는 윤무의 짓이었다. 당황한 김 실장은 일단 알았다고 윤무에게 돌아가라고 한 후 사라진다. 김 실장은 윤무가 3년 넘게 문제없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왔고 딱히 시체를 빼돌릴 이유도 없기에 윤무를 크게 의심하지는 않는 눈치였다.

김 실장을 미행하며 혼자 남을 때를 기다리는 윤무. 드디어 김 실장이 홀로 남겨진 어느 골목. 유년시절 태권도와 뒷골목에서 농이 익은 기술로 윤무는 김 실장을 간단히 제거하고 김 실장의 핸드폰에서 아까 발신한 번호들을 추출한다.

[과거]

패배주의에 젖은 윤무에게 그동안 자신이 모은 돈을 꺼내 보였던 선영은 칭찬은 고사하고 떨어뜨린 윤무의 반응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 윤무는 매너리즘과 패배주의에 깊이 젖어 있었다.

선영은 좌절하지 않고 시골 어촌에선 더 이상 선주와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생각에 서울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 보았다. 그런데 선영의 행동은 윤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윤무에게 다른 환경,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려는 의도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윤무가 보고 느끼고 배운 환경에선 지금처럼 패배주의와 매너리즘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이해하는 선영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선영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찾아왔다. 다시 재기를 위해서 오빠와 새 사업을 비밀리에 준비한다고 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고생 많다고 말하는 아버지한테 선영은 선주의 존재와 윤무를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보내고 선영은 카센타는 시기를 놓쳐 포기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자신이 가진 돈으로 새 삶을 계획

해 보자고 윤무를 설득한다. 하지만 “항상 높은 곳을 보니까! 과거가 그림이지!!”라는 질타를 남기고 윤무는 또 술 먹으러 나가버렸다. 그 때부터였다. 선주는 3살이었고, 선영은 집을 나가 새 삶을 마련한 후 윤무를 데리러 올 것을 결심했던 것이.

선영은 선주를 데리고 집을 나와서 아버지 일을 돕기로 했다. 아버지에게 윤무는 원양어선을 탔다고 말했다. 그가 돌아오는 1년 뒤 돌아갈 것이라고..... 그런데 작은 그릇 공장을 인수해 재기를 꿈꾸던 아버지와 오빠에게 시련이 닥쳤다. 사기를 맞은 것이다. 설상가상 사기친 자들이 옛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해, 아버지와 오빠 선영은 야밤도주를 해야 했고, 선영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나온 돈을 주고는 그들과 헤어졌다.

작은 보금자리를 만든 선영은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돈을 모았다. 그 중 자신의 전공을 살린 스탠드바 오브리(연주자) 알바는 꽤 쓸쓸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 될 줄은..... 선영을 자기 여자로 만들려는 업주에 의해 몰래뽕(몰래 음료에 뽕을 넣어 중독에 이르는 일)을 당하는 선영. 위기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선영은 업주의 위협으로부터 간신히 탈출하지만, 결국 진주 산업단지 주변 포주에게 넘겨져 아가씨들을 ‘도구’로 보는 최윤정을 만나게 된다.

최윤정(실존인물, 실존 사건)은 아가씨들에게 성형을 요구했고, 성형외과 의사와 짜고 차익을 남기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가씨들의 고혈을 빼먹으며 도망치지 못하게 율가미를 씌었다. 그리고 오피스텔 하나에 집단 거주하도록 했는데, 그곳은 적외선으로 밖의 침입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의 탈출자를 감시하도록 실내 감지시스템이 설계 되어 있는 곳이었다.

아가씨들이 혹시나 손님 중에 한 명을 골라 탈출을 시도할 것을 대비해 최윤정은 가끔 자기 사람들을 손님으로 넣어 아가씨들을 시험했고, 그녀의 뒷에 걸린 아가씨들은 응당의 보복을 받아야 했다. 처음 대면에서 가면을 쓰고 선영에게 사람 좋은 사람으로 접근한 최윤정. 선영에게 술시중만 드는 1차전용 아가씨 일을 제안했고, 이런저런 고생을 경험한 순진한 선영은 크게 반항하지 않으며 그에 응했다. 최윤정이 선주의 양육도 보조해줬기에 그녀는 최윤정을 좋은 언니로 믿고 따랐다.

최윤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자신 또한 오피컬(오피스텔에서 성매매)을 강요받게 되자 선영은 거부한다. 하지만 최윤정이 선주를 이용해 강압하고 선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탈출을 결심한다. 선영은 평소 자신을 도와주던 삼촌 영식(28)에게 선주를 어디로 오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영식은 자신에게 피해가 없는 선에서 똑똑한 선주에게 엄마의 쪽지를 전하고 선주가 미리 그곳에 가서 기다릴 수 있게 도와준다. 드디어 함께 합숙생활을 하던 6명의 아가씨들과 탈출을 한 선영. 그런데, 아가씨 6명과 함께 그만 최윤정의 삼촌들에게 잡히고야 만다.

[현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선영의 죽음을 거슬러 올라가던 윤무는 결국 최윤정을 만나기에 이른다. 최윤정을 멀리서 관찰하던 윤무는 아가씨들이 잡혀있는 오피스텔이 외부침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시체계가 없는 점을 알고 잠입에 성공한다. 선영을 포함해 탈출한 7명은 모두 잡혔고 그 중 선영과 한 아가씨는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다.

윤무는 드디어 죽기 직전 선영과 가장 친했던 미란이란 아가씨에게 선영이 왜 집을 나왔으며 입버릇처럼 “돈을 벌여 윤무를 데리러 돌아가려 한다.” 말했던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살게 해준 윤무를 결코 버린 것이 아니며, 평생 자신을 지켜주었던 약속을 이행한 것에 대해 선영이 윤무를 온달왕자로 만들어

주고 싶어 했음을 전해 듣게 된다.

윤무는 자신이 선영을 많이 오해했음을 개탄한다. 선영의 화려했던 과거에 대한 열등의식과 불안이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었고 그녀가 말하는 희망이 결코 온전한 희망처럼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가 자꾸 현재를 부정하고 자신을 떠나기 위한 구실을 만든다고 생각했던 윤무였다.

미란은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주었다.

선영은 최윤정에게 잡혀 다른 아가씨와 함께 누군가에게 넘겨졌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바로 윤무의 직속 상관이던 김필이었다. 김필은 선영을 알아봤고, 매우 흥분하며 배신자 윤무가 있는 곳을 물었다. 선영은 끝까지 윤무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았다. 윤무가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한 선영의 화답이기도 했다. 선영은 말하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했고 결국 죽게 된 것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윤무는 너무나 뒤늦게 깨달은 선영의 사랑에 깊은 회한으로 울부짖었다. 그리고 이내 행방을 알길 없는 선주 생각이 나서 정신마저 혼미해졌다. 혹시나 최윤정이 선영에 대한 앙갚음으로 선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윤무는 준비해온 모든 연장과 무기를 챙겨 김필과 최윤정을 찾아간다.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살육이 시작된다.

김필 일당은 최후를 맞았고, 윤무가 최윤정을 죽이기 직전 최윤정은 선주에 관해 말해주었다. 영식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뿔뿔하고 예쁜 선주에게 ‘가족’을 느낀 최윤정은 선영에게는 가혹했지만 선주에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족’의 지위를 부여했던 것이다.

윤무는 오피스텔에서 풀려난 아가씨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최윤정 처리를 맡기고 선주와 함께 떠난다.

며칠 후,

선주와 함께 찾은 선영의 무덤. 윤무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한다. 선주는 누구의 무덤인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평소 선영과 자신이 징표로 꼭 쥐고 있던 목걸이를 엄마에게 다시 주며 “엄마 안녕!”을 말하고는 윤무의 눈물을 닦아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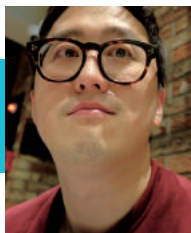
선주에게 안겨 울먹이는 윤무.

끝.

송도

조사무엘

1977년생.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가 되고자 한다.



집필 작품

2005 영화 <싸움의 기술> 각색
2007 영화 <마파도2> 각본
2008 영화 <가루지기> 각색
2012 영화 <음치클리닉> 각색
2014 영화 <악인은 살아있다> 각색
2014 영화 <헬머니> 각본
2017 영화 <보통사람> 각본

작품의도

바다를 메워 만든 땅과 그 위에 세워진 빌딩들 속, 서로 다른 욕망의 격렬한 충돌이 만들어내는
비정한 세계의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시놉시스

장태산/김현진 (남, 28) 복수를 위해 신분을 속이고 적의 곁에 머무는 이.
박창진 (남, 41) 한 세계의 주인이 되고자 모든 것을 던지는 이.
박혜신 (여, 24) 길고 치열한 싸움을 애증으로 지켜보는 이.
조씨 (남, 54) 육식동물들의 세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이.
신상환 (남, 68) 전세대의 왕. 다음 세대의 패권을 결정하려는 이.

갑작스런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장태산(8)은 친척집 서너 곳을 전전하다 결국 보호시설로 보내진다. 시설에서 지어준 '김현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태산은 과묵하고 침착했지만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려 할 때만큼은 항상 격렬하게 저항했다. 또래끼리의 서열 다툼에 관심이 없던 태산은 치열하게 학업에 몰두해 국내 최고의 법학부에 입학하게 된다. 태산에게는 사법고시, 대기업 특채, 국회의원 보좌관 등 모든 기회가 열려 있었지만, 졸업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한다. 20년 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아버지의 모습이 단 한 순간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8년, 남인천에 위치한 영일시장. 태산에게 시장은 고향이자 집이자 놀이터였다. 시장 번영회장인 태산의 아버지 장상필(43)은 세입자 처지의 상인들을 대표해 재개발에 저항했고, 결국 반대파의 손에 의해 자살로 위장된 죽음을 당한다. 장상필의 죽음에는 건설사와 지역 폭력조직의 사주가 있었고, 이를 직접 실행한 것은 박창진(21)이었다. 절도 전과가 있던 박창진은 장상필의 도움으로 시장 샅꾼으로 일하고 있었고, 어린 태산은 그를 꼬마삼촌으로 부르며 잘 따랐다. 생선가게 대들보에 목이 매달린 상필을 처음 발견한 건 다락에서 자다 깬 태산이었고, 태산은 창진이 황급히 가게를 떠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

20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온 태산(28)은 곧바로 영일시장을 향한다. 바닷가였던 시장은 송도간척사업으로 내륙이 되어 있었다. 비린내 나던 재래시장 터에는 '밀리언타운'이라는 패션 쇼핑몰이 들어서 있고, 이전 그마저도 낡아버린 모습이다.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은 태산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상가 지게꾼 자리를 산다. 상인들은 성실하고 과묵한 태산을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그에게 많은 일을 맡겼다. 특히 5층에서 원단을 파는 조씨(53)와 9층 명품샵의 혜신(24)이 그랬다. 지게꾼이 따로 필요 없는 혜신은 시시때때로 태산을 불러 괜한 잡일을 부탁하곤 했다. 상가 구석구석 짐을 나르는 태산에게는 상가에 떠도는 모든 소문이 흘러들어왔다. 상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리실과 상가번영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모든 일을 책임지는 대표관리인 겸 상가번영회장인 박창진(41)에 대한 정보까지 말이다.

태산이 지게꾼에 머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혜신은 태산을 상가의 말단 관리인으로 추천하고, 조씨 역시 추천서에 서명을 해준다. 그렇게 면접 자리에서 만나게 된 박창진은 이제 말끔한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20년 전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그 순간, 다락에 엮여 있던 숨 막히는 감각이 다시금 태산을 감싼다. 하지만 박창진은 시선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태산을 고용한다. 그렇게 창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

태산. 하지만 그의 일은 24시간 돌아가는 관리실에 맞고대로 상주하는 것뿐이었다. 창진에게 더 다가가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던 때, 태산은 상가 내 점포 하나를 폐쇄하는 일에 동원된다. 태산을 도왔던 조씨의 가게였다. 자잘한 법규위반 등의 명목이 있었지만 실은 조씨가 번영회비 인상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히 표현하고 다닌 탓이었다. 영일시장 시절부터 장사를 해왔던 조씨는 원단 가위로 자해를 하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선혈이 낭자하는 현장에 앞장서 나선 건 태산이었다. 그는 조씨에게 중재안을 내놓으며 차분히 사태를 수습한다. 이 사건으로 박창진은 태산에게 관심을 보이며, 스스로 벌인 일을 수습해보라며 기회를 준다. 태산은 조씨를 도와 점포를 정상화시키고 밀린 번영회비를 납부하게 한다. 이 일로 태산은 상인들의 신망을 얻게 되고, 박창진의 특별한 관심도 얻게 된다. 조씨가 번영회비를 완납한 그날, 태산은 박창진의 운전기사로 발탁된다.

영일시장 재개발의 선두에 섰던 박창진은 그 대가로 번영회 이권의 일부를 차지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수년간 반대파를 제거하고 지분을 흡수하기를 거듭해 결국 번영회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박창진은 밀리언타운 뿐 아니라 주변 여러 상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공공연한 비밀인 사채업을 통해 영세 상인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박창진의 운전기사 겸 비서로 상납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던 태산은 은밀한 비즈니스의 자리에서 법학과 선배인 지방검사를 만나게 되고, 그 인연으로 막혀있던 라인을 하나 연결하게 된다. 이렇게 박창진의 신임을 조금씩 얻어가던 태산은 비밀스럽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복수의 칼을 만지작거린다. 반면 박창진에 대한 충성의 대가는 너무나 달콤했다. 태산은 회사 명의로 오피스텔을 쓰고 새 차를 뽑고 최고급 슈트를 입게 된다. 검사와 경찰간부, 때론 국회의원들까지 상대하며 태산의 일상은 극적으로 비약하고, 꾸준히 다가오던 혜신과도 연인으로 발전한다.

박창진은 합리적이고 냉정하면서도 대담한 인물이었다. 큰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매사에 도를 넘지 않는 현명함도 소유하고 있었다. 사생활도 놀랍도록 깨끗했다. 인천 토박이인 박창진은 송도의 관할 관청을 둘러싸고 벌어진 연수구와 남동구의 분쟁을 조장하고 또 균형을 맞추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이는 엄청난 세수를 노린 기초단체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당으로 입장이 갈린 지역구 국회의원, 인천 시장과 경기 도지사까지 연결된 거대한 이권의 카르텔이었다. 이 공공연하고도 은밀한 카르텔은 이제 새로운 땅, 영종도의 카지노 건설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임페리얼시티개발(주)'라는 이름의 복합리조트 사업. 막대한 이권이 보장된 이 사업에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만든 홍콩 유한외사의 자본과 국내 유수의 건설사, 금융기관 그리고 인천도시공사까지 모두 11곳이 참여하고 있었다. 새 인천시장은 부임과 동시에 컨소시엄의 대표를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했고, 박창진은 바지사장에 가까운 새 대표를 끼고 개발사업의 실무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구도 속에서 전 인천시장을 낀 북인천 토착자본의 지분을 탈환하고 있던 박창진은 북인천 라인의 핵심, 상환건설의 대표 신상환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시키며 10여년을 끌고 오던 주도권 싸움을 마침내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 태산은 박창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그를 파악해 나가고, 박창진 역시 태산을 마치 아들처럼 아끼며 자신의 후계자로 대우한다. 박창진으로부터 20년간 부재했던 부정(父情)을 느낀 태산은 마음의 혼란과 갈등 속에 조금씩 복수를 주저하게 된다.

자본과 권력의 복마전 속에서 정신없이 지내던 태산은 어느 날, 혜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박창진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연락이 되지 않는 몇 시간이 지난 후, 혜신은 태산에게 자고 있었다며 거짓말을 한다. 혜신에 대한 배신감, 창진에 대한 열패감에 휩싸인 태산. 창진에게도 혜신에게도 진실을 묻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태

산은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조씨와 술을 마시게 되고, 술에 취한 조씨는 태산이 장상필의 아들임을 눈치챈다.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태산을 꾸짖는 조씨. 하지만 다음날 술에서 깬 조씨는 태산을 알아봤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혜신과 조씨로부터 촉발된 복잡한 감정은 태산으로 하여금 서둘러 복수를 실행하게 한다. 태산은 학교 선배인 지방검사의 도움을 받아, 창진의 이중장부와 상납의 명단을 확보해 검찰에 넘긴다. 며칠 뒤 창진은 태산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사무실에서 구속된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히 일어서는 창진. 태산은 그토록 기다렸던 복수의 순간을 만끽하지 못하고 창진의 시선을 피하고 만다.

박창진의 구속에도 밀리언타운은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측근의 반발도 상인들의 동요도 없었다. 의아한 반응 속에서 태산은 새 번영회장을 뽑기 위한 회원 소집을 묵묵히 준비한다. 하지만 태산을 아끼던 조씨마저 쓸 데 없는 일을 벌였으며 태산을 외면한다. 다음날, 창진은 신속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당당히 밀리언 타운으로 돌아온다. 창진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산에게 커피를 가져오라 명령한다. 겁에 질린 얼굴로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는 태산. 혼돈과 혼란 속에 밀리언타운을 등지고 도망치던 태산은 자신을 기다리는 건장한 사내들과 맞닥뜨리고, 이내 무력하게 쓰러지고 만다. 먼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고립된 창고 안, 발가벗겨진 몸으로 두건을 쓴 채 가혹한 린치를 당하는 태산. 살이 터지고, 피가 튀고, 뼈가 부러져 나간다. 태산은 모르고 있지만 박창진은 부서져가는 태산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한참이나 태산을 지켜보다가 말없이 돌아선다. 몇 시간인지 모를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태산의 두건을 벗겨주는 낯선 남자들의 손. 그들은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태산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다.

학교 선배인 지방검사 앞에 앉은 태산은, 그로부터 박창진이 너무 많이 컸다며, 카지노 사업엔 이미 중국과 라스베이가스 자본이 들어와 있고 그들은 안전장치 없이 돈을 넣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안전장치란 시장과 도지사를 넘어선 그 위. 정치권력의 최상층부를 말하는 것이었다. 옷 벗을 뻔 했으며 제 걱정엔 바쁜 검사 앞에서 태산은 세차게 자신의 머리를 짓이긴다. 박창진에게 받았던 오피스텔과 차 등이 횡령의 증거로 인정되고, 태산은 1년형을 선고받는다. 죄수복을 입고 입을 굳게 다문 태산. 악착같이 박힌 돌을 빼냈던 어린 시절과 달리 아무런 저항도 않고 괴롭힘을 감수하는 태산. 거듭 면회신청이 들어오지만 태산은 자신에게 별이라도 주듯 매번 거절한다. 그리고 태산에게는 꾸준한 영치금이 남겨진다. 감옥 안에서 태산을 주시하고 있는 시선이 있었다. 박창진에 의해 숙청된, 상환건설의 대표 신상환(68)이었다. 이제 직접 나설 수 없는 신상환은 태산을 얼굴로 쓰길 원했다. 태산은 박창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신상환으로부터 새로운 경험을 흡수해 나간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태산은 드디어 면회실로 나선다. 그렇게 혜신을 만난 태산은 그녀가 박창진이 침대 시절 낳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창진이 혜신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줄곧 자신을 삼촌이라 속여 왔다는 것도. 자신의 미숙함과 성급함을 다시금 깨닫고 복잡한 마음속에서 혜신을 받아들이는 태산. 혜신은 태산과 함께 이곳을 떠나기를 원한다. 하지만 태산의 속내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태산은 가석방이 되지 않고 형기를 모두 채우고, 누군가로부터의 영치금은 계속 된다.

수척한 몸으로 출소한 태산은 자신을 기다리던 혜신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한다. 혜신은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곧 함께 이곳을 떠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날 밤, 조씨로부터 은밀한 연락이 도착한다. 영치금을 넣은 건 조씨였다. 조씨는 처음부터 태산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술에 취한 날 담아두었던 진실이 입 밖으로 나왔을 뿐, 조씨는 아주 오랫동안 단단히 함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혜신 몰래 조씨를 만나러 간 태산은 박창진의 폭압적인 약탈과 독점에 반기를 든 모든 이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태산을 창진의 유일한 대항마로

여기고 태산을 붙잡는다. 어린 시절 아버지 장상필을 찾아오던 상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태산. 태산은 이들 앞에서 박창진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 선언하고 곧바로 신상환에게 지원을 청한다. 이를 전해들은 혜신은 결국 태산과 창진 모두를 떠난다.

태산은 조씨로부터 점포의 명의를 넘겨받아 입주상인의 신분으로 밀리언타운에 재입성한다. 창진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산의 가게에 화환을 보내는 여유를 보인다. 자연스레 번영회의 회원이 된 태산은, 곧바로 번영회장 출마를 선언하며 창진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시작한다. 겉으로는 신규 후보의 평화로운 선거지만, 실상은 협박과 회유가 뒤섞인 노골적인 편 가르기였고, 또한 이면의 이권을 보장하고 회색 자금을 나누는 일이었다. 인근 상가 상인들이 밀리언타운을 제외한 연합 폭탄 세일로 밀리언타운의 매출을 고립시키는 등 싸움은 이내 표면화되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임페리얼시티 사업의 패권이다. 태산은 상환건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국 관광객과 연결된 정킷(카지노에 손님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합법 사업)을 공략하기 시작한다. 파격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해 창진과의 잡음을 만들고, 몇몇은 결국 결별시킨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잠시 혼란에 빠진 창진의 정치적 라인을 회유하고 가로챈다. 창진이 여당 지지체장을 업고 추진하는 허가와 조례 개정은 태산이 잡은 야당 기초단체 의원들에 의해 한없이 지체되고 일부는 무효화된다. 이제 태산은 박창진 측의 거의 대등한 40%에 육박하는 지분의 위임장을 쥐게 된다. 이는 사업 진행을 방해할 정도의 지분이지만, 결정권을 가질 순 없는 수치였다. 본 개발사업의 열쇠는 인천도시공사에 있었고 결국 인천시장을 어떻게 회유하느냐가 승패의 핵심이 된다. 하지만 시장은 박창진이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태산은 결국 그 위의 라인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태산은 도지사,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까지 거슬러 올라가 선을 만들어 보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

그즈음 태산은 박창진이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분양률을 뺄뒀기만 정황을 포착한다. 박창진이 차명으로 매각부지의 상당량을 분양받은 것. 이 부분을 어떻게든 파고들기 위해 백방으로 라인을 가동한 태산은 놀라운 사실에 마주한다. 최대 주주였던 홍콩의 자본은 남몰래 지분을 50%에서 28%까지 줄였고, 그 지분은 사실상 공적 자금인 인천도시공사에서 사들였다. 인천도시공사는 시장의 압력에, 시장은 국회와 정권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임페리얼시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이미 밀이 다 빠진 독이었다. 박창진은 결국 쓰고 버리는 바둑알 같은 존재였던 것. 곧 모든 소액 주주가 나가떨어지고 난 뒤, 아무리 지연시켜도 다음 대선인 2년 후에는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 엄습하는 허무함에도 자신을 다잡는 태산. 무력함 속에 머무를 시간이 없다. 박창진은 이미 출구 전략을 찾았을 것이다. 태산이 진짜 흐름을 읽은 바로 그때, 박창진은 송도의 한 호텔로 태산을 부른다. 창진은 자신과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는 태산을 칭찬한다. 그리고는 태산의 아버지인 장상필 역시 지역 조직의 보스였고, 세력 다툼에서 밀려난 뒤 시장의 재개발 이권을 기반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장상필은 끝내 재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다고. 당황하는 태산 앞에 창진의 고백 혹은 거짓이 이어진다. 창진은 그 일로 자신의 손을 더럽혔지만 실행을 지시한 것은 당시 보스였던 신상환이었다고 말한다. 그럴듯한 창진의 말에 잠시 혼란에 빠진 태산. 그런 태산에게 박창진은 유혹적인 타협안을 내놓는다. 잠시 머뭇거리던 태산은 창진의 제안을 거절한다. 태산의 굳은 의지를 읽은 창진은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던 너는 정말 잘해냈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선다. 창진의 말이 진실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를 이겨야겠다고 결심한 태산은, 모든 힘을 쏟아내 마지막을 준비한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박창진 역시 자신의 근거지이자 임페리얼시티 사업의 돈줄인 밀리언타운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상인들에게 사채를 뿌려놓은 창진은, 원금 회수를 빌미로 상인들을 압박하는 한편, 웃돈을 주고 점포를 인수해 표를 사들인다. 오랜 세월 공고해진 창진의 수권 방식은 철저하고 집요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마지막 밤, 태산은 박창진의 확고한 지반이었던 세 표를 빼앗아 오며 가까스로 동물을 만든다. 박창진 대 비주류연합의 총력전이었던 대결은, 그간 보이지 않았던 혜신이 총회장에 나타나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으로써 태산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태연한 얼굴로 태산의 손을 들어주는 창진. 태산은 이제야 창진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혜신에게는 시선을 주지 못한다.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상인들에 둘러싸인 태산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총회장을 빠져나가는 박창진의 뒷모습을 끝까지 노려본다.

그날 밤, 태산은 자신이 린치를 당했던 바로 그 바닷가 창고를 향한다. 그곳엔 박창진이 묶여있다. 같은 장소, 다른 입장이 된 태산과 창진. 하지만 창진은 자신의 딸인 혜신을 인질 삼아 태산의 손을 벗어나려 한다. 태산은 굳이 혜신이 아니어도, 당신을 살려주려 했지만 이제는 혜신 때문에 당신을 죽여야겠다고 말한다. 쓸쓸한 눈으로 태산을 보던 창진은 이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잠시 후, 태산과 재회한 혜신은 다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끝내 태산을 외면한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호하지만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냈다 느낀 태산은, 모든 것을 버리고 혜신과 함께 이곳을 떠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한다.

박창진은 홀연히 종적을 감췄고 필리핀, 중국, 마카오 등 그의 행선지를 추측하는 소문만 무성하다. 박창진이 사라진 후 며칠 사이, 태산의 편에 섰던 이들은 반대파에 대한 잔인한 응징을 시작하고,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했던 중간파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불이익이 돌아간다. 모두를 억누르고 있던 거대한 힘이 사라지자, 그간 숨죽였던 큰손들이 세를 과시하며 크고 작은 이권 다툼이 표면화된다. 밀리언 타운을 비롯한 상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이 시작되고 힘없는 상인들의 비명이 시작된다. 이제 숨통이 트인 큰손들은 물론, 조씨마저 태산은 아직 젊으니 실권을 잡기 보다는 배우는 시간을 가지라며 회장직을 내려놓도록 압박해온다. 애초의 목적을 이룬 태산은 그들의 권유를 굳이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태산은 어떤 대의와 명분을 찾으려던 자신이 순진했음을 느끼며, 남의 고기를 먹지 않으면 자신이 그 고기가 되어 먹힐 수밖에 없는 야생의 냉혹함을 곱씹는다. 지게꾼에서부터 상인들까지, 욕심을 부린 적이 없는데도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들을 보며 고민하던 태산은 혜신이 인천을 떠나는 날, 결국 그녀와 함께 하지 않는다. 태산은 보란 듯 총회장에 나타나 번영회장에 취임한다. 태산의 사퇴를 예상하고 임시 총회를 준비하던 이들은 당황하지만 내색하지 못한다. 합법적 자격을 가진 태산을 반대하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태산을 반기는 이도 없었다. 다시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태풍 전야의 고요 속, 밀리언 타운 꼭대기 층에 홀로 앉아 불빛이 흔들리는 남인천을 내려다보는 태산. 이때 걸려오는 한통의 전화. 목소리는 태산에게, 박창진의 역할을 계속 해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태산이 무엇이라 대답했는지는, 잘 들리지 않는다. 전화를 끊고 다시금 흔들리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던 태산은 유리창에 비친 얼굴을 들여다본다. 그곳에는 장상필의 모습인지, 박창진의 모습인지 모를 한 남자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커넥션

조상범



영화가 세상을 구원할 거라 믿었던 순박했던 씨네 키드 영화광 시절을 거쳐,
총무로 현장에서 산전수전공중전을 겪으며 얼지 마 죽지 마 부활 할 거라며 외치다,
스토리를 만들며 놀다 지치면 널브러져 폭 쉬는 삶을 꿈꿨고, 지금 그 꿈을 살고 있다.

이력

2000 영화 <아나키스트> 메이킹
2001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졸업
2003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MFA(영화제작석사) 수료
2003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연출부
2006 영화 <폭력씨클> 조감독
2012 드라마 <홀리랜드> 조감독
2014 영화 <인간중독> 조감독
2014 영화 <타짜, 신의 손> 각본

수상 및 선정

2003 단편 <별주부전> 대한민국 종교 예술제 종교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2004 단편 <별주부전> 제1회 국제 환경영화제 단편영화 경선색선 선정.
2011 시나리오 <식물의 사생활> 영진위 시나리오 마켓 4/4분기 공동추천작 선정.

집필 작품

2014 영화 <타짜, 신의 손> 각본.

작품의도

탐욕에 물든 글로벌 투기 자본의 침탈! 그 뒤에서 막대한 부를 챙긴 관치금융의 공모자들!
10조 원대 국부 약탈 작전, 론 스타 게이트를 기반으로 한 **금융 범죄 스릴러**.

시놉시스

서기철 (남, 40) - 골든 스톤 코리아 인턴 애널리스트

전직 형사 출신 로스쿨 변호사. 헤지펀드 회사에 위장취업, 제이슨의 비리증거를 찾고 있다.

제이슨박/박진우 (남, 29) - 골든 스톤 코리아 대표. 헤지펀드 매니저.

월가 기업 사냥꾼.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바이아웃 하며 신성그룹의 합병을 저지하고 있다.

이강준 (남, 50) -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 수사단장. 차장검사.

여의도 저승사자. 제이슨의 기업사냥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현주 (남, 75) - 싱크탱크 선재 고문. 이강준 부친.

전직 경제 부총리. 신성그룹의 합병을 성사시켜 비자금에 손을 넣으려 한다.

블랙 먼데이.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강력한 매도 주문들. 연일 주가가 폭락하자 자금력이 딸리는 기업들이 연쇄부도가 나며 파산해버린다. 갑작스런 금융위기에 대책을 세우느라 정신없는 금융당국과 정부.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흑기사로 깜짝 등장해 공격적 인수합병에 나서는 글로벌

별 헤지펀드 **‘골든 스톤 코리아’**. 그 뒤에는 월가의 떠오르는 신성,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 **제이슨 박**이 있다.

부도난 기업들을 사들이는 것을 시작으로 공격적인 기업사냥에 나선 그가 최종 타겟으로 총구를 겨냥하고 있는 곳은 바로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최고의 대기업 **‘신성그룹’**. 신성물산과 신성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며 외국인 지분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제이슨 박.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앞두고 **로비스트 남재현**을 고용해 거래에 나서보는 신성그룹. 허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급해 지는데...

한국 경제를 장막 뒤에서 조종하며 이권을 챙겨왔던 모피아들이 발각 뒤집혔다. 최근 도산한 기업들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그들은 신성물산 합병까지 무산되면 해외 저수지에 담가 놓은 차명 재산이 모두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다. 모처에서 비밀리에 싱크탱크 회합을 여는 모피아들. **전직 총리 이현주**는 최근 벌어진 일련의 기업사냥이 **‘케이스타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을 직감한다. 13년 전 전국을 발각 뒤집어 놓은 **‘대한은행 불법 매각 사건’**. 제이슨 박의 먹잇감이 된 기업들은 모두 그 사건으로 콩고 물을 챙겨먹은 이들이 투자한 기업이었다.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신성그룹! 오랜 시간 세탁한 비자금에 손을 쥐려면 합병을 성사시켜야만 하는 이현주다. 언론을 총동원해 국부유출을 들먹이며 총력전을 펼치게 되고...

대기업 뇌물 수수 특검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장 이강준**. 제이슨을 수사선상에 올려 탈탈 털어보지만 그의 기업사냥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월가를 석권한 한국계 기업 사냥꾼 제이슨. 업계 최고의 성과보수를 받는 슈퍼리치가 된 그는 정보전의 귀재지만 정작 본인의 개인 신상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 수사에 난항을 거듭하던 이검사는 평소 로스쿨 수업 시간에 눈여겨 본 **전직 형사출신 서기철**에게 골든스톤 잠입 수사를 맡겨 제이슨의 뒤를 캐오게 하는데...

인생 한방이라며 형사일 때려 치고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땃지만 로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벼랑 끝에 몰려 있던 반 백수 기철은 특별채용을 조건으로 내건 이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우연히 가장한 만남으로 제이슨에게 접근해 호감을 사는 기철. 형사 생활로 얻어진 동물적인 직감을 어필한 **기철은 골든 스톤에 인턴사원으로 위장해 잠입하게 된다.**

출근 첫날, 법무 팀을 찾아간 그는 **리스크 컨설턴트**라는 낯선 보직을 부여받는다. 명함에 적힌 직위는 컨설턴트지만 실제 하는 일은 합병 대상 기업의 은밀한 정보를 캐는 일이다. 제이슨의 뒤를 캐야하는 마당에 난데없이 기업 뒷조사까지 해야 하는 기철. 이체나 겨우 할 줄 알지 금융 일자무식인 기철은 그 날부터 번시 준비하듯 금융서적들을 독파하며 헤지펀드사의 업무를 파악하게 되는데... 햄버거부터 맥주, 호텔까지 세상의 모든 곳에 손길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최첨단 금융 투자라는 미명하에 합법적인 투기판을 벌이고 있는 사기꾼들에 분노하는 기철.

억눌렀던 형사본능이 폭발하며 위험한 현장을 가리지 않고 인맥을 쌓고 자료를 모으며 기업들의 권력암투구조부터 비밀스런 사생활까지 모든 정보를 캐내게 되는데... 뛰어난 성과를 내며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기철. 제이슨의 신뢰를 얻으며 보다 깊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자 본색을 숨긴 채 그의 뒷조사를 시작하지만 어느 선 이상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다. 보다 완전한 신임이 필요한 기철은 이검사로부터 고급정보를 건네받아 제이슨의 맘을 열며 최측근이 되어 가는데... **이중 첩자. 양쪽 임무를 수행하며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기철!**

그러던 중 금융천재들이 펼치는 화려한 머니게임에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는 기철. 뛰어난 정보력으로 대형 빅딜을 성공시키며 짜릿한 쾌감과 거액의 보너스를 손에 쥐며 서서히 투기판에 물들게 된다. 천재적인 실력만큼이나 사람을 잘 다루는 제이슨의 인간적인 면모에 빠져들며 서서히 흔들리는 기철. 완벽주의 냉혈한처럼 보이지만 살벌한 중압감에 가끔 폭주하는 그를 보며 웬지 모를 연민에 사로잡히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제이슨의 불법 내부자 거래 정보를 손에 넣게 되는 기철. 동시에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의 어두운 과거를 알게 되는데...

제이슨 박의 한국명은 박진우. 그는 과거 ‘케이스타 게이트’로 인해 의문의 죽음을 맞았던 대한은행 직원 박창욱의 아들이었다! **이 모든 게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에게 대한 복수라는 걸 알게 되는 기철.** 자살로 처리된 진우부의 사망사건 기록과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를 모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가는데... 진우부는 대한은행 매각의 핵심 논거였던 ‘은행 자기자본 비율’의 작성자였다. 특검 소환조사를 앞두고

갑작스레 마티즈 차량 안에서 번개탄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된 그의 죽음은 미스터리가 가득했다. 강력반 출신 기철의 특유한 촉에 의하면 이 사건은 거대한 음모의 스모킹 건이다!

신성물산 합병에 사활을 건 제이슨과 그걸 막기 위해 자신을 이곳에 잠입시킨 이검사 사이에서 엄청난 진실을 목도하게 되는 기철. 내부자 거래정보를 넘기면 로펌의 미래가 펼쳐지고, 의문사의 진실을 파헤치면 형사로써의 신념을 지켜낼 수 있다. 제이슨과 이검사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에 휩싸이는데.... 점차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는 이검사. 제이슨도 기철에게 감시의 눈을 붙여 놓게 되고...

그 놈을 잡아야 내가 산다! IMF때 가정을 포기했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오르는 기철. 자신은 사랑받지 못했지만 아들 준혁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기철이었다. 결국 가족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내부자 거래정보를 들고 남부지검으로 향하는데... 순간 신성물산 측 자료를 함께 캐던 강력반 강형사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과거 외환위기 때 신성물산이 금 수출을 빙자해 부가세 부정수급 이익을 취했다는 것!

발길을 돌려 강형사를 만난 기철은 금세공사였던 **부친의 실직과 몰락이 신성물산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분노에 휩싸인다. 제이슨의 복수심에 동병상련하며 공감하게 되는 기철. 진우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기철은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이강준 검사에게 접근해 과거 대한은행 매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기철. 제이슨의 복수극을 폭로하고 증거를 잡기 위해선 미끼를 던져야 한다며 각종 자료를 받아낸다. 이검사에게 받은 기밀자료들을 제이슨에게 보고하며 정보전에 뛰어드는 기철. 신성물산 대주주들의 숨겨진 범죄전력을 파헤친 기철의 활약 덕분에 하나둘 의결권을 넘겨받기 시작하는 제이슨. 결국 대량 지분을 확보한 제이슨은 주총을 앞두고 결정적인 마지막 한방을 준비한다.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기철을 보내는 제이슨. 대한은행 매각시 로비자금을 받은 약점을 들추며 합병반대에 서달라는 협박을 하는데... 순간, 들이닥치는 강형사와 경찰들. 그 뒤에 선 이강준과 합수단 검사들. 친형처럼 따르던 강형사는 이검사의 쥐새끼였다. 기철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받았던 이검사가 덫을 놓은 것이다.

교외의 모처로 향하는 합수단의 차량. 그곳에서 기철에게 갖은 심문을 하며 제이슨의 내부자 거래 정보를 토해내라는 이검사. 마지막 기회라며 아내와 아들을 들먹이는 이검사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무너져내리는 기철. **제이슨을 넘겨야 우리 가족이 산다!**

일처리가 잘 됐다며 제이슨에게 거짓보고 하는 기철. 제이슨은 기업사냥에 나선 사연과 부친의 일을 털어놓으며 기철에게 진심을 토로하는데.... 현실에 굴복한 자신의 비루함에 진탕 취한 기철. 전세금으로 고민하던 자신을 위해 몰래 거액의 보너스를 넣은 사실을 알게 되며 죄책감에 사무친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아들 준혁이 나쁜 놈 잡는 아빠가 멋있다고 달려들자 울컥하는 기철. 준혁이가 살아갈 세상은 조금 달라지지 않겠냐는 아내의 말에 눈물을 삼킨다.

주주총회날. 발언을 준비하는 제이슨의 옆에 선 기철. 곳곳에 잠입한 요원들과 눈이 마주치는 기철. 모처에서 지휘하는 이검사의 지시대로 제이슨의 자백을 끌어내려 애쓰는데... 가까스로 멘트를 받아내는 기철. 단상에 오르는 제이슨. 합병을 반대하는 연설을 시작하는데...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 주주들. 신성그룹의 백기사로 등장한 태백그룹이 찬성표를 던지자 전세가 역전되는 주총장. 이를 갈며 자리를 빠져나가는 제이슨 앞에 나타나는 이검사. 영장을 내보이며 제이슨을 긴급체포 한다. 굳어버린 기철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 제이슨. 서로를 멍하니 쳐다보는 두 사람.

대형 로펌에 취업한 기철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안락한 삶을 누리지만 가슴 한 구석에 돌덩이를 엮고 살아간다. 신성그룹의 합병이 성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구속 기소로 풀려난 제이슨은 조용히 재기를 다짐하며 물밀작업에 열중한다.

매스컴에 특종으로 터지는 신성그룹의 분식회계 사건! 신성물산 주가가 폭락하며 바닥을 치며 회장 소환까지 임박하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다시 지분을 사들이는 제이슨. 공식적으로 경영참여를 선언하며 사외이사 선임과 주식배당을 요구하는데... 신성그룹측 로펌은 골든 스톤 출신의 기철을 변호사로 선임하며 방어에 나서게 되고... 파트너에서 적으로 다시 조우하게 되는 두 사람.

제이슨의 공격 전략을 정확히 꿰고 있는 기철은 사전에 방어막을 펼치며 완벽한 수비에 나서지만 일은 일파만파로 커져만 간다. 신성증권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연이어 터지는 비리들! 그동안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한성은행이 타겟이다! 불량채권이 동시에 쏟아지며 파산 직전에 몰리는 한성은행. 뱅크런이 벌어지며 금융권의 연쇄부도를 걱정한 당국이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하는데...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는 제이슨. 한성은행 매수에 모든 전력을 쏟으며 용단포화를 가하는데... 갑작스런 합병에 다급해지는 모피아와 이현주. 한성은행이 넘어가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비자금과 로비자금이 모두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광폭행보를 하는 이현주. 정치권을 압박해 금산분리 폐지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대기업이 은행을 사들여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 낸다.

한성은행을 둘러싼 신성그룹과 골든스톤의 인수전이 펼쳐지고! 판도라의 상자를 두고 제이슨과 기철이 정면 승부를 벌이는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전개되는 급박한 상황들. 결정적인 순간에 본 모습을 드러내는 기철. 이 모든 건 한성은행 인수를 위한 제이슨과 기철의 빅픽처였던 것! 과거, 언더커버임을 털어놓는 기철에게 더 큰 작전을 제안하는 제이슨의 눈빛.

과거 둘만의 비밀스런 작전이 차르르 펼쳐진다. 제이슨과 약속된 플레이를 펼치는 기철. 로펌에서 은밀히 분식회계 증거를 모으는 기철. 한성은행 불량 채권을 조용히 사 모으는 제이슨. **제이슨은 법을 바꾸게 했고, 결국 한성은행을 합병할 수 있었다!**

한편, 제이슨 부친의 자살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해온 기철. 진실을 알고 있는 직원의 내부고발을 이끌어 내고!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는 과거 대한은행 매각사건의 진실 공방전.

다급해진 모피아와 이현주는 이강준 검사를 앞세워 갖은 비열한 방해를 해보지만... 이미 판세는 기운 상황. 결국 대한은행 매각에 대한 비리를 감추기 위해 이현주가 모든 총대를 메고 구속되고야 마는데... 결국 한성은행 매각은 없던 일이 되고, 정부는 공적자금으로 한성은행을 회생시켜 정부 소유로 한다. 신성그룹이 오랜 시간 공들였던 은행 소유가 물거품이 된 것.

골든스톤과 제이슨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신성그룹의 지분을 대량 소유한 그들은 경영권 참여와 주주 배당확대를 얻어낸다. 환호하는 소액주주 개미들.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소신을 하나 둘 발언하게 되고...

제이슨과 함께 버뮤다 섬으로 가는 기철. 부친의 복수를 한 소감을 묻는 기철. 이제 시작이라는 제이슨. 버뮤다에 있는 모피아들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기업사냥에 나서는 제이슨. 사냥꾼 자질이 있다며 나와 함께 하겠냐는 제이슨. 잠시 고민하다 해변가에서 손짓하는 아들 준혁에게 달려가는 기철. 아이들과 잘 어울려 노는 준혁을 보는 기철. 우리 아빠가 나쁜 놈들 때려잡았다며 자랑한다. 리조트에서 지갑을 슬쩍하는 도둑이 눈에 들어온다. 달려가 도둑의 팔을 꺾는 기철의 환한 얼굴에서.

Critical Hour

Alex KIM



Novelist and Screenplay writer. Published full-length novel <Mangwondong Brothers>, <The Romantic Rival>, and <Ghost Writers>. Wrote screenplays of <Heartbreak Hotel> and adapted <The Fortress>.

HISTORY

2009 Planning & Development Writer for CJ E&M Contents Development Team
2010 Screenplay Team for Director Yong-hwa Kim
2011 Screenplay Team for Director Je-gyu Kang
2013 Full-length Novel <Mangwondong Brothers>
2015 Screenplay of Feature Film <Double Agent>
2015 Full-length Novel <The Romantic Rival>
2017 Adapter of Feature Film <The Fortress>
2017 Full-length Novel <Ghost Writers>

AWARDS AND SELECTION

2011 Screenplay <Compatible> - Selected for Korean Film Council Support for 'Screenwriters Edition'
2012 Screenplay <The Fist of Gyeongseong> - Selected for Korean Film Council Planning & Development 1st and 2nd Support
2013 Full-length novel <Mangwondong Brothers> - Second Prize at The 9th World Literature Award
2017 Story <Police Line> - Bucheon Screenplay Showcase Selection
2017 Screenplay <Ghost Cop> - Selected for CJ Cultural Foundation/O'PEN Support

WORK

2015 Screenplay of Feature Film <Double Agent>
2017 Adapter of Feature Film <The Fortress>

Work Note

"Mr. Detective, I am a young offender. You know you can't arrest me." The detective told me that this made his blood boil, when heard by a seventh grader who committed worse crimes. I still cannot forget the detective's face – filled with rage. In addition, last year there was the 'Busan Middle School Student Assault' incident that impacted the society. A photo of a bloody student down on her knee was posted all over SNS. The perpetrator was also categorized as a young offender and was placed on probation.

A petition to tighten Juvenile Act was sent to the Blue House, and the public demanded harsh punishment. I give myself some thoughts. Can we blame the children for this? No. We shall blame the adults as well. I also blame the society that allowed this to happen. When I was young, there was a term 'kkakdugi' which meant marginalized kids. However, we still included them when playing games. Nowadays, kids bully other kids upfront. I was surprised when I first heard the word 'Hu-geo'. It is the abbreviation of 'Humansia Geoji (begger)' and refers to the children who live in the rental apartments. Another shocker was that these 'Hu-geo' kids were not allowed to play in the playgrounds of other apartment complex.

<Critical House> is actually a social conscience film that hold the elements as a cop film. A middle school in Gangnam. The only son of an entrepreneur is kidnapped. Gangnam Investigation team must save the boy within the critical hour. Female detective In-young Jang starts the investigation despite her difficulties as a single mother and being an outcast from the team. When she visits the entrepreneur's house, she is surprised to see the reaction of the missing boy's parents. In addition, the missing boy was also the victim of the school violence that happened two years ago. As In-young meets the obscure parents, the victims and people involved in the incident, she is abashed by man's inhumanity and injustice. Will In-young solve this case within the critical hour? This film is a story about In-young who is a struggling underdog and the 'critical hour' of Korea, where winners dominating the society.

Synopsis

In-young Jang (33, Female)

Gangnam Police Station Criminal Department Investigation Team. Single mother raising a 6 years old daughter. Recruited through special employment as an Olympic bronze medal winner for Judo. Solid build being 170 cm tall and weighs 62 kg. As she cried over injustice after having controversial judgements during the Olympics, she decides to become a police officer and contribute creating a just world. However, the reality is that she is bullied by her co-workers for being too stubborn and 'speaking with no filter.' The world exists with too many prejudice and obstacles for her to overcome. Yet, she will continue to engage in a fight with the world. Persistently.

Han-sol Kim (14, Male)

The only son of Chairman Kang from Handong Group. Chairman Kang is a cold-hearted and selfish entrepreneur, so he treats everything unimportant including his wife. Therefore, his son Han-sol, even at a young age, ignores and manipulates his friends. He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is good looking, has an IQ of 164 and is a genius that reads books on quantum physics in English. Of course, he is popular at school, but he is not interested in sharing his feelings. Rather, he likes to identify one's weakness and enjoys manipulating it. Whether it is his classmate, teacher, or his kidnapper.

Woo-seok Cho (37, Male)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kidnapping. Ex-police officer. When In-young started her career as a police officer, he gave her full material and emotional support as a superior and co-worker. Before In-young joined, he was the outcast in the homicide department. Feeling incompatible, he decides to transfer to the Juvenile Crime Department. Several years later, for some reason, he quits and becomes an alcoholic living in distress. After all, he ends up kidnapping Han-sol. As In-young faces Woo-seok again, she recalls the truth from the past along with Woo-seok's secret.

Critical Hour : It refers to the critical period in criminal investigation to save the victim in kidnapping or missing cases.

Prologue

Only his back exposed, the man opens the trunk. Inside the trunk. There lays a boy - mouth covered with tape and body all tied up. The boy is still as if he is dead. Then he slowly turns and give the man a strange look. The man takes the boy out of the trunk and drags him somewhere.

Critical Hour

18:05. Gangnam Police Station. Internal Investigation Room. Detective In-young Jang's (33) name is called. With shoulder length hair, In-young who looks like a little girl gives a statement. Across from her sits Detective Choi (38) who doesn't look quite happy. The Investigation Committee verifies and informs Detective Choi that someone touched In-young's breast during Judo practice. Detective Choi counter-argues that it could happened by accident. In-young insists the action was habitual. After all, Detective Choi was suspended with salary reduction. The investigation ends and as Detective Choi leaves, he bumps his shoulder on In-young implying she can't get away with this. In-young returns to the office. All her colleagues look at her with discontent. She completely ignores this and sits at her desk. She is surprised to see her desk is a complete mess. She is about to make a scene...she receives a call for a case. Everyone heads to the Chief's Office.

Sharp looking Detective Squad Chief (45) gives a briefing on the missing person case. The only son of Handong Group Chairman Hyeong-seok Kang (48). 7th grader Han-sol Kang (13) has not returned home from school. According to Chairman Kang's wife Chae-kyeong Hong (36), she reported that one of her son's classmate last saw Han-sol around 1 pm. There is only a 5-hour gap, however, this is unacceptable for Han-sol. Right after school, he is driven straight to the Academy and wherever he goes he is accompanied by two bodyguards. Now the two bodyguards are nowhere to be found. Relying on the fact that the missing person is the only son of Handong Group Chairman, the Detective Squad Chief regards this case as kidnapping. The investigation on missing now turns into the investigation on abduction. Five hours past the critical hour. The investigation starts.

The Detective Squad Chief divided the roles among the team. However, no one wants work with In-young. After all, the Detective Squad Chief assigned In-young to investigate Chairman Kang's residence alone. As the rest of the team leaves, Detective Squad Chief calls In-young. The homicide department needs to protect each other. A team member who is not able to do that is meaningless. The Detective Squad Chief reprimanded In-young. In-young reluctantly agreed and left the office.

19:24. Cheongdam-dong. A high-end villa. In-young is quite surprised at the floor space of 120

pyeong and the luxurious interior. The feeling of anxiety and uneasiness lurked inside the living room as they heard nothing despite being a kidnapping case. Han-sol's mother Chae-kyeong forced herself to stay calm as she greets In-young. When In-young asked about Chairman Kang's whereabouts, she said that he was still at work because of an important meeting. But his son is kidnapped...In-young finds this strange but she lets it go and enters Han-sol's room. The room is clean and neat. Similar with a clergyman's room, there was only the Bible on the desk. Not a single action figure. On the bookshelf, it was filled with textbooks, reference books, books on psychology, philosophy, humanities, and quantum physics. There were even original Latin books...Books adults or high-educated people read. When opened and looked carefully, the handwriting on the reference books and quantum physics books were identical. 7th grader Han-sol Kang is a genius.

In-young now questions Chae-kyeong about Han-sol. Chae-kyeong responded that Chairman Kang and Han-sol are both geniuses and complained that a simple-minded person like her could never understand them. In-young asks if she knows any questionable characters. Chae-kyeong can't believe In-young asked this question and gives her a dirty look. Chairman Kang had too many enemy's and feared that they would harm his son so they hired two bodyguards. Chae-kyeong started sobbing. As In-young consoles Chae-kyeong, she spots Han-sol's photo wearing a yellow uniform. It is the uniform of a prestigious private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Namsan. However, the yearbook In-young saw in Han-sol's room was from a private elementary school in Gangnam. In-young asked Chae-kyeong and she mumbles that kids move schools all the time. In-young caught Chae-kyeong's hypersensitive reaction and continues to ask more questions. Chae-kyeong takes a deep breath and starts talking. All the classmates, including the children's parents was jealous of Han-sol. It was like a witch hunt. According to Chae-kyeong, 2 years ago, Han-sol was singled out as one of the victims of the school violence. This led to many misunderstandings and eventually, Han-sol had to leave the school. Feeling confident, In-young leaves Chairman Kang's residence.

Meanwhile, Chairman Kang is finished with the meeting and having a private conversation with the detectives. Chairman Kang finds this kidnapping ridiculous. He warns that he will sue the police if you leak this information top the press. The detectives are baffled by the fact that Chairman Kang is more interested in maintaining his image than finding his son. Chairman Kang thinks the detectives are incompetent and adds... Our son is not the type to be kidnapped. He will return home on his own so don't waste your manpower.

22:35. Prestigious Elementary School in Gangbuk. In-young confirmed details about the incident from a teacher on night duty. It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Chae-kyeong had said. Han-sol was not just involved in the incident but also instigated the school violence. He repeatedly harassed his classmate Do-yun for 2 years. As a result, Do-yun ran away from home and

this became a problem. However, no one was suspended and the police closed the case by transferring Han-sol and the involved students to a different school. Probably Handong already took care of the press because there was not a single article about the incident. In-young asks the teacher for Do-yun's address as she wants to go meet him. The teacher hesitates. In-young insists and the teacher reluctantly gives her the address. Do-yun...took his life last year. Surprised In-young hurries to contact the head office and requests the parents to identify the body.

23:50. Bundang. In-young visits Do-yun's parents' house for identification. A messy looking middle age woman walks out. She refuses to talk but In-young manages to persuade her to let her into the house. At first, the woman didn't say much but then she blurted out that her son's suicide was all because of Han-sol Kang. Even after Han-sol transferred to another school, he continued to harass Do-yun. Han-sol cleverly harassed Do-yun without his parents knowing. Do-yun couldn't take it anymore and took his life. On top of that, Han-sol's parents were able to control the press and even the school gave them a lot of pressure. In-young asks about Do-yun's father's whereabouts. The woman guarantees that the father has nothing to do with this. She is mad because Do-yun's father didn't do anything when he met up with Chairman Kang. Then where is Do-yun's father now? The woman said they have separated after their son's death. Then, she requests In-young to leave. In-young returns to Seoul and reports this to the Detective Squad Chief.

24:41. The detectives are back at the station and having a meeting. 1) Still no contact from Han-sol. 2) If the kidnappers wanted money, they would have already contacted. 3) Bearing a grudge, the father of Do-yun, Tae-wook Chung (47)'s whereabouts is unsure. 4) It forms a conclusion to must find Tae-wook Chung. The police is able to detect his location using cell phone location tracking. Gangneung. Tae-wook took Han-sol to Gangneung? It's not that impossible. Moreover, Tae-wook Chung's hometown is Gangneung. It is possible to go somewhere one is familiar with. Filled with confidence, Detective Squad Chief takes the team and heads to Gangneung. In-young volunteers to support but her request is denied. Highest seniority Detective Kim and Detective Chang teases In-young that she needs to go home and take care of her kindergartener. In-young stares back at them. They continue to mock her.

01:30. In-young returns home. A divorcee with a 6 years old daughter. Her mother is helping her take care of her daughter. She criticizes In-young for coming home late and tells her to quit her job. In-young brushes off her mother and goes to check on her daughter. She wakes up from her sleep and starts talking about her day. She told a boy that she had a police officer mom and when he didn't believe her, she hit him. Then the boy told her that he would tell his dad. He added that even female police officers can't win his dad who is a man. The boy is so stupid. Mother is much stronger than men. In-young praises her daughter for being smart. The daughter asks her

mother to not take the boy away even if his dad contacts you. The boy is still her classmate. The daughter's plea made In-young smile. Then In-young suddenly thought of something. She leaves her daughter with her mother and walks out.

02:27. In-young arrives at Han-sol's house where the police officers and bodyguards are on standby. Chairman Kang and Chae-kyeong is sitting in the living room with worried looks. As soon as In-young enters the room, they ask about the progress of the investigation. In-young asks back if they knew anything about the kid who committed suicide. Chairman Kang and Chae-kyeong remain quiet. In-young informs them her team is dispatched in Gangneung because the dead boy's father was there. Then she asks if they have ever contacted the dead boy's father. Chairman Kang tells In-young that the dead boy's father is not the suspect. He thinks the police are foolish and scoffs at them. Then he asks Chae-kyeong to leave the room and talks to In-young privately. He told In-young that he gave money to Do-yun's father couple of times. Moreover, he can ask for money anytime so for what reason would be kidnap Han-sol? In-young is speechless and makes a call to the Detective Squad Chief.

Gangneung. As the Detective Squad Chief and his team raids Tae-wook Chung's studio, he discover Tae-wook stuck in the corner looking like a wreck. It was a complete letdown. He was nowhere close to kidnapping anyone. Then the Detective Squad Chief's phone rings. In-young tells him about Chairman Kang's statement. Detective Squad Chief is annoyed and hangs up. Then he kicks the two detectives who first interviewed Chairman Kang on the calf.

Han-sol's house. In-young asks Chairman Kang about the incident that happened two years ago but he cleverly avoids the question and rather threatens In-young. Right then, two men enters the house. Because the police are so incompetent, Chairman Kang hired private investigators. In-young leaves the house feeling humiliated. In-young decides to find out about the incident herself and heads to Seoul Namdaemun Police Station which was then in charge of the case.

04:15. Namdaemun Police Station. With some help, In-young is able to gain access to the incident report. Han-sol certainly took the lead and he was able to manipulate the mental state of not only the victims but also the rest of the perpetrators. The report is well-organized. As In-young checks who completed the report, she is in shock. Juvenile Crime Department Lieutenant Woo-seok Cho (39). Superior Cho... He gave her full material and emotional support when In-young first joined the team. When asked about Lieutenant Cho, she finds out that he left the police force about a year ago. In-young was in doubt so she inquired in great detail. She also finds out that Lieutenant Cho was in great stress with the school violence incident and the suicide of the student. He is a complete wreck ever since he quit. In-young decides to find about Lieutenant Cho's whereabouts.

07:05. The morning is bright but it is still dark somewhere. Han-sol is tied on the chair and

Detective Cho asks questions like an interrogation. He confirms every single detail of what Han-sol have done in the past. Han-sol disagrees and shakes his head. As Detective Cho yelled at Han-sol to tell him the truth, Han-sol scoffed and said he did more than Cho mentioned and a lot more students were involved. Detective Cho trembled and punched Han-sol. Despite all the beating, Han-sol seems undaunted. Rather, Detective Cho looks agitated and impatient and kidnapped Han-sol looks relaxed.

In-young recalls the time spent with Detective Cho. He was the only colleague that approached In-young who was treated with discrimination being a woman and joining the team through special employment. Someone mentioned that the first one who approaches the new recruit was the outcast in the team. Detective Cho had a small frame and poor martial arts skills to be in the homicide department. In-young remembers Cho giving a shy smile to any questions from the Detective Squad Chief and was always being scolded for it. Even new recruit In-young felt that Cho didn't belong in the homicide department. Eventually, Detective Cho transferred to the Juvenile Crime Department. In-young and Cho's relationship stopped there but In-young was always grateful to him. But now he could be the suspect of this abduction case? In-young reports this to Detective Squad Chief. After being disappointed in Gangneung, Detective Squad Chief decided to take In-young's advice and direct all his energy in searching for Detective Cho. But where should he start? In-young already went to the Namdaemun Police Station. Detective Squad Chief is agitated. He orders the team to follow In-young.

12:35. In-young visits Detective Cho's ex-colleague in the homicide department. The ex-colleague makes a sarcastic comment that Cho was bound to cause trouble. In-young asks if he has any idea where Cho could be hiding. The ex-colleague provides information about some cases but it's not much of a help. Frustrated In-young continues to ask more questions, but the ex-colleague changes the subject and starts mocking her for being a divorcee. In-young is completely thrown off. Then the ex-colleague adds that In-young shouldn't be asking about Cho to him. He asks if In-young ever had a relationship with Cho. In-young is enraged. Then, she remembers something. The ex-colleague expresses his sadness that In-young always hung out with Cho and asks In-young to hang out with him. As the ex-colleague puts his arm around In-young's shoulder, In-young knocked him with a Judo technique in a blink. In-young then yells to the suffering ex-colleague that his is so stupid, no wonder his investigations were horrible. In-young gets into the car and calls Detective Squad Chief. She tell the Chief that Detective Cho's possible hideout is a used bookstore in Dongincheon. In-young also mentions that in the past she and Cho once hid an informant there.

13:47. Detective Cho. Replays the recording of Han-sol's statement. Han-sol scoffs. He tells Cho that this is all useless. This lack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what Cho is doing is child abuse.

Cho stares at Han-sol filled with fury. Cho tells Han-sol that this won't be a child abuse because he will kill him. Cho adds that he really doesn't care. Han-sol asks why? Cho gives a sigh and talks calmly. You were the one who told me that I couldn't arrest you because you were a young offender. I get it, it can't be helped by law. However, with this recording, I will be able to show the world how bad of a person you are. So, I don't mind breaking the law at all. Han-sol continues to sneer and Cho watches this silently. Han-sol speaks back. Did my words hurt your feelings? But it's a fact that I'm still a young offender. You're not even Do-yun's parents and you know you're overreacting. You didn't have feelings for Do-yun did you? Did you like him? Cho cannot keep a straight face.

14:03. In-young approaches Dongincheon. She recalls the time when she and Detective Cho spent the night inside the basement of the used bookstore with an informant. They needed to protect him and while she was dozing off, she eavesdropped the conversation between Detective Cho and the informant. The next day, after turning over the informant, Cho told In-young. Please do not tell anyone about this used bookstore. In-young promised to not tell anyone. However, now this is a vital clue to the case. In-young parks across the used bookstore. In-young carefully walks over to the closed bookstore and looks inside. The door is shut but there are traces of human activity. In-young is confident that Cho is here. Right then, Detective Squad Chief, her colleagues and the special task force arrives to the scene. Detective Squad Chief commands In-young who remembers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basement to take lead and enters the bookstore. In-young and the detectives carefully head toward the basement.

14:13. Detective Cho senses someone's presence. He looks over at Han-sol with tension. Han-sol provokes him to kill him fast or he will be in trouble. Cho flew into a fit of rage and grabs Han-sol and puts a knife in his throat. Stop! In-young and the detectives appear in front of Cho. Detective Squad Chief aims a gun toward him and tells him that everything is over and let go of the kid. Cho's eyes started shaking and didn't know what to do. Then, he meets eyes with In-young. In-young tells Cho to give up. Right then, Han-sol bites Cho's finger. Han-sol tries to run away and Cho grabs him again. Then he puts the knife in his throat...Bang! The bullet that Detective Squad Chief shot penetrates the top of Cho's head. The kidnapper dies on scene and the hostage is rescued. The case is closed after 25 hours since the missing. Mission is completed within the critical hour.

After Hour

The case is concluded as an alcoholic ex-detective came across this wealthy kid during his previous investigations and decided to kidnap him to get some money. The press praises the work of the police for rescuing the boy within critical hour and the team received an award. In

addition, Han-sol becomes the subject of the conversation and obtains everyone's sympathy with his charming look and calm interviews. Handong Group probably already worked with the press because nothing was mentioned about the ex-detective being involved in the school violence. The prosecution collected all the evidence on scene. In-young holds onto this suspicious feeling and attends Cho's funeral.

At the funeral, the previous informant from the used bookstore is here. In-young gets to talk to him. He tells In-young that she treated Cho and himself like dirt because they were gay. In-young is confused and denies everything. However, In-young herself is unsure. All she knew was Judo and being a police officer was her first career. It was her first time meeting a gay person and she must have had prejudice. In-young remembers being uncomfortable around Cho after finding out the truth. In-young herself discriminated Cho. In-young feels terrible and doesn't know what to do.

In-young returns home. She puts her daughter to sleep and looks back at the abduction case. Cho has no reason to kidnap Han-sol just for money. Then what is his real motive? Does he feel responsible for Do-yun's death? What is the rage that he had to do something to Han-sol? Han-sol must be extremely evil to make Cho go crazy like that. In-young decides to meet Han-sol herself. However, it is not easy with extra security. Her colleagues all ask her to stop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The team received an award and don't ruin it. Detective Squad Chief warns her not to put personal feelings such as retaliation into the investigation. Detective Squad Chief seems to be cool-headed and take a neutral attitude but always talks in principle to hold In-young back. In-young cares less about principles. Despite all hardships, In-young is determined to proceed her plan.

In-young needs more information. She starts investigating Han-sol's current middle school. She finds out that Han-sol is still taking lead in encouraging students to bully each other. Moreover, Han-sol harasses those who disobey him. The most effected is Su-min (13). Su-min is a female student with strong ambitions. When she found out about Han-sol's harassments, she fought against it. However, everyone including the teachers thought she was making a big deal out of it and made her into an outcast. In addition, every day Han-sol is always seeking for an opportunity to punish Su-min. Meticulous and vicious, Han-sol knew how to manipulate the entire class with no one resisting. It looked like he was trying to redeem himself.

Distressed Su-min meets In-young and tells her everything. In-young tries to comfort Su-min. In-young is determined. Would In-young be able to protect this victim from Han-sol? Would In-young be able to reveal all previous crimes by Han-sol and punish him? This war is not just between In-young and Han-sol. It is a war with the surrounding world. In other words, the 'critical hour' of In-young and the rest of us continues.

Exorcist Swindlers

Kyounggeun MIN



Within the parameters of a genre film, Min tries to bring excitement using familiar themes with slight variations.

HISTORY

BA in Theater and Film at Hanyang University

7th graduating class of Creative Writing Academy at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Completed Producer Program at Movie Workers' Union Skillset

Completed Creative Talent Program at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WARDS AND SELECTION

2015 <Doggaebi Buster Iri> - Participation Award at the Gyeongsangbuk-do Screenplay Competition

2017 <Simsheongjeon> -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Showcase Selection

WORK

2015 <Untouchable Lawment> script, screenplay

2017 <Duel:The Final Round> screenpla

Work Note

Exorcist Swindlers is a cheerful buddy play where exorcists and ghosts collude to trick others. It is also a satire on the Korean society which have blind faith and easily swayed by shamans and authorities who are driven by greed that they even need help from a ghost. Wanted to invite the people's attention to show the reality that ghosts are scarier than humans and bring great excitement when they show retaliation from swindling acts.

Synopsis

Kangju (Male, Mid 40s)

Exorcist Swindler who colludes with ghosts.

"I make money and you vent one's spite! Such a beautiful act..."

All these years, he thought his ability to see ghosts was a curse. When he was on the edge because of money, he didn't know this ability would save him. His new business model is Exorcist Swindling colluded with ghosts.

Gucheon (Male, Late 20s)

A pretty boy ghost who is in deep sorrow because of the partnership funds with an exorcist.

"I lived a good life but everyone took advantage of me. This world..."

Died at an early age due to repressed anger after being conned by his best friend. Blaming his innocent soul, this young ghost wanders around this world. Then one day, he receives an absurd business proposition of exorcist swindling...Since he doesn't want the rest of his family to suffer from money, he decides to accept this nonsense offer.

Congressman Kang (Male, Early 50s)

The devil of greed who purchases evil spirits to use it in power.

“In this world, with money, I can make a ghost lick my toe.”

A leading candidate to be the next mayor. He is a typical example of a deep-rooted evil who is good at deceiving the people and pursue his own interests. In order to hog the rural land buried with rare earth resources, he uses all sorts of dirty tricks. He kicks out the local residents and purchases the land at a dirt cheap price. Then one day, some unknown con man interferes...

Father Cha (Male, Early 40s)

An ex-Catholic Priest who helps hideous crimes of the authorities using evil spirits.

“Koreans go crazy when the shaman speaks.”

In politics or businesses, you can do anything with money. A shady fixer worse than the evil spirit. Once an honest and trustworthy man of religion but once he gained the ability to see ghosts, he becomes the slave to greed. Then he is confronted by Kangju who holds similar power like himself.

Ghosts Equals Money!

Kangju has the ability to see ghosts, but this doesn't help get on with his life. He ignores this talent and just like any other ordinary Korean fathers, he struggles for a living. Not only Kangju is suffering because he is working more than he can handle at this company that is about to go under, but also **Gucheon, a pretty boy bachelor ghost** who died in desperate for money following and whining around Kangju is killing him.

Then one day,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fled and the company went bankrupt. Now Kangju is left with no job. The loan he received to pay his family debt has mounted up due to high interest. Now Kangju is being threatened by the creditors. Far from preparing money for retirement, Kangju will end up leaving a lot of debt to his family. As the creditors tell Kangju to pay off the debt with his organs, he notices a little boy ghost on top of a creditor's head. Kangju lures the ghost with candy and the creditor is now free from his chronic disease. Therefore, the creditors give Kangju a grace period of one week to pay his payment. Right then, an innovative business idea comes across Kangju's mind. His ability to see ghosts, **a cursed ability for years, can be used in this exorcism business!**

However, Kangju has no experience in exorcism. He also has never seen an evil spirit nor knows how to expel them. Yet, he turns this into a new business idea and asks Gucheon to be his partner. **All Gucheon needs to do is to pretend to be an evil spirit and harass the clients. Then Kangju will act as an exorcist and expel Gucheon!** This was a perfect scheme. Kangju can make money and Gucheon can send his portion to his family so he can finally resolve his deep

sorrow and depart this life. Kangju and Gucheon shake hands to execute this win-win business.

As his last resort, would Kangju be able to succeed this unprecedented exorcist swindling business?

**Never seen unprecedented business collaboration between an exorcist and a ghost!
An exciting exorcist swindling colluding with the ghost is about to happen!**

Kangju hides the fact that he is fired from his wife and daughter and starts living with Gucheon to execute the new business plan. Select clients who are easily scared a Gucheon will conduct paranormal activities at the client's house a Kangju visits the client and performs exorcism Kangju and Gucheon starts advertising the business using this process. After numerous prank calls from elementary school kids, they finally find a client. However, the physical impact that ghosts can perform in this world is extremely insignificant so regardless of Gucheon's effort to scare the clients, most of them are busy living paycheck to paycheck and have no time to react to every phenomenon. As Kangju becomes desperate with money and working with timid Gucheon who is always by the book causes problem in their teamwork from the start. Kangju pesters Gucheon to possess him so **he can exhibit superhuman strength** in this world. Gucheon refuses to do this because **only those who eased the ghost's deep-rooted grudge** can order the ghost to possess oneself. When this new great business is about to go down, Kangju receives a call from his father who lives alone in the countryside. He tells Kangju that his neighbors are leaving home because their houses are possessed by ghosts. He asks Kangju if he knows any good shamans in Seoul. This felt like a ray of sunshine for Kangju. Instead of targeting the city people who are scared of Mondays more than ghosts, what if Kangju scams the country folks? Kangju tells his family that he is going on a business trip and heads to **'Horo Village'** – the town possessed by ghosts with Gucheon.

Horo Village is a long-awaited blue ocean for Kangju! The scared villagers react to Kangju's lame exorcism and his business thrives. However, like a village possessed by ghosts, lots of strange phenomena actually happens here and there. Then Kangju finds out through Gucheon that this ghost affair is **fake ghost show** run by the gangsters. They wanted the villagers to leave so **they can purchase the land dirt cheap**. When Kangju dug deeper into this new concept redevelopment project, he discovers that the purpose was not just to expand the gangster's power but to exclusively possess the valuable rare earth resources buried in the land. To protect these rare earth resources, Kangju exposes the gangster's fraud and kicks them out. The gangsters then send an SOS to **their sponsor, the person behind this entire scheme, Congressman Kang**.

Coming from a Chaebol family and the leading candidate to be the next major, Congressman Kang hires a shady exorcist **Father Cha**. Notorious in the underground world, Father Cha uses th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ghosts just like Kangju. He always accompanies with an evil spirit and helps businesses or politicians achieve their goal by any means necessary. His level of greed is far greater than Kangju and **a much vicious Exorcist Swindler!** Moreover, **he has the power to infuse evil spirits to others.** He made the villagers be possessed by the evil spirits and commit horrifying terrorist acts in Horo Village. Facing a real evil spirit for the first time, Kangju is powerless and completely defeated. Eventually, Father Cha reveals Kangju's identity as a swindler and kicks him out of Horo Village. Father Cha also sues him for fraud and deception. As a result, Kangju's wife and daughter learns the entire truth about Kangju. To make matters worse, everyone leaves Horo Village with a cheap price because of the ghosts. **Horo Village is now under Congressman Kang's control.** In addition, on the news, they report that the last living seniors of Horo Village had died from an accident. Now the news focuses on the problems of seniors living in solitude. Kangju realizes that this is Congressman Kang's main campaign pledges. He not only wants to exclusively possess the rare earth resources but also use media to create a beneficial image of his campaign pledges. Now Congressman Kang is trying to cover the murder of the last resident of Horo Village Kangju's father's as suicide. He will continue persuade the public using the issue of senior suicide making it his grand finale. At the same time, everyone has left the village and is completely empty. Then, Kangju learns that his wife and daughter went to visit his father to check on him. Despite Gucheon's objection, Kangju hurries to Horo Village to save his family.

Would Kangju hire an evil spirit to confront Congressman Kang who murders people without hesitation and save his family?

Exorcist Swindlers, the real exorcism is about to happen!

When arrived at Horo Village, he finds his wife and daughter trying to stop his father who is already possessed and trying to kill himself. Kangju, Gucheon, and all the senior ghosts who died under a false accusation came together and barely managed to stop Kangju's father. Then, Father Cha infuses the evil spirit into Kangju's daughter and orders her to kill Kangju. Kangju couldn't fight her daughter so he earnestly pleas to the evil spirit to save his daughter. Thanks to Kangju's heartfelt appeal the evil spirit shares its painful story with them. Kangju finally realizes that he was to use his ability to see ghosts **to listen to their stories and comfort them.** As Kangju comforts the evil spirit and resolved its deep sorrow, **he also gained the power to infuse ghosts to others!**

Right then, Father Cha takes the now-nice evil spirit and infuses it into his body and attacks with terrifying superhuman strength. Kangju delivers his never spoken deep and honest thoughts to Gucheon and successes in infusing Gucheon into his body.

Two teams with one body each confront face to face - Kangju-Gucheon vs Father Cha-Evil Spirit! First time being possessed Kangju-Gucheon was no match to Father Cha and its superhuman strength. Then whenever Congressman Kang and the gangsters threaten Kangju's family and his father, Kangju tries to attack in different ways such as infusing Gucheon to the each of the gangsters. Finally, Kangju and Gucheon are in perfect sync and defeats Father Cha and releases the evil spirit. Quickly, Kangju infuses Gucheon to Father Cha and makes beat himself and confess his sins. He also safely saves his daughter. Kangju also infuses Gucheon to Congressman Kang and makes him confess his sins on live TV at the National Assembly. He also produces **a one-man show** and makes Congressman Kang take his entire corrupted family out on the streets and reveal all their crimes. As all the truth is revealed, Congressman Kang and his family are finally arrested.

Gucheon resolves his deep sorrow but because of his crime of interfering this world, his period of wandering around this world is extended indefinitely. However, if Gucheon continues to help those who are falsely charged and gain virtue, he will be able to go to heaven. So, Kangju and Gucheon stays next to each other they resolve the ghosts'deep sorrows with honest communication. Not only they allow them to go to heaven but also punishes the villains and returns the reasonable compensation to the victim's family. They become the never been existed Exorcist Swindlers who **gets rid of the villains worse than the evil spirits.**

The END.

Driver

Seunghyun LEE



Born in Seoul, 1977

Graduated Seoul Yeoido High School

Dropped out of Dongguk University, Hindu Philosophy Studies

HISTORY

- 2008 4th graduating class of Heon-su Park Advanced Level Screenplay Writing at Simsan School
- 2008 Event Manager at The 3rd International College Peace Film Festival (ICPFF)
- 2011 Centum Interactive Contents Planning Team at Busan Studio, Nexon Corporation
- 2011 Dae-heon Yoo Class / Genre Class (Melodrama, Thriller, Romantic Comedy) at Simsan School
- 2012 7th graduating class of Production Program at Movie Workers' Union Skillset / Short Film 'I Love You' Producer

AWARDS AND SELECTION

- 2013 March Recommendation <Flower Town> - Korea Film Council Scenario Market 1st Quarter
- 2013 June Recommendation <The Scent of an Affair> - Korea Film Council Scenario Market 2st Quarter
- 2017 8th graduation class of CJ Story Up / 1st O'PEN Movie <The Operator>

WORK

- 2014 Published NAVER Web Fiction Series <My First Lady>
- 2014 Adaptation/Production KBS Drama Special <Repulsive Love>
- 2015 Screenplay of Feature Film <Nothing Happened>
- 2016 Chinese Screenplay of Feature Film <The Phone>, Huace Union
- 2017 <Feed Your Heart> Spring Edition, Total of 9 Essays
- 2018 Screenplay / Director of Short Film <The Operator>

Work Note

His job is to drive a 1.5 ton refrigerator truck and deliver vegetables to restaurants. His real job is to dispose of dead bodies. At the last warehouse on his delivery route, he sometimes finds a large sack. He takes care of it without asking whose body is inside, or why it is there. And one day, He finds his missing wife inside the sack. He asks why she left, and what happened to her since then, but the dead tell no tales. Here is a man who lost his wife from a misunderstanding. This is a story of him finding redemption through solving the mystery of his wife's death, long past the statue of limitations, and understanding who she truly was.

Synopsis

Song Yun-mu (42)

In his youth, he was a 'scumbag' who served a man named Kim Pil. Upon meeting Sun-yeong, he decides to spend the rest of his life in seclusion to keep her alive. She disappears, their daughter gone with her -- until one day, Sun-yeong returns by herself. Now, Yun-mu is resolved to avenge Sun-yeong and his daughter by ending his seclusion and stepping into the world.

Ko Seon-yeong (34)

Her father was the owner of a mid-sized firm, and she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er mouth. While she is in graduate school studying music, however, misfortune strikes her entire family. Her life too is endangered, and she knows that she will never get her old life back. She decides to live from then on as Yun-mu's woman, but her attempt at making him into a better man fails and her second life brings her despair. She tries once again to start anew for her daughter's sake, but only in vain.

Choi Yun-jeong (38)

A vicious woman who uses "tools". There are two kinds of people in her world: her family, and "tools". She supports her younger brother and sister, who go to medical school and music school, respectively. For the good of the family, there is no mercy for the "tools".

Kim Pil (44)

"Think" is his favorite word, but there are no ethics in his thinking. Comparable to a shrewd single cell organism that seeks to get bigger by merging itself with other cells. Everyone around him, including his boss who took Pil under his wing, is only food for his ever-growing empire.

Song Seon-ju (6)

The daughter of Yun-mu and Seon-yeong. She might have had a difficult life had she taken after her father, but, as genetics dictate, she inherited her mother's intelligence. She is smart and innocent. And she is in danger.

In the dead of night, Song Yun-mu(42) drives his refrigerator truck in an empty road of downtown Ulsan. Dangling from the rear-view mirror is the picture of Go Seon-yeong(34) and his daughter Seon-ju(6). Yun-mu's job is to go to the agro-fishery market, where he buys vegetables from their auction between 7 to 9 pm, and sell them to local restaurants. "Hong-ga-ne", a large meat soup restaurant, is his last destination. Once or twice a month, he receives a text from a man named "Manager Kim", whom he has never met. "It's in the warehouse," it reads. Every time he receives such a message, he finds a sack in the corner of the warehouse, which he loads onto his truck after selling all his vegetables. He drives to a small mountain where he already has a hole dug up, and, after a small ritual for the dead, buries the sack. He then goes to a different mountain, digs up another hole, and hides it under a wooden plank. A precise and repetitive routine. The one rule he has is to never open the sack and see the corpse's face.

After sleeping in, Yun-mu looks for the next dig-up site in various mountains, away from the crowds, all the while alleviating his loneliness and the sense of loss by drinking rice wine from the bottle. Once his search is over, he calls an orphanage to check if his daughter Seon-ju is there; his wife, who disappeared three years ago, might have given her up there. But the voice on the phone says there is no six-year-old girl called Seon-ju.

[Past]

6 years ago, Seon-yeong(28) was the daughter of a mid-sized firm's owner, and was studying piano in graduate school. Aside from the fact that her mother passed when she was little, her life lacked nothing. But one day her father's business failed and she found herself in the streets overnight. Her father and older brother were gone, and she got kidnapped after following a man who said

her father was looking for her. She ended up tied to a dirty operation table. The kidnapper was Song Yun-mu. He thought that his boss was being unfair, and that she was too beautiful to have her organs removed. His boss, Kim Pill (38), said:

"Have I been too nice to you for knowing how to fight? Come to your senses. How much do you think you'll make by whoring her out? 50, 60 million won a year? Are you going to be the pimp? You cunt! Don't you know I have bad temper?"

Yun-mu was left alone with her. She pleaded him, who was drunk and sympathetic, to take her away. She told him she was forever doomed to be a runaway, and would marry him if he protected her. Yun-mu used to be a taekwondo prodigy, but ended up on the streets because of poverty. She saw right away that he was a good man at heart, despite his present deeds. But his answer was a no.

"I don't trust women," he said, and groped her. The operator entered the room and he turned away. The operator was only concerned with anaesthesia, like a robot. Tied to the table and waiting for her death, she stared at Yun-mu. He tried to avoid her gaze in vain; and just as she was about to be knocked unconscious, he beat up the operator, took her by the hand and escaped the basement. Together, they travelled around the country in search of a safe haven.

[Present]

In the dead of night, Song Yun-mu(42) drives his refrigerator truck in an empty road of downtown Ulsan. Manager Kim has messaged him, and there will invariably be a sack in Hong-ga-ne. What he finds instead is a big bag with its zipper slightly open. As he moves the bag, his eyes catch a flash of light inside, but he does not look. Right before the burial, he drops the bag on the ground, whereupon the zipper opens further and a hand escapes. As he puts it back inside, he sees a ring on the pale finger. The flash of light before was coming from the ring, which is the same ring he gave Seon-yeong six years ago. Yun-mu breaks his own rules and unzips the bag with trembling hands. He gathers what little courage he has, takes a deep breath, and looks at the woman's face. Jesus Christ! It is the face of the Go Seon-yeong, who left him three years ago with his daughter Seon-ju.

Yunmu breaks down in sobs. He can't even call the police, because of all the crimes he has committed. He loads her body back on the truck. For a while he is too shocked to do anything, but he soon buries her body after a proper ritual. "I will be back with Seon-ju." To find his daughter, he must look into his wife's death. He sends his first reply to Manager Kim. "There is a problem. I need to see you ASAP." There is no reply for a whole day. Yun-mu withdraws some money from his bank account and considers squandering it away on drinks, but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stops himself and thinks things over. "What happened in the last three years? Where is Seon-ju?"

As he ponders these questions, Manager Kim messages him and asks what is wrong.

[Past]

A small fishing town near Ulsan. Yun-mu and Seon-yeong started a family and had a child. His boss and Kim Pil did not go after them, since there were other affairs that required their attention. Yun-mu worked for a small fishing boat, and the couple was happy for a while. But her beauty soon caused trouble. Yun-mu started to be suspicious of her after each fishing trip; he was reacting to the jokes that villagers made about her beauty. Yun-mu's childhood was not as wholesome as his wife's. His mother left the family for a man, and he voluntarily went to an orphanage to protect himself from his alcoholic father. Naturally, Yun-mu and Seon-yeong were polar opposites of each other. But Seon-yeong, with her wisdom and cheery nature, assured him. When his extreme anxiety drove him on the verge of domestic violence, she held him instead of fighting back, and did her best to assure him. Her constant effort calmed him down and earned her his trust.

Seon-yeong believed he eventually had to start his own business for their daughter's sake. A car washing business became available, and she wanted her husband to learn the skills now so he could buy the business on a loan. Seon-yeong always strived for a better future; Yun-mu took this to mean she was not satisfied with the present, and was nostalgic about the glories of her past, all the while accusing her of being tired of their marriage. They began to argue more often, where Yun-mu, out of defeatism and complacency, would yell at her for chasing after fantasies.

[Present]

In a warehouse near a factory, Manager Kim and his people show up. Yun-mu tells him that the body is gone. Enraged, Manager Kim makes phone calls. Hong-ga-ne says that they called the police because the CCTV is broken; it is Yun-mu's doing, who knows the restaurant like the back of his hand. Manager Kim tells Yun-mu to go home for now and disappears. He is not suspicious of Yun-mu since there has not been a problem for the last 3 years, and Yun-mu has no reason to steal the corpse. Yun-mu follows Manager Kim and waits for the right moment. Kim is finally alone in some alleyway. Yun-mu uses taekwondo techniques and what he remembers from the backstreets of his childhood, kills Kim easily, and extracts the numbers he dialled at the warehouse.

[Past]

Seon-yeong showed Yun-mu how much she had saved so far, but Yun-mu was too cynical to be enthusiastic about it, which disappointed her. Yun-mu's complacency and self-victimizing attitude was beyond help. Seon-yeong did not give up and contacted her relatives in Seoul, thinking the future of Seon-ju and herself should not be confined by this small fishing village. She did it because she wanted to show Yun-mu that there was more to life than he knew, not because she

did not love him anymore, but because she was understanding enough to see that Yun-mu's reaction was natural for someone who grew up in poverty.

One day, her father visited her after hearing about her new life. He told her that he was secretly preparing for a new business venture with her brother. He consoled and encouraged her to wait just a little more. She did not tell him about her daughter or husband. When he left, she tried to convince Yun-mu to start a new life with her savings, even though it was now too late to buy the car washing business. But Yun-mu yelled, "You're always looking above! You miss your old life, don't you!" and went out to drink. It was then that she decided to leave with her three-year-old daughter, start a new life somewhere else, and come back later for her husband.

Seon-yeong left the village with her daughter and joined her father's business. She told him that Yun-mu joined a deep-sea fishing vessel, and she would go back when he returned in a year. But her father and brother's plans to buy a small dinnerware factory went awry as they got swindled. To make matters worse, the swindlers contacted their old loan sharks and the family had to flee in a hurry. Seon-yeong ended up giving them her savings before parting. She rented a small place, worked herself to the bone, and saved money. Out of all the odd jobs she did, the most lucrative was the pianist gig at a stand bar. But it also brought misfortune. The owner of the bar drugged her drink to rape her. She regained consciousness at the last moment and barely escaped, but ended up in the hands of a pimp near Jinju Industrial Complex and met Choi Yun-yeong, who saw the girls as nothing more than "tools".

Choi Yun-yeong (based on a real person) was notorious for trapping girls by doing whatever it took to mooch off them, such as forcing them to get plastic surgery and getting a share of the profit through an arrangement with the doctors. She also made them stay in the same apartment building, whose security system existed to keep the residents in. In case the girls tried to run away by communicating with the customers, Choi Yun-yeong sometimes hired a person to act like a client, and those that caught the bait were ruthlessly punished. In the first meeting, she pretended to be kind to Seon-yeong. She suggested Seon-yeong work as only a barmaid, and Seon-yeong, who had gone through a lot by now, accepted the offer. She trusted and grew fond of Yun-yeong, who also helped raising her daughter.

When Yun-yeong tried to force her into prostitution, Seon-yeong saw her true face and declined. But Yun-yeong threatened her with her daughter and Seon-yeong realized she could no longer stay. Seon-yeong asked her uncle Yeong-shik (28), who had helped her in the past, to tell Seon-ju to meet her at a certain place. Yeong-shik sent the message without putting himself in danger and brought Seon-ju to the designated location. Meanwhile, Seon-yeong finally made an escape with the six girls she lived with, but soon were caught by Choi Yun-yeong's uncles.

[Present]

Yun-mu's investigation into his wife's death leads him to Choi Yun-jeong. Observing her from afar, he learns that the security system is vulnerable to intruders and breaks in. The seven girls, including Seon-yeong, were already caught by then, but Seon-yeong and another girl have disappeared.

Yun-mu finally learns that right before her death, she told her best friend Miran the reason why she left home and that she repeatedly said "I need to make money and go back to Yun-mu". He learns also that she never abandoned the man who saved her life, and that she only wanted to make him into a better man since he kept the promise of protecting her forever. Yun-mu laments his misunderstanding of his wife. He realizes that he was insecure and anxious about her glamorous past, and that was the reason why he could not understand the hope she was talking about. He thought hope was an excuse she used to deny her present and eventually leave him.

Miran tells him more. Choi Yun-jeong handed Seon-yeong and the other girls to Kim Pil, Yun-mu's ex boss. Kim Pil recognized her, and asked her where Yun-mu was. Seon-yeong never told him. It was her way of paying back her debt. And as a result, she was killed.

Yun-mu is devastated by the truth, and the remorse and love for Seon-yeong that he has learned too late. He is also desperate to find his missing daughter, for Yun-jeong might have harmed her out of spite.

Yun-mu arms himself with everything he has and goes after Kim Pil and Yun-jeong. And thus begins the carnage of revenge.

Kim Pil and his people are slaughtered. Before Yun-jeong too meets her death, she tells him that Seon-ju is with Yeong-shik. Yun-jeong, who was so cruel to Seon-yeong, felt something of a kinship with the clever and cute girl and treated her as her only blood.

After being freed from their confinement, the girls call the police, who arrives and takes Yun-jeong away. Few days later, Yun-mu visits Seon-yeong's grave with their daughter. Yun-mu wails and screams. Seon-ju, who has not been told whose grave it was, puts down the necklace that she and her mother used to treasure and says, "Bye, mom." She wipes the tears from Yun-mu's face, and he cries in her arms.

Songdo

Samuel CHO



Born in 1977

Graduated Sogang University, Journalism and Broadcasting

Wants to be a writer to write good stories.

AWARDS AND SELECTION

- 2005 Adapted Feature Film <Art of Fighting>
- 2007 Screenplay of Feature Film <Mapado 2 : Back to the Island>
- 2008 Adapted Feature Film <A Tale of Legendary Libido>
- 2012 Adapted Feature Film <Love Clinique>
- 2014 Adapted Feature Film <The Wicked Are Alive>
- 2014 Screenplay of Feature Film <Granny's Got Talent>
- 2017 Screenplay of Feature Film <Ordinary Person>

Work Note

Land made from the sea. Buildings erected on top. An insight into the ruthless world created by the clashing desires within.

Synopsis

Jang Tae-san/Kim Hyeon-jin (male, 28)

the one who hides his true identity to stay close to his enemy and plan a revenge.

Park Chang-jin (male, 41)

the one who sacrifices everything to be the master of his world.

Park Hye-shin (female, 24)

the one who observes the vicious and endless battle with ambivalence.

Mr Cho (male, 54)

the one who survives in the dog-eat-dog world.

Shin Sang-hwan (male, 68)

the king of the previous generation; the one who wants to pass on his legacy to the person of his choice.

After his father dies in an accident, Jang Tae-san (28) stays with several different relatives until he is finally sent to an orphanage, where they change his name to "Kim Hyeon-jin". He is usually quiet and well-behaved, but in the face of a bully he turns into a vicious fighter. He is not concerned with the pecking order among his peers, focuses solely on his studies and gets accepted into a university with the best law program in the country. Tae-san can easily take the bar exam, join a chaebol company, or become a senior assistant to a congressman; but upon graduation, he abandons all such opportunities and disappears, because he is still haunted by the death of his father twenty years ago.

Yeong-il Market in Southern Incheon in 1998. To Tae-san, the market was his hometown and a playground. Tae-san's father, who was the president of the merchant co-op, protested the market's redevelopment, and was murdered by the opposite force who disguised the crime as a suicide. The henchman was a man named Park Chang-jin(21), hired by the construction company and a local gang. He worked as a dayworker at the market, thanks to Jang Sang-pil, and Taesan used to call him Little Uncle and follow him around. Taesan was the one who discovered his father's body hanging from the crossbeam of their fish store; he had also witnessed Chang-jin leaving the store in a hurry.

Tae-san(28) returns to Incheon for the first time in twenty years and goes straight to Yeong-

il Market. The area used to be on the shore, but is now landlocked thanks to the Songdo Reclamation Project. The fish-smelling market has turned into a large shopping mall called "Million Town", though it too looks old. Tae-san rents a room in a nearby motel and pays a mall's carrier to take his job. Shopowners become fond of Tae-san, who is hardworking and quiet, and gives him a lot of work. Mr Cho(53), who sells fabric on the fifth floor, and Hye-shin(24), who owns a luxury brand store on the ninth, are two of such people. Hye-shin often asks him to run trivial errands for her, even though she does not need a carrier. As a carrier, he frequents various parts of the mall and naturally hears all kinds of rumors: the goings-on in the mall, responsibilities of the management office and the merchant co-op, and information about Park Chang-jin, the managing representative and president of the merchant co-op.

Thinking he deserves to be more than a carrier, Hye-shin recommends Tae-san as a junior manager of the mall. Mr Cho also signs the recommendation letter. Tae-san finally meets Park Chang-jin at the interview; he looks like a proper businessman now. Tae-san feels as he did back in the attic of the fish store, witnessing his father's death. But Park Chang-jin does not recognize him or give him a single glance, and hires him on the spot, accepting him into his circle. But Tae-san's job only involves taking shifts to stay in the office. Time passes by without progress. Tae-san is involved in the task of closing down one of the stores: Mr Cho's. There are trivial legal pretexts, but the real reason is because Mr Cho has been publicly voicing his discontent about the increase in the merchant co-op membership fee. Mr Cho, who has been around since the mall was a fish market, resists violently by hurting himself with scissors, and Tae-san steps into the blood-soaked scene. He offers a compromise and calmly resolves the situation. Park Chang-jin is impressed by this, and puts him in charge of seeing the matter to the end. He helps Mr Cho bring his store back to life and gets him to pay the late membership fees. This earns him the shopowner's trust, as well as Park Chang-jin's favor. The day Mr Cho clears his balance, Tae-san is hired as Park Chang-jin's driver.

In exchange for leading the redevelopment effort, Park Chang-jin was given part of the rights to the merchant co-op. This helped him wipe out the opposing force, continuously increase his shares of the mall, and become the president of the co-op. Now, Park Chang-jin owns the shares of not only Million Town but also the neighboring malls, and runs a not-so-secret moneylending business to exercise control over the shopowners. As his driver and assistant, Tae-san is in charge of collecting money. During one of the covert business meetings, he runs into a district attorney who went to the same university, and restores a connection --and thus begins the plotting of revenge. But the reward for his loyalty towards Chang-jin is difficult to ignore. Chang-jin's company rents him a nice apartment, gives him a new car, and dresses him in the best suits. He now deals with prosecutors and police executives and politicians, and the quality of his life increases dramatically. He also begins to date Hye-shin, who has always shown interest.

Park Chang-jin is a calculating and bold businessman. He is ambitious, but also wise enough to know when to stop. His personal life is surprisingly clean. An Incheon native, he also encouraged and mitigated the conflict between Yeonsu-gu and Namdong-gu over the jurisdiction of Songdo for his own gains. This was more than an issue between local governments over lucrative tax revenues; it was essentially a cartel involving local bipartisan congressmen, as well as the mayor of Inchoen and th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This cartel is now discretely going after the casino business in the Yeongjong Island. The resort complex project is called "Empiral City Devempment", and guarantees tremendous profit. It involved a total of eleven companies, including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n Hong Kong, top construction companies of Korea, as well as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IMCDC).

The new mayor of Incheon has replaced the consortium's representative with his own associate. With this new representative as his puppet, Park Chang-jin involves himself deeply in the development business. In this complicated web of interests, Park Chang-jin tries to reclaim the domestic capital in Northern Incheon (partly owned by the former mayor), and finally ends the ten-year-long battle by exposing the business crimes of Shin Sang-hwan, the president of Sanghwan Construction and a core member of Northern Incheon association. Through all this, Tae-san learns a great deal about the business from Park Chang-jin, as well as about the man himself. Park Chang-jin also treats him as his son and a successor. It is through him that Tae-san experiences fatherly love, which he has been deprived of for the last twenty years. Confused and conflicted, he begins to dread the revenge.

While dealing with this financial and political pandemonium, Tae-san sees Chang-jin going into Hye-shin's apartment. After many hours of ignored phone calls, Hye-shin lies to Tae-san that she is sleeping with his boss. Distraught over a sense of betrayal and defeat, he is unable to ask for the truth from either of them. He runs into Mr Cho while drinking alone at a cart bar. Mr Cho realizes that Tae-san is Sang-pil's son, and scolds him for betraying his father, though he does not remember any of it in the morning. This incident, combined with Hye-shin's betrayal, pushes Tae-san to hurry the revenge. With the help of the district attorney, he secures the evidence of double-bookkeeping and bribing and hands them to the police. Few days later, as Tae-san watches, Chang-jin is arrested in his own office. Chang-jin does not resist the arrest, as though he has known everything all along. Despite looking forward to this moment all his life, Tae-san is unable to look him in the eye.

Park Chang-jin's arrest does not disrupt Million Town's peace. His associates do not protest, and the shopowners are hardly moved. Puzzled by their reaction, Tae-san prepares the co-op meeting for choosing the new president. But even Mr Cho, who has always supported him, blames him for creating an unnecessary mess and is no longer on his side. The next day, Chang-jin's indictment

is speedily suspended and he returns to Million Town. Chang-jin asks Tae-san to bring coffee, as though nothing has changed. Frightened, Taesan storms out of the office. He runs away from Million Town, confused and scared, and faces a group of muscular men. They take him to an isolated warehouse, with the waves crashing in the distance, and beats him up mercilessly, tearing his skin and splattering his blood and breaking his bones. Unbeknownst to Tae-san, Park Chang-jin is there too. He looks down at Tae-san for a long time and turns without a word. After many hours, the men finally removes the blindfold. They are all wearing the police uniform, and proceed to handcuff Tae-san.

The district attorney visits Tae-san in prison and tells him that Park Chang-jin is more powerful than he thought; and that there are already investors from China and Las Vegas involved the casino project, and they would never invest without a safety device -- by which he means the authorities far more powerful than the mayor or the governor. While his friend is busy worrying over his own safety and job security, Chang-jin bangs his head against the wall. The apartment and car that Chang-jin gave him become proof of embezzlement, and Tae-san receives a one-year sentence. He accepts his new life without a word of protest. Unlike his young self, who fought against injustice no matter what, he now endures it without resistance. There are visitation requests, which he turns down as if to punish himself. He also receives a constant stream of money from the outside. He senses that someone is watching him in prison. It is Shin Sang-hwan (68), the former president of Sanghwan Construction. Since he can no longer fight at the forefront himself, he wants Tae-san to do it for him. He has a different style from Chang-jin, but Tae-san learns new things from him just as much. Two seasons pass. Tae-san finally agrees to see a visitor, who turns out to be Hye-shin. She tells him that Chang-jin is her father. He had her when he was a teenager, and gave her to her grandmother and called himself her uncle. Tae-san realizes once again his immaturity and impatience, and accepts her back into his life. Hye-shin wishes to leave the town with him, but Tae-san's plans are more complicated. He serves his term without receiving parole. Meanwhile, he continues to receive money from someone outside.

On the day of discharge, Hye-shin is waiting at the gate to bring Tae-san to her house. Hye-shin says she has been diligently preparing for their new life and they can leave soon. But that night, Mr Cho secretly reaches out to him. It turns out that he was the one who was sending money to prison. He has known Tae-san's true identity from the start; he kept it secret all this time, except for that one time when he was drunk. Without telling Hye-shin, Tae-san meets with Mr Cho and all the others who resent Chang-jin's violent and greedy ways. They see Tae-san as their only chance to defeat Chang-jin and plead him to stay. They remind him of the merchants who used to ask favors from his father. Tae-san promises them that he will take everything from Chang-jin, and immediately asks for Shin Sang-hwan's support. When Hye-shin finds out about this, she leaves both Tae-san and Chang-jin.

Mr Cho gives his store to Tae-san so that he can re-enter Million Town as a shopowner. Chang-jin sends him flowers as though nothing has happened. Tae-san naturally becomes a member of the merchant co-op, and immediately declares candidacy for the co-op presidency, putting himself in direct opposition to Chang-jin. On the outside it looks like a civilized and democratic campaign, but in truth it is simply a game of splitting sides filled with threats and negotiations, as well as securing interests and dividing up questionable funds. The conflict soon comes to the surface when the business owners in the neighboring malls form an alliance and have a large sale. But the real battle is over the Imperial City project. With the funds from Sanghwan Construction, Tae-san starts a junket business (a legal business that brings customers to casinos and charges fees) targeting Chinese tourists. He offers exceptionally low rates to damage Chang-jin's business and takes some of his customers. Tae-san also convinces Chang-jin's political sponsors to join him instead, using their vulnerable positions before the regional and general elections.

Ordinance revisions and permits that Chang-jin has been trying to pass with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s in the ruling party are delayed indefinitely, some of them cancelled outright. Tae-san now has almost 40% share of the project, which is close to Park Chang-jin's share. It is enough to disrupt the entire project, but not enough to make decisions. The key player in the project is IMCDC, and Tae-san's victory relies entirely on whether or not he can convince the mayor of Incheon. But the mayor is one of Chang-jin's people, and so Tae-san must appeal to a higher authority. Tae-san approaches the governor, the authorities i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inistry of Culture, and even the parliament, but his effort is fruitless.

Tae-san finds out that Chang-jin has exaggerated the sales rate in order to secure investments; Chang-jin has bought a significant chunk of the land under a different name. Tae-san uses all of his resources to look into this and finds out the shocking truth: Hong Kong investors, who were the largest shareholders, have sold their shares to Incheon IMCDC, a government agency, resulting in the decrease in their shares from 50% to 28%. IMCDC turns out to be under the mayor's control, who in turn is a mere puppet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Imperial City is not a golden goose, but a bottomless pit, and Park Chang-jin a mere chessboard piece. Soon the minority shareholders will leave, and Chang-jin will meet his demise by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n two years at the latest. Tae-san feels dejected, but gets himself together. No time to waste feeling weary. Most likely, Chang-jin already has an exit plan. Around the time Tae-san has figured all this out, Chang-jin summons him to a hotel in Songdo. There, he praises Tae-san for holding his own, and tells him that his father, Jang Sang-pil, was once a gang boss who lost his power and was using the redevelopment project as a means to climb back on top. He failed, and ended up dead. Confused and shocked, Tae-san continues to listen to Chang-jin's tale of truth or lies. Chang-jin admits to being the henchman, but he was hired by Shin Sang-hwan, then-boss.

The plausibility of his words confuses Tae-san further. Chang-jin proposes an irresistible deal, but Tae-san, after a bit of hesitation, declines. Chang-jin sees his resolve and says he is proud of Tae-san, regardless of the outcome. Tae-san decides that he must defeat Chang-jin, to discover the truth if not for anything else, and gives everything he has to prepare for the final battle.

There is no time. Chang-jin also wages an all-out war to protect Million Town, his home base and main source of fund for the Imperial City project. He uses the loans he has given out to shopowners to threaten them, and buys votes by acquiring new stores at higher prices. His method of wielding and maintaining power is thorough and tenacious after years of practice. The night before the election, Tae-san takes three significant votes from Chang-jin and manages a tie. The war between Park Chang-jin and small business owners comes to an end when Hye-shin, who has been gone for a while, shows up and casts a tie-breaking vote in favor of Tae-san. With an impassive face, Chang-jin lifts up Tae-san's hand. Tae-san can finally return his gaze, but not Hye-shin's. He is smiling amid the joyous shopowners chanting his name, but his eyes are on Chang-jin's back, glaring until the very last moment.

That night, Tae-san heads to the seaside warehouse where he was once beaten to a pulp. There, Chang-jin is tied up. Same location, different positions. Chang-jin attempts escape by holding his daughter Hye-jin hostage. Tae-san tells him that he was going to let Chang-jin live anyway, but now he has to kill Chang-jin for what he has done to Hye-jin. Chang-jin looks at him gloomily, turns, and disappears into the dark. A moment later, Hye-shin turns away from Tae-san too as she is unable to open herself up to him again. Tae-san still does not know the truth, but he feels he has done what his father would have, and considers leaving the town with Hye-shin.

Park Chang-jin is gone, leaving nothing but speculations about his whereabouts: Philippines, China, Macao, etc. Few days later, those who sided with Tae-san begins a ruthless purge of the opposing force, and those who remained neutral also suffer significant damage. Now that the singular repressive force is gone, the smaller forces who have remained quiet until now become eager to display and expand their power. Chaos ensues in Million Town and the entire commercial district, and the shopowners suffer. Those in power, as well as Mr Cho, pressure Tae-san to give up his presidency since he is too young to appreciate power and needs to learn. Tae-san does not deny the fact, since he has already accomplished his initial goal. He also realizes that he has been naïve for believing in some moral cause or greater goods, and reflects on vicious, dog-eat-dog nature of this world those who do not eat get eaten. None of the carriers and shopowners have been greedy; and yet they pay for the greed of others. On the day of Hye-shin's departure, he does not leave with her. He goes to the inauguration ceremony instead and becomes the president, surprising everyone who anticipated he would not show up. None of them says a thing, since he has won the presidency fair and square, but no one welcomes him either. There will be another

war. In the calm before the storm, Tae-san sits alone on the top floor of Million Town and looks down upon the night view of Southern Incheon. His phone rings. The voice asks him if he could resume Chang-jin's responsibilities. His answer is inaudible. He hangs up the phone, looks once more at the city lights below, and focuses on the reflection on the windowpane. There he sees a face, though he cannot tell if it is the face of Jang Sang-pil or Park Chang-jin.

Connection

Sangbum CHO



As an innocent Cine Kid Film Buff, he believed that movies will save the world. Cho went through hell and high water, determined not to die on site in Chungmuro. His dream is to write stories yet when he feels tired, he has no problem being lazy and doing nothing.

History

- 2000 Making of Feature Film <The Anarchist>
- 2001 Graduated BA in Korean Language Studies at Kookmin University
- 2003 Completed MFA in Film and Digital Media at Graduate School of Digital Image & Contents, Dongguk University
- 2003 Production Team of Feature Film <Spirit of Jeet Keun Do – Once Upon a Time in High School>
- 2006 Assistant Director of Feature Film <Gangster High>
- 2012 Assistant Director of Drama <Holy Land>
- 2014 Assistant Director of Feature Film <Obsessed>
- 2014 Screenplay of Feature Film <Tazza – The Hidden Card>

Awards and Selection

- 2003 Short Film <Byeoljubujeon> - Jury Special Award at Korean Religions Arts Festival
- 2004 Short Film <Byeoljubujeon> - Short Film Selection at The 1stSeoulEcoFilmFestival
- 2011 Screenplay <The Secret Life of Plants> - Joint Recommendation Selection, Korea Film Council Scenario Market 4stQuarter

Work

- 2014 Screenplay of Feature Film <Tazza – The Hidden Card>
-

Work Note

This film is about two Robin Hoods going after greed-infested global speculative capital; the plotters in government finance amassing a large fortune behind the scene; and a mission to steal 10 trillion won from the national wealth! A financial crime thriller based on the real-life scandal involving Lone Star Funds.

Synopsis

Seo Gi-cheol (male, 40) - An intern analyst at Golden Stone Korea.

An ex-detective turned lawyer. Goes undercover at a hedge fund company for secret investigation of Jason.

Jason Park/Park Jin-woo (male, 29) - CEO of Golden Stone Korea. A hedge fund manager.

A corporate raider from Wall Street. Buys out small and mid-sized firms to stop the merger of Shinsung.

Lee Gang-jun (male, 50) - Joint head of investigation in the security crimes department at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ssistant prosecutor. The Grim Reaper of Yeouido, South Korea's financial capital. On a mission to stop Jason's corporate raiding.

Lee Heon-ju (male, 75) - A senior advisor at a think tank. Lee Gang-jun's father.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Wants to use the merger of Shinsung to get his hands on the slush fund.

Black Monday. Sell orders pouring in as soon as the market opens. Companies without the financial muscle going bankrupt one after another after the crash.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government frantically search for a solution to this crisis. When the second financial crisis seems imminent, a global hedge fund called Golden Stone Korea dramatically comes to the rescue and starts aggressive takeovers. The CEO of the company is a man called Jason Park, a Korean-American hedge fund manager and the rising star of Wall Street. He aggressively goes after companies that filed bankruptcy, but its ultimate target is Shinsung Group, the largest corporation and the leading force of the South Korean economy. Going against the merger of Shinsung C&T and Shinsung Industries, he buys as much foreign shareholdings as he can. Right before the shareholders' meeting, Shinsung Group sends in a lobbyist named Nam Jae-hyeon for a negotiation. But things do not go as planned, and the company becomes desperate...

The Mofias who have been controlling the South Korean economy behind the stage for their own interests are panicking. They have suffered significant loss due to the companies going bankrupt, and if the merger of Shinsung C&T falls through, all their foreign assets in the process of money laundering under borrowed names are going to be worth nothing. To find a way out, they hold covert think tank meetings in various places. A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Lee Heon-ju has a hunch that the series of recent buyouts is related to K-star Gate, a financial scandal regarding the illegal sale of Daehan Bank 13 years ago. The companies that Jason Park are going after had all received investments from those that benefited from that incident. Shinsung Group was the worst one of all. To safely launder and retrieve his assets, Lee Heon-ju must seal the merger. He uses all his connections with the media to create a narrative about the outflow of national wealth, and wages an all-out war.

Lee Gang-jun is joint head of investigation in the security crimes department at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He earned his nickname "the Grim Reaper of Yeouido" after successfully conducting a special investigation of illegal donations by large corporates. He investigates Jason as thoroughly as he can, but there is nothing illegal about his business. Jason is a Korean-American corporate raider who has already conquered Wall Street. He receives the highest commissions in the industry and is the master of obtaining information, but there is nothing known about his personal life. When the investigation shows no progress, Lee asks Seo Gi-cheol, an ex-detective, to go undercover at Golden Stone and find out more about Jason.

Gi-cheol quit his job at the police force and goes to law school to become a lawyer and make a lot of money, but he has been unable to find employment at a law firm. He accepts Lee's offer under the condition that he be given a position at a law firm after it is over. He plans a chance encounter with Jason, and uses his sharp intuition to win the favor of Gi-cheol, who gives him an internship at Golden Stone.

On his first day, he goes to the legal team and finds out he will be working as a “risk consultant”, a term he is not familiar with. But contrary to what the job title suggests, his actual responsibility is to do a background check on potential merger targets. He now has to dig up corporates’ dirt on top of Jason’s. Gi-cheol, who can barely use online banking, crams everything he needs to know about finances and hedge funds. He learns that everything in the world, from hamburgers and beer to hotel businesses, are controlled by the same financial companies, and is enraged at they can make so much money through what is essentially illegal speculation.

His old detective instinct flares up, and he puts himself in danger to make connections and collect information, successfully unearthing the power hierarchy within the corporates and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ir leaders. He is soon recognized within the firm and kicks the investigation into gear once Jason lets him further into his personal life, but soon reaches his limit. Gi-cheol realizes he needs Jason’s complete trust, and works to slowly become his closest confidant using the information fed to him by Prosecutor Lee. He leads the life of a double agent, serving both parties and walking a tight rope.

Gi-cheol becomes addicted to the money game played by financial geniuses. The thrill of sealing large deals, along with the monetary rewards, gradually get him more and more addicted. He becomes fond of Jason, who is as good with people as he is with money. He also feels pity towards Jason, who seems like a cold-hearted bastard on the outside but sometimes explodes in anger due to the pressure of his life. One day, he discovers that Jason was involved in an insider trading case -- along with his dark past that has been hidden under the veil...

Jason Park’s Korean name is Park Jin-woo. He is the son of Park Chang-wook, who died shortly after K-star Gate under mysterious circumstances. Gi-cheol realizes that Jason has been avenging his father. He brings himself closer to the truth by looking into the death of Jason’s father, which was classified as a suicide, and collecting various information. Jason’s father was the writer of “Bank Capital Adequacy Ratio”, which was the core argument for the sale of Daehan Bank. He was found dead in a Matiz; the cause of death was gas poisoning, though many questions remained unanswered. According to Gi-cheol’s hunch, honed after years of experience in serious crime squad, this is the smoking gun!

Gi-cheol finds out a shocking truth about Jason, who has bet everything he has on the merger of Shinsung C&T, and Prosecutor Lee, who sent in Gi-cheol. If Gi-cheol passes on the proof of Jason’s insider trading, he will become a proper lawyer; if he investigates the mysterious death of Park Chang-wook, he will have stayed faithful to his identity as a detective. He is conflicted between his loyalty to Jason and Prosecutor Lee. Meanwhile, Lee begins to pressure him, and Jason too keeps an eye on Gi-cheol.

In the end, Gi-cheol goes after Jason for his family’s sake. His father abandoned his family during the IMF. Unlike his father, he wants to be a good provider for his son Jun-hyeok. For his family’s sake, he heads to the prosecutor’s office with the information about the insider trading. On his way there, he gets a phone call from Detective Gang, his ex-colleague from serious crime squad who once investigated Shinsung C&T together. Gang tells him that Shinsung C&T made an illegal profit off surtax on gold export during the IMF crisis.

Gi-cheol meets up with Gang and becomes enraged that that his father’s layoff and eventual downfall was all because of Shinsung C&T. He now empathizes with Jason’s thirst for vengeance. He decides to side with Jason and gets down to the bottom of it all.

He approaches Prosecutor Lee and requests for information about the sale of Daehan Bank. He tells Lee that he needs it in order to expose Jason’s plans for revenge and acquire evidence. He then hands all the confidential material to Jason, and joins the information war. Thanks Gi-cheol’s hard work to dig open the criminal records of major shareholders, Jason whips their votes and secures majority votes. He proceeds to prepare for the final punch before the shareholder meeting.

Jason sends Gi-cheol to the chairman of National Pension who is also an institutional investor. Gi-cheol demands he vote against the merger, mentioning the man’s history of receiving bribe during the sale of Daehan Bank. Suddenly, Detective Gang and his squad burst into the room. Prosecutor Lee and joint investigation force are standing behind them. Detective Gang, who has been like a brother to Gi-cheol, is one of Lee’s bitches. Lee, who has been aware of Gi-cheol’s moves all along, has set up a trap.

Gi-cheol is taken to a place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There, Lee interrogates him and pressures him to give up the information about Jason’s insider trading. When Lee mentions Gi-cheol’s wife and son, saying it’s his last chance to make them happy, he gives in. He must betray Jason, or else...

Gi-cheol reports back to Jason and says everything went as planned. Jason finally tells him about the reason why he began corporate raiding, and what happened to his father. Gi-cheol drowns out his sorrow and self-hatred in alcohol. He feels immeasurable guilt when he finds out that Jason gave him a large bonus after hearing that he is struggling to get a house. When Gi-cheol returns home, his son, who hasn’t seen him in a while, runs into his arms and says that he is proud of him for catching the bad guys. Gi-cheol chokes up when his wife says that their son will be living in a better world.

It is the day of the shareholders' meeting. Gi-cheol stands next to Jason, who's about to give a speech. He notices Lee's agents standing at the back. As instructed by Lee, Gi-cheol tries to get Jason to say something incriminating, and succeeds. Jason goes up to the podium. He begins his speech against the merger, but the shareholders seem unimpressed. Taebak Group, a white knight for Shinsung, turns the table by casting a yes vote. As Jason bitterly leaves the room, Prosecutor Lee blocks his path. Lee arrests him with a warrant. Jason calmly looks at Gi-cheol's hardened face. They stare at each other for a while.

Gi-cheol gets a job at a large law firm and lives comfortably as a criminal lawyer, but deep inside he is still burdened with guilt. Soon after the merger of Shinsung, Jason is charged without detention. He vows to make a comeback and quietly focus on the preparatory work.

Shinsung Group's accounting fraud makes the news. Their stocks flounder, and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is about to be summoned for investigation. Jason does not miss the opportunity and buys their shares. He publicly declares his involvement with the management and demands the nonexecutive directorship, as well as the stock dividend. Shinsung goes on the defensive by hiring Gi-cheol, a former employee at Golden Stone, as their attorney. Jason and Gi-cheol, who were once friends, now meet as enemies.

Gi-cheol's defence is flawless and pre-empts all of Jason's attacks, since he is familiar with Jason's strategies. But the situation accelerates. A series of corruption scandals by various companies, including Shinsung, are brought to the surface. The target is now Hansung Bank, which has been indirectly controlled by Shinsung. Hansung Bank is almost driven into bankruptcy by bad debts. Afraid of bank run and the subsequent serial bankruptcies in the financial industry, the authorities are rumoured to be considering putting it on the market.

Jason's gloves come off. He ruthlessly goes after Hansung Bank, with a goal to buy it out. Mofias and Lee Heon-ju become desperate at the prospect of a merger. If Jason gets Hansung, it will open the Pandora's box. With his slush funds and lobby funds in danger of exposure, Lee Heon-ju goes berserk. He pressures the congressmen to pass an act forbidding market intervention, and gets the public to believe that large corporates need to acquire banks in order to protect national wealth. A takeover battle over Hansung Bank between Shinsung and Golden Stone begins, putting Jason and Gi-cheol on a head-on match. Twist after twist, and many unexpected turns of events later, Gi-cheol reveals his true role. Jason and Gi-cheol have been working together all along to take over Hansung Bank. A flashback to Gicheol's confession about being an undercover, and Jason's suggestion for an even bigger game.

Their secret plans are finally revealed. Gi-cheol's actions thus far have been exactly in accordance

with their scheme. Gi-cheol has been quietly gathering evidence of the accounting fraud. Jason has been buying Hansung's bad debts. Jason successfully changes the law, and seals the merger of Hansung Bank.

Meanwhile, Gi-cheol has also been investigating the death of Jason's father. He convinces an employee who knows the truth to testify. Their fight to uncover the truth of the sale of Daehan Bank makes the news every day.

Mofia and Lee Heon-ju become even more desperate and pulls all kinds of dirty tricks through Prosecutor Lee, but it is too late now. In the end, Lee Heon-ju takes the bullet and gets arrested so that the truth about the sale of Daehan will be hidden forever. Shinsung fails to acquire Hansung Bank, which is revived by the government support and becomes government-owned, destroying Shinsung's years of hard work for its acquisition.

Gold Stone and Jason also suffer significant damage, but they obtain management rights and expansion of stock dividends by using their large shares of Shinsung Group. The minority shareholders are overjoyed, and begin to speak up their minds in shareholder meetings.

Jason and Gi-cheol head to Bermuda. Gi-cheol asks his friend how it feels to avenge his father. Jason says it's only the beginning. Jason starts corporate raiding against the paper companies belonging to Mofias. Jason asks Gi-cheol to join him, since he seems to be a natural. Gi-cheol thinks for a bit, and runs to his son who's waving at him at the beach. Gi-cheol watches as his son plays with other children. His son brags to his friends that his father beat up the bad guys. Just then, Gi-cheol spots a thief stealing a wallet at the resort. He catches the thief and twists his arm with a wide grin.

关键时刻

金浩然



小说家兼剧本作家，出版的长篇小说有《望远洞兄弟》、《情敌》、《Ghost writers》，电影参与《射日》剧本与《南韩山城》改编工作

简历

2009 CJ E&M内容开发组企划开发作家
2010 金容华导演 剧本作家组
2011 姜帝圭导演 剧本作家组
2013 长篇小说 《望远洞兄弟》
2015 电影 《射日》剧本
2015 长篇小说 《情敌》
2017 电影 《南韩山城》改编
2017 长篇小说 《Ghost Writers》

获奖或评选

2011 剧本 《互换》被评选为‘电影剧本作家之场’的电影振兴委员会支援作品
2012 剧本 《京城拳头》被评选为电影振兴委员会企划开发第1、2次支援作品
2013 长篇小说 《望远洞兄弟》获得第9届世界文学奖优秀奖
2017 故事 《警戒线》被评选为富川剧本展映作品
2017 剧本 《Ghost Cop》被评选为 CJ文化财团O’PEN支援作品

创作作品

2015 电影 《射日》剧本
2017 电影 《南韩山城》改编

作品意图

“刑警大叔，我是个触法少年。你该知道你不能逮捕我？”刑警说，犯了非常恶质罪行的初中1年级学生说这番话的时候，感觉就像他的血液都逆向冲起来。去年在社交网上出现的一张照片引起了社会的关注，网上公开满身流血的女学生在下跪的照片，这就是所谓的“釜山女初中生暴力事件”，该事件的加害者之一也是分为触法少年，被判保护处分。

就少年法强化的内容纳入为青瓦台的国民请愿议题，舆论也强力要求该处于严重处罚。我在想，这是那些孩子们的错吗？不是，这是大人们责任。使这些孩子们变成这样，我们社会有责任。在我们小时候也有一些慢半拍的朋友们，当时我们把这些朋友叫“萝卜块”，但还是跟他们一起玩。但现在的孩子们故意排斥这些朋友。“休乞”这个词也让我吃惊，这是“休门西雅（音译）乞丐”的简称，是指住在租赁公寓的孩子。他们还说不让这些“休乞”孩子在自己的公寓游乐场玩，这也是令人惊讶。

《关键时刻》是披着警察片外套的社会片。在江南的一个中学，企业家的独生子被绑架，江南警察署的重案组要在关键时刻内救出少年。重案组的女刑警张仁英在当单亲妈妈的苦衷与组内边缘人的苦衷当中，受到双重压力，进行侦查。她在调查企业家家庭的时候有所吃惊，因为她无法理解少年父母的反应。她还发现，被绑架的少年在2年前的校园欺凌事件当中却是个加害者。不可捉摸的家长和少年，还有接触到2年前案件的受害者及牵连人，仁英对人的残酷和不合理感到慌张。仁英到底在关键时刻内会解决什么问题？这是关于以“仁英”为代表的社会弱势群体的斗争，也是关于在“胜者万能主义社会”大韩民国的“危险时刻”的电影。

剧本大纲

张仁英 (33.女)

江南警察署刑事科重案组组长，育有6岁女儿的单亲妈妈。在奥运拿过铜牌，特别招聘为警察。身高170厘米、体重62公斤，在奥运上因不公正审判而哭泣的她，为公平社会付出贡献当警察。可是在现实上，因为她那“该说的要说”的性格，同事们都把她当作边缘人。对她来说，这个世界有太多的偏见与障碍物。可是她依然不放弃，要不断的跟世界决定胜负，很固执的。

姜韩松 (14.男)

韩东集团姜会长的独生子。姜会长是一个冷酷的企业家，只顾自己的自私的人，看不起自己妻子以及周边的所有人。可能是因为这样，他的儿子韩松也一样，年少已经看不起周边同龄朋友，操纵他人。他是“金汤匙”，长得又帅，智商高达164，念量子物理学原书版本的天才。当然他的人气颇高，但他却对感情分享方面毫无兴趣，只喜欢看透别人的弱点，由此操纵他人。不管那是同龄朋友还是老师，或是绑架自己的犯人。

赵宇锡 (37.男)

绑架韩松的本人。前职为刑警，仁英刚被特别录取的时候作为重案组同事，在精神上、物质上积极帮助的前辈。其实，在仁英进来之前他就是重案组的边缘人，他终于说他不适合重案组，转移到儿童青少年系。再过几年，不知怎么回事，他辞掉了警察工作，沦为酒徒，过艰苦的日子。他绑架了韩松。然后仁英再面对宇锡，想起过去的真相和宇锡的秘密。

关键时刻：据统计学，在绑架案或失踪案上，可救出受害人的时间

Prologue

以背影出现的男人打开后车厢。车厢里，用胶带封嘴，身体被捆绑的少年躺在里面。像尸体般无举无动的少年。慢慢的，奇妙的眼神转头看着男人。男人，从车厢里拿出少年，带着他走去，往某处。

Critical Hour

18:05分，江南警察署。内部调查室。在叫出**张仁英刑警 (33)**。短短的头发，一张少年般的脸，

仁英在做陈述。对面的**崔刑警 (38)**挂着满不服的表情。调查委员跟崔刑警确认在柔道课上碰仁英的胸部。崔刑警说是运动中的技术性轻拍，但仁英反驳，是惯常的行为。终于崔刑警被处于减薪。调查结束后，崔刑警用肩膀故意碰撞仁英，嘲笑的说“等着瞧”。回办公室的仁英，装没看见同事们包有不满的视线，要在自己位置上坐下来的时候吓了一跳。搞得乱七八糟的桌子，仁英要准备闹一场的时候……来了案件传呼，大家都到班长室去。

印象锐利的**刑警班长 (45)**在报告刚刚接过来的失踪案件。韩东集团姜亨石**(48)**会长的独生子，初中1年级**姜韩松(13)**还没回家。据姜亨石妻子**洪蔡京 (36)**的举报，同学见过韩松的最后时刻是约13点，才是5小时的空白，但依韩松的习惯，这是无法接受的。韩松在下课后要搭车上补习班，不管他去哪里，都有两位保镖守护他。但这次保镖也来不及动手帮忙，就消失得无影无踪。因为他是韩东集团会长的独生子，班长认为这是一则诱拐案件，决定将失踪侦查转变成诱拐侦查。已过五个小时的关键时刻，侦查，开始了。

给组员分配角色的班长，但没有人愿意跟仁英做搭档。没办法，班长只好让仁英一个人调查姜会长的家。大家都出发了，班长叫仁英，倒是指责仁英，重案组一定要互相保护，不能保护彼此的组员没有存在的意义。仁英，勉强的点点头，出动。

19:24分，清潭洞，顶级的豪华别墅。在120坪宽敞的空间里的豪华装修，仁英有些吃惊。既然是诱拐案件，但迄今还没有任何联络，浮出不安的大厅，努力镇定自己的韩松妈妈，蔡京。跟蔡京打招呼的仁英。仁英问姜会长的情况，说有重要会议，还在公司。不管会议再重要，自己儿子会被诱拐了……仁英觉得有疑，但还是继续察看家里，进去韩松房间。端正干净整洁好的房间。像是神职人员的房间一样，书桌上有一本圣经，漫山遍野的公仔都没有。书架上不仅有课本、参考书，还有从心理学、哲学、人文、量子物理学到拉丁语书籍……他的书本都是成年人，那也是学历高的人们才能看懂的书籍。打开书页仔细看看，在参考书和量子物理学原语版本上的笔体是一模一样的。初中1年级的姜韩松，是天才。

仁英向蔡京打听韩松的事。蔡京抱怨说姜会长和儿子都是天才，以自己迟钝的头脑无法捉摸他们俩在心理到底想什么。周边有没有可疑的人，仁英问。蔡京望着仁英，好像在说“哪儿有这么傻的话”。蔡京说敌人太多，何时害到儿子也不奇怪，这样才雇用了“两名”保镖，突然开始哽咽。仁英安抚蔡京，仁英的视线停留在一个相框，里面是穿着黄色校服的韩松，那是位于南山山脚的名门私立学校。但在韩松房间里看过的毕业相册是江南区私立学校的相册。仁英问原因，蔡京说可以转校的，有什么大不了。仁英察觉到蔡京细微的过敏反应，继续问下去。于是蔡京喘口气，终于开口。不用说学校的同学，连他们的家长们也妒忌韩松，那是一场魔女猎巫。据蔡京说，2年前韩松被指认为校园欺凌事件的加害者之一，所以受到不少误解，所以只好离开那所学校。眼睛闪亮的仁英，离开姜会长的家。

此时，开完会的姜会长出来见在等待的刑警们。姜会长，听到绑架就露出一丝嘲笑，说如果事情被报到出去，他会起诉的。姜会长好像对找回自己儿子没什么兴趣，而只顾公司与自己的形象，刑警

们张口结舌。姜会长的表情好像在看什么不像样的事，添一句话，我儿子不会让人诱拐的，他会靠自己能力好好回来，不用浪费国家权力。

22：35分，江北的名门小学。跟值班老师确认当时事件的仁英。还是跟蔡京说的话完全不同。韩松不止是单纯参与欺凌事件，而是主导整个案件，两年的事件内，他很执着地折磨他的同学，道伦。道伦最后离家出走，造成了问题。但没有人受到任何惩罚，只是以包括韩松的加害学生的转校而告终。好像由韩东集团下了手，媒体也没做一句报道。仁英说想见见这个叫道伦的孩子，问他的地址。犹豫的老师，催促的仁英，不得已开口的老师。道伦他……去年自己结束生命。吃惊的仁英，急忙的联系到警察总部，要求道伦父母的身份确认。

23：50分，盆唐。经过身份确认，来到道伦父母的家。按门铃，出来了一位憔悴的中年女子。她拒绝对话，仁英好不容易说服她，进去道伦的家。刚开始不怎么说话的她，终于开口说自己儿子的自杀全是因为姜韩松。韩松转校以后也继续折磨儿子，在家长们背后巧妙地折磨道伦，结果儿子再也撑不下去，选择自杀。她说，韩松的父母拦阻了所有的报道，学校也向她们施压。仁英在这时才说其实韩松被绑架了，没什么反应的她。仁英问她的先生在哪儿。她嘲笑仁英，老公不可能是个犯人，她气愤的说老公见了姜会长后根本就是束手无策。那么，你老公现在在哪儿？她说儿子死了以后，开始分居，跟仁英说该要走了。仁英回首尔的路上，向班长报告。

24：41分，在警察署聚集的刑警们开会。1、 仍然没有韩松的消息。2、 如果犯人要钱，应该早就有联系了。3、 在仇恨关系中，目前自杀孩子的父亲**郑泰旭（47）**的行踪扑朔迷离。4、 结论汇总到要找郑泰旭。经过手机定位追踪，确认他的位置。江陵。把韩松绑架到江陵？时间上也不是不可能的。而且，江陵是郑泰旭的家乡。人会寻找自己熟悉的地方。信心满满的班长亲手带手下刑警们，决定去江陵。仁英也自愿去江陵，但被拒绝。 班里的老字辈金刑警嘲弄说，“张刑警你回家吧，你不是要帮小孩上幼儿园么？”仁英逼视他，同事们继续嘲弄说，你这样差点打人啊。

01：30分，回家的仁英。她是育有6岁女儿的离婚妈妈，同居的母亲帮她带小孩。母亲在背后说，回家太晚，不要做警察了。仁英在看看女儿，女儿醒过来，向仁英开口说话，当她说自己妈妈是警察，班上的男孩不相信，所以揍他一顿。

“可是他说回家会告诉爸爸，他爸爸是男人，警察妈妈也赢不过他。笨蛋，妈妈比男人都要强。”

“是的，还是我的女儿聪明。”

“可是妈妈，如果他的爸爸找你，你也不要抓走。他还是我的同学哦”

听女儿的话，仁英嘴边挂着微笑，突然大悟。仁英请母亲带小孩，加紧出门。

02：27分，仁英，到了警官和保镖们在等候的韩松家。大厅里忧心忡忡坐着的姜会长和蔡京，仁英一进来，问她侦查情况。仁英反问，是否知道自杀孩子的事情。不回答的两人。仁英说自杀孩子的父亲在江陵，刑警们已经出动了，再问姜会长有没有跟他联系。他不是犯人，姜会长嘲笑警察的愚蠢。仁英问原因，姜会长让妻子回房间，独自与仁英说话。他拿过我的钱，几次，加上我会继续给他钱的，何必做绑架？对姜会长的这番话，仁英没话可说，给班长打电话。

江陵，班长和刑警们，进去写字楼的房间，发现废物般躺在屋角的郑泰旭。根本不是绑架或其他什么。空虚、没力气的他们，这时仁英打电话，班长接。仁英传达姜会长陈述内容，班长厌烦的挂电话。班长踢当初见过姜会长的两名刑警。

韩松家，仁英向姜会长问韩松所加害的案件内容，但以自己说法回避回答的姜会长，他却胁迫仁英。这时进来了两名陌生男子。姜会长说，因警方无能，自己雇佣了侦探。仁英感到羞耻，离开这里。仁英决定自己调查案件，为见当时负责人，去首尔南大门警察署。

04：15，南大门警察署。仁英得到帮助，确认当时的案件报告。据负责人的报告，韩松果真是实际领头，看似他的影响不止覆盖受害人，精神上还掌控其他加害者。报告整理的非常周到，仁英看看报告人名字，吓了一跳。儿童青少年系警卫**赵宇锡（39）**。赵前辈……仁英以柔道得奖经历被特别录取，刚当警察的时候，在方方面面给她很多帮助的人。仁英问赵警卫的事，他们说1年前离开了警察。仁英觉得有点不对劲，继续追问，他们说赵警卫自从名门小学的校园欺凌案件以及学生自杀后，过的很难过。之后，赵警卫选择辞职，过得像废人一样，仁英决定要追逐赵刑警。

07：05，天亮了，但还在黑暗暗的某处。好像在审讯罪犯一样，赵刑警将韩松捆绑在椅子做询问。赵刑警向韩松一一指责曾经所做的事情，韩松说不对，摇摇头。赵刑警大喊威吓韩松，要坦白说出你做过的所有事情，韩松翘起嘴角说，“我做过的事比你知道的还多”。韩松还补充道，有更多的孩子们。愤怒不已的赵刑警，打他一击。韩松虽然在被殴打，但其态度极为淡然。反而，激动的赵刑警显得更着急，被绑架的韩松却很舒徐，奇怪的情况。

仁英回想与赵刑警的过去。因为是女生，因为是特别录取，她被排斥的时候，只有赵刑警主动靠近仁英。但俗话说，在一个集体里进来一个新人的时候，首次靠近他的人就是那个集体的边缘人。作为重案组的刑警，矮小的体格，不起眼的武术水平，面对班长的提问以害羞的笑容含糊几句而罢的他，总会被班长训的他……刚来的仁英也觉得赵刑警不太适合重案组。最后，赵刑警说自己不太适合重案组，转移到儿童青少年系。他们之间的缘分在那结束，但对仁英而言，赵刑警还是一个感恩的前辈。他是这起案件的绑架嫌疑人……向班长报告的仁英。从江陵空手而归而战战兢兢的班长照着仁英，把全力量集中在寻找赵刑警。“可是要从哪儿开始？不是说张仁英已经去了南大门警察署吗？”班长不耐烦，“你们这些没出色的，快去跟张仁英好了。”

12：35分，仁英，去找赵刑警以前的重案组同事。同事讥笑说，早知道赵刑警他会闹问题的。仁英正经的问，知不知道赵刑警会藏身的地方。他的同事提及几起案件，但没有一个有帮助的信息。仁英开始烦，继续问下去，那同事突然玩弄仁英，“你离了婚，是不是很寂寞？”。生气的仁英，同事再挑衅说，“你不要跟我问赵刑警，他和你是不是有什么事”。气愤的仁英，想到了什么。他又开始戏弄仁英，“你一直跟赵刑警在一起，让我很遗憾，现在也还来得及”。他在仁英肩膀上放自己胳膊的时候，仁英用柔道技术，一下子制服了他，看来他很痛苦。仁英说“你才那么迟钝，侦查就总是没出息”，接着上车。仁英边开车，边向班长报告，在东仁川的一个二手书店里有赵刑警的窝点，想起

来以前跟赵刑警一起把一个举报人藏在那里。

13：47分，赵刑警。让韩松亲自听听录取自己陈述内容的音档。韩松听完了，嘲笑赵刑警。“警察大叔，这些都没用的。没具备证据能力，不说别的，你该知道现在这是儿童虐待吧？”赵刑警愤怒地向韩松翻白眼。这不正是儿童虐待，我要杀了你。你以为我还在乎这些小事？韩松问，为什么？赵刑警叹了口气，慢慢跟韩松说，“你说过，大叔，我是触法少年，你知道你不能抓走我的，你说得对，按法律没有办法，但有了这个录音，不用借法律，可以让大家知道你是多么恶毒的人，所以我犯了这些法律是……”说到这，赵刑警看到韩松血腥的微笑，“阿，原来那句话伤了你的心情，大叔，我是触法少年，可怎么办，那是事实。哎呀，不管怎样，你又不是道伦的父母，这样做也太过分了吧？所以说嘛，难道你喜欢过道伦吗？大叔，你对道伦有什么感情吗？”赵刑警的表情变僵硬了。

14：03分，进入东仁川的仁英。想起在二手书店地下，与赵刑警、举报人一起过的那个晚上。那天，他们要保护举报人，她睡了一会，偶然偷听到了赵刑警与举报人的对话，有所吃惊的那天……第二天他们将举报人移交之后，赵刑警跟仁英说，“我的窝点，是秘密”，仁英也答应了。那秘密里面的另外一个意义，但这将成为重要的线索。在二手书店对面停车的仁英，默默靠近已关门的书店，察看里面。门虽关上了，但有人们来往的痕迹。仁英确信了，此刻，班长、同事们、当地特警组一一聚集。不久，在班长命令下，以还记得里面结构的仁英带头，刑警们进去里面。小心翼翼下去的仁英和刑警们。

14：13分，感到他人动静的赵刑警，紧张地回头看韩松。韩送激发赵刑警，现在也不迟，赶快要杀我，不然你就完蛋了。赵刑警疯狂的抓住韩松，在他脖子上拿着一把刀。“别动！”出现在赵刑警面前的仁英和刑警们。班长在瞄准他的手枪，大声说已经都结束了，要放过少年。赵刑警不安的眼睛，不知所措，这时与仁英对视了。前辈……放弃吧。仁英动动嘴唇。此刻，韩松啃了一下赵刑警的手。阿，赵刑警，痛苦中抓住要逃走的韩松，拿刀顶脖子……乒！班长开的子弹贯通了赵刑警的头顶。绑架犯这样在当场死了，人质被解放了。失踪25小时，案件结束了，在关键时刻内，完成任务。

After Hour

案件总结为陷入酒精中毒的前刑警，为了金钱绑架在过去案件中认识的有钱家小爷。媒体称赞警方在关键时刻内安全救出人质，重案组获得奖励。而且被救的韩松以他魅力外貌和淡定的采访，受到所有国民的同情，也成为热门话题。不知是不是韩东集团下了手，媒体上完全看不到韩松过去的校园欺凌事件以及赵刑警是与那事有关联的刑警等其背后的故事。现场的证据则没有来得及收集，通通都被检察收走。仁英怀有疑惑，参加赵刑警的葬礼。

在葬礼，有一位男人，是以前的举报人，在二手书店见过的他。与他对话的仁英。从他的口中听到，当时仁英知道了他和赵刑警是同性恋，就把他们当成虫子一样对待。惊慌的仁英，否认自己没有这么做……自己也不能确信。之前她一直做运动，然后当警察是她的第一个社会生活。其实，人

生第一次见到同志，确实有成见。之后，确实对待赵刑警的时候不太舒服。那时才想起来的记忆。自己也排斥赵刑警。仁英残酷的不知所措。

回家的仁英。帮孩子睡觉后，重新回顾绑架案。赵刑警没有理由绑架韩松拿金钱。那么，赵刑警有什么动机？因韩松而死去的道伦，对他的责任感吗，还有对韩松不能再置之不理的愤怒吗？韩松到底是多么凶恶狠毒的人，赵刑警这么执着他？仁英决定要亲自面对韩松，但他的护卫更加严密，那也不容易。同事们都阻碍她，奖励都拿到了，不要搞砸已经够完美的事情。班长职责她，做侦查的时候，不能因赵刑警的死亡，被仇恨等个人感觉笼罩。班长看似很中立、冷静的，但每次以原则性的话压住仁英。原则，已经完全不平等的空间。侦查受到双重压力的时候，打起意志的仁英。

再需要更多证据的仁英，调查韩松在上的中学。她发现韩松在现在的学校也同样当王者，在学生之间助长搞校园欺凌，也折磨不服从自己的学生。其中最大的受害者是**秀敏（13）**。虽然是女生，但她是比谁都坚强精明，秀敏得知了韩松是助长校园欺凌、折磨同学的人，跟他对抗，但学校的老师们和朋友们都觉得秀敏太敏感，从而秀敏变成边缘人。然后，韩松时时刻刻注视秀敏，何时能惩罚她。韩松以他的精致和残忍恶毒的手段，使没有人可以抵抗，只能顺从，操纵整个班。好像要挽回在之前的学校里犯过的错误似的。

见到仁英的秀敏觉得难过，还是把所有的事情告诉仁英。仁英安抚秀敏。然后咬紧牙关。这次，她从韩松手里可以保护受害人吗？能不能揭开韩松的所有罪行，给他惩罚？这场对决不止是仁英和韩松之间的对决，而是她与围绕她的这世界展开的对决。就这样，仁英和我们的“危急的时间”继续延续着。

退魔诈骗团

閔庚根



在类型电影里，追求亲近、又有5度之差的变奏快感。

简历

汉阳大学戏剧电影系学士
第7届内容振兴院企划创作学院进修
电影产业实务教育导演课程进修
内容振兴院创意人才进修

获奖或评选

2015 《鬼怪猎手豺狼》获得庆尚北道剧本征集展鼓励奖
2017 《沈清传》被评选为富川国际幻想电影节展映作品

创作作品

2015 电影《治外法权》原案，剧本
2017 电影《对决》剧本

作品意图

以搭档形式愉快地表现**退魔师与鬼魂已经串通好的退魔诈骗剧**。在这过程中，讽刺凭巫师的一句语言就能左右的韩国社会以及为满足自己的贪欲利用鬼魂的当权人士，唤醒人们**比鬼魂更可怕**的现实，爽快地诈骗这些人，给观众带来严惩这些人的愉快。

剧本大纲

康宙(男，约45左右)

与鬼魂串通勾结，欺骗他人的退魔诈骗人

“我赚钱，你解恨！这番光景太美丽，真是……”

从小就觉得自己看见鬼魂就是自己的诅咒，
但没想到因金钱被逼到尽头的时候，只有这个“见鬼”的能力就他的命。
他的新事业项目，就是与鬼魂安排好的退魔诈骗！

丘天（男，约28左右）

与钱有仇，与退魔师携手合作的花美男鬼魂。

“一生都做好人，但活完了一生只会给人占便宜，这就是人生。”

被要好的朋有上当，得了“心火病”而夭折，责怪自己太天真，彷徨九天的青年鬼魂。
有一天，他收到一个荒唐的事业建议，一起开退魔诈骗……
丘天接受他荒唐建议，都是为了所留下的家人不因金钱而挫折
为了不让留下的家人因金钱而挫折，接受这种荒唐的建议。

姜议员（男，刚过50岁）

为牟利，连‘鬼魂’都可以买下来利用的人，可谓是贪欲的“化身”

“在这个国家，有钱就能让鬼舔我的脚趾”

有望当选为下届市长的议员，已在做他的第四届议员职务，欺骗国民，只顾自己利益的“积弊的典型”。

为垄断独占富有稀土元素的乡村土地，动用种种卑劣手段，驱逐居民，差点廉价收购土地时，突然出现了不知来历的人，妨碍他的计划……

车神父（男，刚过40岁）

原天主教神父，以恶魔当武器，帮助有权者的丑恶犯罪

“韩国人阿，巫师说什么都很疯狂的追”

不管是政治界的事还是商业界的事，只要收钱，什么都帮他们做，比恶魔更邪恶的阴地的“解决师”。

原来老老实实的宗教人，但自己有了看见鬼魂的能力之后，变成自己贪欲的奴隶。

车神父像照镜子一样，见到和自己一样的康宙……

鬼就是金钱！

康宙有一种能力，能够看见鬼魂

但他却不理这个能力，因为在生活中一点好处都没有，

像韩国大部分的人父一样，为了自己与家人，奋斗、谋生。

在快倒闭的公司，今天也一样埋头苦干永远赶不上的业务，

再加上与钱有仇的花美男**光棍鬼“丘天”**也缠着康宙，在耳边哭穷，使得康宙不耐烦。

有一天，老板跑了，公司倒了，一夜间，康宙沦为下岗人员。

为填补家庭负债而借来的钱已经有了够多的利息，债主也胁迫他。

根本谈不上“百岁时代”的准备，为家人留下的只有家庭负债，就在被逼到生活尽头的那瞬间，

有个债主胁迫康宙“用器官换钱”，这时他看见了债主头上背着的小孩鬼魂，

拿糖果做诱饵，摘除鬼魂。

治好疾病的债主延迟债务的偿还时间，一个礼拜

这时，他脑海里浮现了一个事业点子，就是利用他一辈子都不要的能力，

像诅咒的这个能力——看见鬼魂，展开一门退魔事业！

可是，不用提他对退魔一无所知，没有见过恶鬼，即使看到也没能力驱逐它。

康宙编出来一个崭新的想法，向鬼魂——丘天建议合作。

这就是，**丘天假装做一个恶鬼，折磨客户，康宙当退魔师，驱逐丘天！**

简直是完美无缺的诈骗剧。康宙赚钱，丘天把自己的份留给家人，解脱跟钱的仇恨，可以离开人

世，最后决定携手合作，谋求双赢的康宙和丘天。

被逼到尽头的康宙能否成功做到前所未有的退魔诈骗事业？

从未见过的退魔师与鬼的商业合作！

与鬼做戏的爽快退魔诈骗剧，即将开始！

对老婆和女儿，瞒着自己下岗的事，跟丘天同居准备新事业的康宙

找一个胆小的客户—>丘天在客户家闹一个超现实的现象—>康宙过来做退魔。

按照这个程序做宣传，遭到小学生无数的恶作剧电话也不放弃，辛辛苦苦捞到客户，

但鬼对人世能起到的物理力量是微乎其微的

忙着糊口的人们没有余力反映丘天的吓人法

而因金钱，毒气冲上的康宙和

胆子太小的模范鬼魂丘天之间的合作默契，一开始就遇到挫折。

鬼魂附在人身上，**就可以发挥可怕的力量**，康宙折腾丘天

丘天却说，**只有帮魂灵解开仇恨的人才**可以使那个鬼附在身体，不然不行。

他那伟大的事业快要崩坏的时候，家乡的父亲打电话找他。

父亲说家家都有鬼，人们纷纷离开家乡，问他首尔有没有很灵的巫师。

在这时刻，黑暗中有了一道光芒。城市人觉得星期一比鬼还可怕，

不然针对已经很怕鬼的家乡人们展开退魔诈骗？

康宙跟家里说要去出差，与丘天一道赴他的家乡**“好老面”**

好老面果然是康宙梦寐以求的蓝海！

已经很怕鬼的村里人看到康宙那生疏的退魔行为也作出很精彩的反应，他的事业如火如荼地红起来。

但这不愧是个附鬼的村子，在村里处处真的发生奇奇怪怪的现象。

这时，康宙通过丘天，发现村里的“鬼事件”其实是村里的黑帮为廉价购买村里的土地，逼村里人抛

弃家乡，而准备的**“假的鬼秀”**。

进一步追求这一新鲜的再开发计划，知道了这黑帮幕后权力人的目的不只是土地，**而是垄断在村里富有的稀奇资源——稀土元素。**

康宙为保护稀土元素，暴露黑帮一行的诈骗行为，驱逐他们。

黑帮人员找自己的赞助人兼这一切**诈骗剧的设计人——姜议员**，求他帮忙。

从财阀家门出身，在担任第四届议员、被称为大有希望的下届市长候选人的姜议员雇佣了黑暗的退魔师——**车神父**，

在非法世界恶名鼎鼎的车神父像康宙一样，利用能与鬼沟通的能力，

带着一个恶鬼当手下，不顾手段或方法，得到企业或政治人士所要的目标，

比康宙贪欲更大、更恶劣的一个**退魔诈骗人**！

而且车神父有**灵魂附身的能力**，将恶鬼附于居民身上，在好老面促动血腥残酷的袭击，康宙人生首次面对恶鬼，毫无力气的给恶鬼打败。

终于，车神父揭开康宙的诈骗行为，从村里赶走康宙。甚至，车神父以诈骗罪告康宙，所以康宙家里的太太和女儿都知道期间康宙到底做些什么事情。

雪上加霜的，好老面因为有鬼，人人都在不像话的低价卖出自己地板，离开家乡。

好老面完完全全地落到姜议员手里。再加上

传出了一则新闻，在好老面坚持到最后的老人们因故死亡。

这时独居老人的问题浮出水面，康宙才知道这是姜议员最主要的选举承诺。

为垄断稀土元素资源，还为自己选举承诺牺牲村民的姜议员，

现在，姜议员要用好老面最后的一个老人——康宙父亲，装成自杀案件，

试图完全清空整个好老面，并强调老人自杀问题，作为自己选举承诺宣传的大结局。

康宙还发现自己的太太和女儿也去探访父亲……

康宙不顾丘天的劝阻，急急忙忙走向好老面。

面对为自己的权力雇佣恶鬼、毫不犹豫下手杀人的姜议员，康宙能不能救出自己家人呢？

退魔诈骗团，做真正的退魔！

到了好老面，已经被恶鬼附身快要自杀的父亲，在阻止的太太和女儿，康宙、丘天和怨望死去的村里老人的鬼魂也助阵加力，辛辛苦苦阻止父亲。

那瞬间，车神父将恶鬼附上女儿身上，要杀死康宙

无法与女儿打斗的康宙向恶鬼真诚诉求放过女儿一条命。

做到恳切的沟通，透露自己悲痛故事的恶鬼，

此刻，康宙恍然大悟，自己能看见鬼魂就是因为**要聆听他们的故事，安慰他们**。

康宙安慰恶鬼，解放怨恨，**在康宙身上也出现了有能力让鬼魂附人的标志**！

这时恶鬼要变善，但车神父将他附在自己身上，以可惧的威力攻击康宙。

一触即发的瞬间，康宙向丘天传达一直没有表现过的真心话，

成功将丘天附于自己，就这样，

康宙-丘天，车神父-恶鬼，各自合为一体的双方展开正面对决！

附着恶鬼、以蛮劲打斗的车神父，首次附鬼的康宙与丘天打不过车神父。

同时，在一起的姜议员和他的黑帮每当威胁家人和父亲的时候，

康宙像玩球一样，将丘天附在黑帮身上，用各种各样的方式队杀。

最后康宙与丘天实现完美的互动，打倒车神父，解放恶鬼。

将丘天附于车神父，让自己打倒自己，然后自首，安然救出女儿的康宙。

康宙还让丘天附于逃掉的姜议员。在国会直播上自己透露自己的犯罪，

还拉与腐败勾结的一家人，在大街上暴露所有犯罪，**在国民面前做一场像汽水般爽快的单人修**。最后，一一被揭开所有真相，被逮捕的姜议员及其一行。

丘天从自己的怨恨解放，但因介入人世，无期延长了要在人世漂流的时间。

可是，上天给他宽大的处分，如果丘天像现在一样一直为怨望的人积德，可以离开人世。

就这样，康宙与丘天留在彼此身边，

通过与鬼的真诚沟通，解放他们的怨恨，让鬼魂离开人世

同时，惩罚让这些鬼魂牺牲的恶人，把适当的回报还给牺牲者家属，

不是扫除恶鬼，而扫除比恶鬼还恶毒的“恶人”

他们就史无前例的善意退魔团。

The END.

Driver (司机)

李承炫



1977年首尔出生。
首尔汝矣岛高中（毕业）
东国大学印度哲学系（中途辍学）

简历

2008 沈山学院 剧本班上级朴献秀（音）班第4届
2008 第3届国际大学生和平电影节(icpff)活动组组长
2011 Nexon有限公司釜山工作房 Centum互动内容企划组
2011 沈山学院刘大宪班（音）/类型班（爱情，惊悚，爱情喜剧）
2012 电影产业实务教育第7届（导演）进修/短片“爱你”PD

获奖或评选

2013 电影振兴委员会剧本市场第一季度：《Flower Town》，3月推荐
2013 电影振兴委员会剧本市场第二季度：《外遇的香味》，6月推荐
2017 CJ Story up 第8期/ O'PEN电影第1期《接线员》

创作作品

2014 NAVER网络小说《My First Lady》连载
2014 KBS短篇电视剧《丑陋的爱情》改编/演出部
2015 长篇电影《没有的事》剧本
2016 电影《手机（The Phone）》中国版本-华册联合
2017 《心灵的粮食》春季号，随笔撰稿，共9篇
2018 短片《接线员》剧本/导演

作品意图

开着1.5吨级冷藏卡车，到餐厅配送蔬菜的一个男人。
可是他的真实职业是“尸体处理师”

到最后配送地点的仓库，不时地会有一个大布袋。
他的承诺就是不要问也不要计较死去的是谁或谁为什么杀了这个，直接把他处理。

有一天，
在一个布袋里，终于见到了梦寐以求的妻子。
他问她，为什么离开了他？怎么会这样回来？什么回应都没有。

无法与妻子沟通，让她离开的男人。
这是一个故事，关于一个男人揭开妻子死亡背后的故事，
错过了时限才能理解她，得到较迟的救援。

剧本大纲

松允武(42) - 年轻时，曾当过老头的手足，金必手下的“没用的人”
与善颖初次见面的时候决定，为救她一命，永远从世界躲避。
但她离开了，两人之间的女儿——仙珠的踪影也是一头雾水，
但善颖一个人回来了。
现在！为了善颖和女儿，决定摘下脸上的面罩，走进世界，做家人的复仇。

高善颖(34) - 有中小企业老板的父亲，上音乐大学的研究生，曾经是个金汤匙的典型，一夜之间经历了灭族。连自己的生命也受到威胁，立刻察觉到自己不能回到之前的人生。决定一辈子当允武的女人，但也成为“失败的平冈公主”第二人生也给她挫折。为女儿，再一次要以新的人生摸索突破口，但那也是……

崔润贞(38) - 利用“道具”的残酷女人。这世界的人有两种，是家人，或是不属于家人的“道具”。她照顾上医学院的弟弟和音乐大学的妹妹。为家人，在”道具”面前，毫无慈悲。

金 必(44) - 嘴上整天挂着“思考”这个词，但在这思考里面没有道德律。奸恶的单细胞合并其他细胞，把自己变庞大。受理自己的老头也是这样，围绕自己的所有势力，都是为自己王国的养分。

松仙珠(6) - 松允武与高善颖的女儿。如果像他爸爸，会过得很辛苦。但根据近期被发现的遗传法则，她像母系的智力。聪明，开朗的孩子。但现在，这孩子处于危险。

黑暗的凌晨，蔚山城区的街道，松允武（42）的冷藏卡车寂寞的开着。他的后方镜子上挂着一个小相框，里面是妻子高善颖（34）和女儿仙珠（6）一起拍的照片，一直在晃动。允武每天到晚上7~9点开始拍卖的蔚山农水产品市场，购买蔬菜，巡回各餐厅供货。每天的终点站是主要卖先农汤的大型餐厅“老洪家”，到这店供货后，他一天的日程就结束。但一个月一两次会受到还没有见过面的金室长简讯，“东西放在仓库里”。受到这个简讯的那天，在‘老洪家’的蔬菜仓库一方准有一个布袋。这时候，允武先处理他的蔬菜，把布袋放在自己卡车。然后奔向自己平时已经挖个土坑的野山，静静的为亡人举行自己的仪式，把布袋埋下去。然后再开车去先前看好的另外野山，挖好坑、用木板伪装。这些过程都是很正确、有反复性。在处理事情的时候允武有自己的原则，那就是无论如何绝对不要打开布袋，看看死者的脸。

较晚的上午，刚起床的允武避开拥挤的人们，跑腾好几个野山，先看好下个土坑的候选地。在这些过程中，允武拿整瓶的马格利酒喝，安慰自己的寂寞和丧失带来的痛苦。下山的允武给儿童中心打电话。这是为了确认是不是3年前离开自己的太太善颖把女儿仙珠委托给孤儿院而做的。但他听到的只是目前没有名叫仙珠的6岁女孩。

[过去]
6年前的善颖（28）是中小企业老板的千金，在音乐大学研究生院里学钢琴的”金汤匙“。她的人生

除了早失母亲之外，世界没有什么让她羡慕的。但有一天，父亲的事业突然间支离破碎，善颖则一夜之间被踢出到街头。找不到爸爸和哥哥的行踪，有人跟留下的善颖说爸爸在找你，她就被这句话上当、绑架了。

善颖的身体被捆绑，躺在一点都不卫生的一间手术方。跟她说谎，绑架的人就是松允武（36）。允武的老大下命，拿出善颖的器官，但允武觉得这不可惜。因为善颖太美了，舍不得。允武的上司金必（38）是这样说的。

”你这家伙，，懂一些武术，说什么都答应了，你还不快醒一醒？！你把她做鸡，什么时候能赚钱？1年顶多赚5～6千万？是你来管理吗？ ＊＊*妈的！难道你不知道老大的脾气？”

开刀的施术者来之前，只留下允武和善颖。醉酒的允武心疼地望善颖，善颖说服他。跟我走吧，我命运注定了一辈子都要到处逃跑，如果你能保护我，我就嫁给你。小时候，曾经是个跆拳道妖人，全因不幸的家庭，混在下流社会的允武。善颖不顾允武现在的模样，一下子感觉到本性是善良的人。但是

“不要”
允武一口拒绝他，“我不相信女人”，说着，摸摸善颖的身子。这时，施术者进来，允武从善颖走开。施术者像机器人一样，专注于善颖的麻醉。善颖被捆绑在床上，等待自己的死亡，望着允武。允武努力躲开她的视线，善颖被陷入麻醉之前允武击倒施术者，拉着善颖的手，逃出地下手术房。然后上山下田，到处流浪寻找两人能躲避的地方。

[现在]
黑暗的凌晨，蔚山城区的街道，松允武（42）的冷藏卡车寂寞的开着。今天受到了金室长的简讯，在《老洪家》一定会有布袋。允武的眼睛在寻找布袋，看见了一个大包包。上面的拉链是稍微开着的。挪动包包的允武，在包里看见了闪亮的一道光，照自己原则绝对不看里面。
在山上埋藏之前，掉落大包的允武，拉链再被开了，从里面落出一只手。允武要把手在放进去，注视到苍白的女人手上戴着一个戒指。刚刚闪亮的那个东西，原来是戒指。
但是！！那戒指正跟6年前自己给善颖买的戒指一模一样。允武打破自己的原则，举起颤抖的手，拉下拉链。允武不敢，可是做深呼吸，再确认女人的面孔。天啊！死去的女人是3年前带女儿仙珠离开自己的高善颖。
允武一下子崩溃，下跪呜咽。

允武又不能报警，因为自己过去做过的事情。再冷藏卡车上搭载的高善颖尸体。一度陷入恐慌的允武，有一段时间什么都不能做。有一天，允武以自己的方式装殓，把善颖埋葬。“我带仙珠回来”要找仙珠，先要追溯善颖的死亡。允武向之前从未给回复的金室长发简讯。[出了些问题。想要赶快见面！] 金室长一整天没回应。允武从银行取钱，正要喝点酒，可能是因为他的心态变了，自己的人生当中第一次主动忍住喝酒，开始苦思冥想。
‘离开我的3年里发生了什么事？仙珠现在在哪儿？’
当他这样冥思的时候，金室长发简讯问什么事。

[过去]

蔚山附近的小渔乡。允武和善颖在那成家生小孩。老大和金必，不寻允武和善颖。那是因为现在忙其他的事情，找回他们的利益并不大。允武在小渔船工作，两人生活幸福美满。

可是善颖的外貌成祸端。不知从何时，搭船回来的允武开始怀疑善颖。村里人像开玩笑似的赞美善颖的美丽，允武开始对此做出反应。允武的幼年与善颖不同，极为残酷。妈妈偷情逃走，为从酒鬼爸爸保护自己，自己主动去孤儿院的允武。与健康成长的善颖相比，肯定站在她的另一个极端。

但天生开朗、贤惠的善颖平息允武的不安。当允武的不安达到顶点，快要动手的时候，善颖与其大声吵闹，不如抱紧允武，努力让他放心下来。得益于善颖的智慧与持续努力，允武找回稳定，相信她。

但善颖心想，为仙珠的将来着想，允武也不能一辈子干别人渔船的活。这次在镇上出来了一个能开车行店铺，善颖希望允武先练技术，以后借款也好，把那个店铺买下来。善颖总是希望更好的未来，允武反而觉得善颖总不能满足现实，老昂着头渴望上面，而这是因为她怀念“过去”的光荣。同时开始误会，她对与自己的结婚生活慢慢厌倦。所以他们之间频发争吵，略带失败主义、慢性懒惰的允武，对总是追求假象的善颖开始逼迫。

[现在]

在工场外围的仓库，出现金室长和他的手下们。允武跟金室长说，尸体消失了。金室长大怒，开始到处打电话确认，包括《老洪家》。《老洪家》那边说，他们的监视器被破坏了，刚刚报警。这是对《老洪家》了如指掌的允武干的事。慌张的金室长，让允武回去，自己也离开。金室长好像不怀疑允武，因为在3年多的时间里，允武一直没出问题，事情弄得很顺、很准，也没有理由挪用尸体。

允武偷偷跟踪金室长，等他留下自己一个人的时候。终于，金室长自己一个人的某个小巷。允武靠自己通过跆拳道和黑帮时的经验锻炼出来的技术，轻而易举制服金室长，在金室长的手机里找出刚刚打过的电话号码。

[过去]

陷入失败主义的允武，善颖在他面前拿出自己期间积存下来的钱，但他没有赞善颖，反而显得不高兴，善颖深感失望。允武已经陷入极度的失败主义和习性。

善颖不受挫折，心想在这小渔乡不能期待仙珠与自己的美好未来，跟首尔的亲属联系。善颖的这些行动与其说是因为她不爱允武，不如说善颖要告诉他外面有另外一个世界，另外一个环境。因为善颖能理解，据允武所看、所感、所学的环境，现在的失败主义和习性是很自然的结果。

有一天，听到善颖消息的父亲来找她。为一场的卷土重来，跟善颖哥哥秘密准备新事业。再忍一下，你很辛苦。爸爸这样说，善颖没法说出仙珠和允武的存在。

送走爸爸后，善颖再说服允武，车行已经来不及了，只能放弃，可是靠自己存下来的钱，计划新的生活。但允武谴责她，“你总是望着高处！所以才怀念过去！！”，出去喝酒了。从那天开始的。仙珠3岁，善颖决定离家出走，先在外面准备新的生活，再来找允武。

善颖带仙珠出来，决定帮爸爸。跟爸爸说，允武搭上远洋渔船。他回来的一年后，自己也会回

去……收购小器皿厂梦想卷土重来的爸爸和哥哥，再度面临苦难。被骗了。雪上加霜的，那些诈骗人给之前的债主联系，父亲、哥哥和善颖要半夜潜逃，善颖却把自己带的钱交给他们后散开了。

弄到小窝的善颖，不分什么工作，有什么就干什么，拼命赚钱、存钱，其中能用上自己专长的酒吧演奏的收入算不错。当时没想到这会造成问题……店主想要善颖做自己的女人，饮料里放了毒品，危机中辛辛苦苦打起精神的善颖，幸好从店主手里逃出来。但还是落到晋州产业园区周边皮条客手上，见到了将小姐视为“道具”的崔润侦。

崔润侦（实际人物、实际事件）跟小姐们要求做整容，跟整容医生迎合，谋求差益。崔润侦想方设法，动用所有的手段吸取小姐们的“膏血”，给她们套上圈套，以防逃跑。崔润侦还让小姐们集体居住于一个单间公寓，这里的红外线监视的并不是外部入侵者，而是里面的出逃人。

崔润侦为防备她的妓女让客户帮她们的逃跑，偶尔用自己人装作镖客，考验小姐。陷入他陷阱的小姐该要承受应当的报复。初次见面的时候，披着好人的面具靠近善颖的崔润侦。她向善颖建议单纯陪酒的酒吧小姐工作。已经受过诸多艰苦但还天真的善颖，没有太大的抵抗，答应了崔润侦。崔润侦还提供仙珠的养育补贴，她相信崔润侦是好人，听从崔润侦。

但当崔润侦的真面目被揭开，威胁善颖当公寓妓女（在单间公寓做卖淫），但善颖拒绝它。崔润侦拿仙珠强迫，威胁善颖，善颖感觉到不能撑下去，决定逃脱。英植叔叔（28）平时常常帮助善颖，善颖请他带仙珠在某处见面。英植在自己没有受到影响的帮助下帮助聪明的仙珠，给她妈妈的纸条，让仙珠先到那儿等妈妈。终于，与共同居住的6名妓女一起逃跑的善颖。可是，与这6名妓女一起，给崔润侦的手下抓到。

[现在]

一个接着一个，追溯善颖死亡的允武终于见到崔润侦。允武在远处观察崔润侦，发现抓住小姐的公寓里没有特别的监视体系，成功潜入到公寓。包括善颖在内，逃走的7人都已经被抓回来，其中善颖和一个小姐已经不知行踪。

允武接触到善颖生前最亲近的小姐美兰，从她得知了善颖为什么离开了家，善颖每天说的“要赚钱回去接允武”，这句话成她的口头禅。而且她并不是抛弃给自己新生命的允武，因为允武兑现了会保护自己一辈子的承诺，想将允武做“温达王子”。

允武慨叹自己对善颖的误会。面对善颖的华丽过去，允武心理总抱着自卑心理和不安。当善颖说希望的时候，允武听到的不像是希望。当时的允武认为她一直否定现在，一直在造借口离开自己。

美兰继续说道。

善颖被崔润侦抓回来后跟另外一个小姐一起，转移到另外一个人的手上。可是那个人，就是以前允武的上官，金必。金必认出了善颖，激动地问叛徒允武的所在。善颖到底没有说允武在的地方。这可以说是善颖给他的回报，因为允武救了她。但善颖要付出闭口的代价，最后她这样死了。

知道所有真相的允武，现在才感觉到善颖那深深的爱，悔恨莫及。但马上想到还不知行踪的仙珠，觉得迷惑。不知道崔润侦对仙珠动手，当成对善颖的报仇。

允武收拾好准备的道具、武器，去找金必和崔润侦。

开始复仇的屠杀。

金必一行他们终结了生命，允武杀死崔润侦之前，她说出仙珠的事。英植在好好带着她。聪明、乖乖的仙珠，崔润侦在仙珠身上感觉到“家人”的温暖，她虽然对善颖非常残酷，但对仙珠赋予了世界上唯一的“家人”资格。

小姐们从公寓解放后报警，警察接到申报后到现场，允武让他们处理崔润侦，自己带仙珠离开。

几天后，

与仙珠一起来到善颖的墓。允武不停的流眼泪，狂喊。没有告诉仙珠这是谁的坟墓。平时自己和善颖各自紧紧握着项链当成爱的象征，仙珠把这个项链还给妈妈，说“妈妈，拜拜！”，帮允武擦眼泪。

在仙珠怀里哭泣的允武。

松岛

赵Samuel



1977年出生，毕业于西江大学新闻广播学系
想成为做出好故事的作家。

创作作品

2005 电影《格斗术》改编
2007 电影《麻婆岛2》剧本
2008 电影《猛男诞生记》改编
2012 电影《音痴诊所》改编
2014 电影《恶人还活着》改编
2014 电影《地狱奶奶》剧本
2017 电影《普通人》剧本

作品意图

填海制作的土地，在那建立的大厦里，各自不同的欲望互相冲突，形成悲惨世界，一起看看那个片面。

剧本大纲

张泰山/金贤真（男，28）为了报仇，隐瞒真实身份，停留在敌人身边的人
朴昌晋（男，41）想当一个世界的主人，投入一切的人
朴慧信（女，24）以爱憎注视漫长、激烈斗争的人
老 赵（男，54）在肉食动物世界里，生存到底的人
申赏欢（男，68）上个时代的王。想要决定新一代霸权的人

由于突然的事故，失去父亲的少年张泰山（8）流浪几个亲属家，终于被送到一个保护设施。设施给他起了新名字“金贤真”，泰山沉默寡言、为人镇定，可是如果有人要折腾他，泰山总会激烈反抗。泰山从不在乎孩子们的争席，所有的精力放在学业上，考上韩国顶级的法律大学。司法考试、大企业的特别招聘、国会议员的助理等，所有的机会都在等着泰山来抓住，但毕业的同时，泰山抛弃这一切，潜逃了。那是因为脑海里一直浮现20年前遭到可疑死亡的父亲。

1998年，位于南仁川的荣一市场。对泰山来说，市场就是他的家乡，他的家，他的游乐场。市场繁荣会会长是泰山的父亲张祥弼（43），他代表租房的市场商人，抵抗、阻止市场的再开发，终于被对立派的一人杀死，他的死亡伪装成自杀。张祥弼的死亡背后，有建筑公司和地区黑帮的指使，亲自动手的人是朴昌晋（21）。朴昌晋有盗窃前科，但有了张祥弼的帮助，能够在市场当脚夫打工，小泰山叫他小叔叔，他们俩过得很投契。在鱼店的大梁上吊脖子的张祥弼，最早发现他的是在阁楼刚睡醒的泰山，泰山清清楚楚目击到急忙离开店铺的昌晋。

时隔20年回仁川的泰山（28），直接到荣一市场。原来是在海滩的市场，经过松岛围海工程变成内陆。腥味扑鼻的传统市场上新建了叫“百万城市（million town）”的服装商场，现在连那个商场也有所显旧。泰山在附近租了一个廉价小房间，给顶费买下商场的脚夫工作。商场的商人们喜欢老实、寡言的泰山，自然把事情交给他来处理。尤其在5楼卖布料的老赵和9楼名牌店的慧信就这样。不怎么需要脚夫的慧信，时而找泰山，请他来处理一些杂活。泰山把货物搬到商场每个角落，商场里流传的所有风闻自然而然流入到泰山的耳朵。从整个商场怎么运行、管理室和商场繁荣会做些什么事情，到负责这一切的代表管理人兼商场繁荣会会长朴昌晋（41）有关的信息。

慧信心疼泰山只当脚夫，在商场基层管理人的岗位上推荐了他，老赵也签了他的推荐书。这样参加面试的泰山终于面对昌晋，昌晋已变成端端正正的企业家。20年前目睹父亲死亡的那一刻，趴在阁

楼时的感觉再度笼罩泰山。然而朴昌晋一眼都没有好好看，直接雇用泰山。就这样，泰山进军了朴昌晋的地板。但是泰山的工作只不过是24小时不断运行的管理室内轮流值班。泰山不能再靠近昌晋，只能打发时间，这时候泰山被动员到一间店铺的封闭工作。这个店是老赵的，他帮助过泰山。表面上这个店有一些违规等根据，但真正的原因是老赵一直在公然表示对繁荣会费上调的不满。老赵从荣一市场的时候开始做生意，拿布料剪刀自残，强烈抵抗，鲜血淋漓的现场，站在前面的是泰山。泰山向老赵提出仲裁方案，冷静解决情况。这起事件后，朴昌晋开始关注泰山，给他一次机会，说你自己搞的事情自己收拾。泰山帮老赵把店铺回到正常轨道，让他缴纳拖欠的繁荣会费。由此泰山获得商人们的信任，也得到朴昌晋特别的关注。老赵缴完繁荣会费的那天，泰山被朴昌晋指定为他的个人司机。

站在荣一市场再开发前头的朴昌晋，以此代价他占据了繁荣会利益权的一部分。以此为基础，花几年的时间消除反对的一方，吸收他们的份额，这样反复了几次，终于掌握繁荣会会长地位。现在的朴昌晋不仅拥有百万城市的股份，还拥有周边多数商场的份额，而且用暗息借款控制小商贩，这是他公然的秘密。泰山当朴昌晋的司机兼秘书，履行‘上供’有关业务，在那隐秘的商务场合上认识了大学前辈，地方检察官，通过他开通了一个关系。这样，泰山慢慢获得朴昌晋的信任，小心翼翼地，开始摸起心理设计已久的复仇之刀。反而，对朴昌晋的忠诚带来非常甜蜜的代价。泰山以公司的名义利用公寓，开新车，穿最顶级的西装。他跟检察官或警察干部，有时候还会跟国会议员做事，泰山的生活水平一度飞跃，一直关注他的慧信变成他的恋人。

朴昌晋是又合理冷静、又大胆的人。他心里怀着极大的野心，但同时很贤明，面对事情不会过线。他的私生活也清白到令人惊讶。朴昌晋是在仁川土生土长的本地人，围绕松岛管辖区厅发生的延寿区和南洞区的势力较量中，他助长双边的纷争或寻求平衡。谋求自己的利益。这不只是看重庞大税收的基础地方政府之间的问题，而是关系到站在朝野双方的国会议员、仁川市长、京畿道道知事的巨大的利益卡特。这公然，又隐秘的卡特现在把眼光转移到新土地，永宗岛赌场建设工程。名为“皇帝城工程（股份有限公司）”的综合度假村事业。已经保障巨额利益的事业，参与这项事业的资本来自黑头发外国人建立的香港有限公司，还有韩国顶级的建设公司、金融机构以及仁川都市公社等11个单位在里面。新任的仁川市长一上任就把协会的代表更换成自己人，朴昌晋则拿没有实权的草包当新的代表，干预到事业深层。在这样的复杂局势当中，朴昌晋是北仁川势力的核心，掌握包括前任仁川市长的北仁川本地资本，他以失职渎职罪搞赏欢建设申赏欢代表的扣留，终结长达10年的主导权争夺战。通过这些过程，泰山在朴昌晋身上学到不少东西，了解他。朴昌晋也像对待儿子一样，疼爱泰山，当他自己的继承人一样对待。泰山在朴昌晋的身上感觉到过去20年不存在的父亲之情，心里慢慢产生混乱和矛盾，对他的复仇也犹豫不决。

资本与权力的魔窟里，过着忙碌生活的泰山，有一天看到朴昌晋进去慧信的公寓。无法跟她联系的几个小以后，慧信骗他，说自己睡觉了。泰山对慧信感到背叛感，对昌晋感到劣败感。泰山向昌晋

或慧信，都不敢问真相，但依然很难过。这时在帐篷马车里偶然碰到老赵，开始一起喝酒，喝醉的老赵看穿了泰山是张祥弼的儿子。老赵训斥他，你到底能不能对得起你父亲。可是第二天酒醒后，老赵不记得自己认得泰山的事。从慧信、昌晋触发的这种复杂的感情促使泰山，赶紧开始做复仇。泰山受到学校前辈——地方检察官的帮助，拿到昌晋的双重帐簿和上供名单，交给检察部门。过几天，昌晋在泰山眼前，在自己的办公室里被扣留。好像已经都知道似的，淡然站起来的昌晋。泰山不能充分享受自己那么期待的复仇成功的瞬间，躲开视线。

尽管朴昌晋被扣留，百万城市依然显得和平。没有周边人的反抗，也没有商人的动荡。可疑的反应当中，泰山默默准备选出下届繁荣会会长的会员聚会。可是连疼爱泰山的老赵也说，做了不必的事情，不理他。第二天，昌晋很快被处于暂缓起诉，堂堂回到百万城市。昌晋好像什么也没发生一样，让泰山泡一杯咖啡。吓坏的泰山直接离开办公室。在混乱和混沌中背着百万城市逃走的泰山，碰到正等他的一些健壮的男子，之后毫无力气的倒下来。远远的，可以听到海浪声的、在一个仓库里被孤立，衣服都被脱掉，头上戴着头巾，残酷被殴打的泰山，皮开肉绽，血花四溅，骨头被断。泰山不知道，可是朴昌晋在上面静静的看着崩溃的泰山。很长时间，他看着泰山，一句言都没有，转身而去。不知几个小时，地狱般的时间终于过去了，揭掉头巾的陌生人的手。他们穿着警察制服，泰山手上戴住手铐。

坐在学校前辈检察官前面的泰山，听他说话，现在的朴昌晋太大了，已经中国、拉斯维加斯的资本参与他的赌场事业，他们是如果没有安全装置，不会投资的。这所谓安全装置是指超越市长、道知事的那上面，政治权力的最顶楼。检察官忙着照顾自己说，自己都差点没工作了，泰山在他前面使劲地磕碰自己的头。从朴昌晋受到的公寓、汽车等资产被认定为贪污证据，泰山被判为1年徒刑。穿囚服，紧闭嘴巴的泰山。小时候的泰山拼命地拔除心里扎根的小石头，现在不一样了，没有任何抵抗，，忍受一切痛苦。有人一直申请会客，但泰山好像惩罚自己，每次都拒绝。另外，泰山持续受到收管金。在监狱里，有个视线一直在盯着他。那是被朴昌晋肃清的赏欢建设代表，申赏欢（68）。现在不能直接出面的申赏欢，想把泰山当他的脸。泰山开始从申赏欢的身上吸收新的经验，申赏欢的性格与朴昌晋完全不同。季节换了两次，泰山终于到会客室去，见慧信。泰山这时得知了慧信是昌晋在十几岁的时候生的女儿。而且昌晋把慧信交给奶奶，一直骗人，他是叔叔。泰山再感受到自己的不成熟和冲动，以复杂的心思再接受慧信。慧信愿意和泰山离开这里。但泰山的心底没有那么简单。泰山没获得假释，坐满刑期，有人的收管金继续连续。

泰山出狱的时候变得很瘦，和等他的慧信一起回她的家。慧信说一直做好准备，马上可以一起离开这里。但那天晚上，老赵悄悄找他。原来给泰山收管金的人是老赵。老赵一开始就知道泰山是谁。只不过是喝醉的那天不知不觉说出了真实，老赵是很长时间紧紧保护秘密的。泰山在慧信背后偷偷去见老赵，在那儿见到对朴昌晋的高压掠夺和垄断表示反对的人们。他们把泰山视为能对抗昌晋的唯一筹码，挽留泰山。泰山想起，小时候常来找父亲张祥弼的商人们，泰山在他们面前宣布要夺回

朴昌晋的一切，直接跟申赏欢请求支援。传闻听到这事的慧信只好离开泰山和昌晋。

泰山从老赵接受店铺名义权，以入住商人资格再度进军到百万城市。昌晋若无所事的到泰山的店铺送鲜花，表示他很大方。自然成为繁荣会会员的泰山，宣布要参加会长选举，开始与昌晋的正面对决。表面上是一个新旧势力的和平竞争，但其里面是威逼利诱的分派争吵，也是可保障其背后的利益、分灰色资金的事。临近商场的商人排斥百万城市，联合举办大特价活动，毁掉百万城市的销售额，双边的纷争很快开始显现。但真正的矛盾在皇帝城事业的霸权。泰山以赏欢建设的资金力量为后盾，开始攻略跟中国游客有关的仲介（帮赌场收费拉拢客人的合法事业）。泰山提出破例的手续费，与昌晋之间产生杂音，让几个人脱离。举办地方选举和总选举之前，泰山利诱、侵吞一度陷入混乱的昌晋的政治伙伴。昌晋依靠执政党的地方政治团体长，推进的种种许可以及条例修改工作遭到泰山一方的在野党基础团体议员们反对，被无限推迟，甚至一些被失效。现在泰山的手上有将近40%份额的委任状，这几乎与朴昌晋的份额差不多。泰山的份额够阻碍事业的进行，但也不能拥有决定权。这开发工程的关键在于仁川都市公社，那么他们的胜败取决于如何利诱仁川市长。但是朴昌晋牢牢掌握市长，泰山只好找市长的上面。泰山追溯到道知事、国土交通部、文化体育观光部及国会等上层部拉上关系，仍然找不到好方法。

大概这时候，泰山发现朴昌晋为留住资本，夸张出售率的情况。朴昌晋用借名收购了相当多的工程出售用地。泰山决定无论如何要查清这个，动用所有的关系，面对惊人的事实。原最大股东的香港偷偷把自己份额从50%减少到28%，事实上由政府资金——仁川都市公社收购了其份额。仁川都市公社因为受到市长压力，而市长是受到国会和政权的影响而做事的木偶而已。皇帝城根本不是下金蛋的鹅，而是个无底洞。总的来说，朴昌晋就像用后丢掉的围棋子。不久小股东都会一一落掉，不管再努力延迟，有总统选举的2年后将会面临破产。一片空虚袭击泰山，可是再收束自己。我没时间沉浸在无力无气的感觉。朴昌晋应该已经准备好自己的出口战略。泰山察觉到真是脉络的那时候，朴昌晋叫泰山到松岛的一家酒店。昌晋夸泰山，维持跟自己平起平坐的势力。他接着说泰山的父亲张祥弼也是地方黑帮的老大，在势力争夺中被推翻，原打算以市场再开发事业谋求东山再起。但张祥弼终于没能再站起来，而死去。慌张的泰山，昌晋继续告白或骗人。当时，昌晋玷污了自己的手，但下命令的人是当时老大，申赏欢。昌晋的话听起来很有可能，泰山一度觉得混乱。此刻，朴昌晋向泰山提出迷人的妥协建议。犹豫的泰山，终于拒绝昌晋的建议。昌晋感觉到泰山坚强的意志，说不管这场斗争的结果如何，你做的真棒，然后走了。泰山心想为了确认昌晋说的内容是否真实，一定要赢，付出所有力量，准备最终章。

剩下的时间不多了，朴昌晋也为保护自己的地板兼皇帝城工程的财源——百万城市，全力以赴。已经向商人放暗息借款的朴昌晋，以回收本金为借口对商人施加压力，同时付加价买下店铺，确保投票权。昌晋的授权方式在很长时间里变得更坚固，很执着，很彻底。可是选举的前一天晚上，泰山抢过来原属于朴昌晋稳固地板的3张票，好不容易形成同率。朴昌晋与非主流联盟的全力对决，一段

时间看不到的慧信出现在总会场，行使一张决定票，以泰山的胜利而告终。泰然自若，为泰山举手的昌晋。泰山现在才能直直看着昌晋的眼睛。但不能看慧信。连声呼喊自己名字的商人们，泰山被他们围绕，一边微笑，一边盯着离开会场的朴昌晋，盯他到底。

那天晚上，泰山走向自己以前被殴打的那间海边仓库。那里，朴昌晋被绑住。泰山与昌晋，同一的地点，不同的处境。但昌晋要拿自己女儿慧信当人质，从泰山手掌中逃出。泰山却说，你不用拿慧信，我也会放过你的，但现在为了慧信，要杀了你。昌晋苦涩的眼神看了泰山，转身，在黑暗中消失。稍后，慧信面对泰山，可是还是不能开怀接受他，回避他。什么是真实，还是模糊。但泰山觉得自己做到在他记忆里父亲所做过的事情，认真考虑是不是要放弃一切，与慧信离开这里。

朴昌晋忽然消失，只有猜测他行踪的传闻源源不绝，是会在菲律宾、中国、澳门等。朴昌晋消失几天后，站在泰山一方的人们开始对反对方实施残忍的严惩，两者都没有选择、站在中间的人们也要受到难以承受的委屈、损失。压迫整个社区的巨大力量消失了，之前屏息小心的大卡们炫耀势力，显现大大小小的利益争夺。包括百万商场在内的全商业圈陷入极度的混乱，无力的小商贩开始痛苦地惨叫。松了一口气的大卡们开始向泰山施压，连老赵也说泰山还年轻，与其现在掌控实权不如先抽出时间再学学，让步会长职位。泰山做到原先的目的，没有特意拒绝他们的要求。但泰山所追求的是某种大义和名分，觉得自己过为天真，回味野生的残酷，如果你不吃别人的肉，你就会变成那个肉，给人吃掉。从脚夫到商人，从来没有要求太多，还是要付出代价，泰山看这些情况开始苦恼。慧信离开仁川的那天，泰山决定不要跟她走。泰山气派十足的来到繁荣会会议场就任为会长。预测泰山辞职，准备临时总会的人们开始慌张，但又不能露出。没有人反对具备合法资格的泰山。但也没有人真心欢迎泰山。战争再会发生。台风前的寂静。百万城市的顶楼，泰山独自一个人坐在椅子上，凝视下面灯光摇晃的南仁川。这时，打来一通电话。电话里的声音问泰山能不能做朴昌晋的角色。听不清楚泰山怎么回答。泰山挂电话，再凝视摇晃的城市灯光，然后看看玻璃窗上反射的自己。窗里面影影绰绰地显出一个男人，不知道是张祥弼还是朴昌晋。

连接

赵相凡



天真的小时候当电影狂，曾经相信电影会拯救世界

在忠武路电影现场经历过饱经风霜，口头喊不要冻，不要死，我们会复活
梦想把编故事当娱乐，玩得太累会躺倒休息的人生，现在活在那个梦里。

简历

2000 电影《无政府主义》花絮
2001 国民大学国语文学系 学士毕业
2003 东国大学影像大学院 电影影像制作学系 MFA（电影制作硕士）结业
2003 电影《马粥街残酷史》演出部
2006 电影《黑帮高中》副导演
2012 电视剧《Holy Land》副导演
2014 电影《人间中毒》副导演
2014 电影《老千2，神之手》剧本

获奖或评选

2003 短篇《鉴主簿传》获得大韩民国宗教艺术节宗教电影节评审特别奖
2004 短篇《鉴主簿传》被评选为第一届国际环境电影节短片竞选单元
2011 剧本《植物的私生活》被评选为电影振兴委员会剧本市场4/4季度共同推荐作品。

创作作品

2014 电影《老千2，神之手》剧本

作品意图

沉浸在贪欲的国际投资资本开始掠夺！在那背后获得巨大财富的官治金融的共犯们！
10万亿韩元的国家财富掠夺行动，基于孤星基金（Lone Star Fund）事件为基础的**金融犯罪惊悚片**。

剧本大纲

徐基哲（男，40）- 金石韩国的实习股市分析师

刑警出身的法学院律师，在对冲基金公司伪装就业，寻找Jason的腐败证据。

Jason朴/朴真宇（男，29）- 金石韩国代表，对冲基金管理人

华尔街企业猎人，买断韩国中小企业，阻止新圣集团的合并

李康俊（男，50）- 首尔南部地方检察院证券犯罪联合侦查团长，次长检察官。

汝矣岛死神，为阻止Jason的企业狩猎东奔西走。

李宪主（男，75）- 智库善在的顾问，李康俊的父亲。

前任经济副总理，要通过新圣集团合并，获取秘密资金

黑色星期一。股市一开盘蜂拥而至的卖出订单。股市连日暴跌，资金不够的中小企业遭到连锁拒付，破产。突如其来的金融危机，金融当局和政府忙着建立对策。有可能出现第2次外汇危机的决定性时刻，突然出现了黑骑士，进行激进的合并收购，这是国际对冲基金“**金石韩国**”，其背后有华

尔街的新星，韩裔**对冲基金管理人，Jason朴**。

他从收购倒闭企业开始，激进地进行企业狩猎，他所瞄准的最终目标是带动韩国经济的领头大企业——“**新圣集团**”。Jason朴反对新圣物产和新圣毛织的合并，大胆购买外人股权。股东大会表决

之前，新圣集团雇佣**说客南宰贤**，试图交易。但事情的进展并不如意，开始着急。

在幕后操控韩国经济，获取利益的Mofia（指财务部出身的人士），他们之间引起了轰动。最近的企业破产，给他们带来巨大损失，如果新圣物产的合并也化为泡影的话，他们放在海外资金池的借

名财产会变成垃圾。在某处秘密开智库会议的Mofia们。**前任总理李宪主**立刻直觉到最近发生的一系列企业狩猎与“K-star”事件有关。13年前，轰动全国的“**大韩银行非法出售事件**”。成为Jason朴食物的企业都是从那事件获取利益的人士所投资的。站在其顶点的就是新圣集团！李宪主如果要把长时间洗钱的资金拿到手里，必须要做到这个合并。他动员所有的媒体，强调国财流出，开始全力反击……

成功指导大企业受贿罪特检，由此得到“汝矣岛死神”称号的南部地方检察院**证券犯罪联合侦查团长**

李康俊。以Jason为侦查对象，彻底调查，但法律上他的企业狩猎没有一丝漏洞。席卷华尔街的韩裔企业猎人，领取业内最高业绩报酬的他成为超级富豪。他自己是信息战争的高手，但他的个人

信息却完全被保密。停止不前的侦查，李检察官找平时在法学院讲课时瞩目的人，**刑警出身的徐基哲**，让他伪装进入金石，调查Jason的背后。

“人生需要致命筹码的”，基哲辞掉刑警，上法学院，拿到了律师资格。但越不过高高的律师事务所门槛，被逼到人生悬崖，差点被沦为待业人士。他以特别录取为条件，接受李检察官的建议。基哲假装偶然的碰巧，接近Jason,获取好感。基哲强调通过刑警生活培养的动物般的直觉，**终于他的伪装潜入成功了，当实习员工进入金石**。

上班第一天，去法务组的基哲拿到生疏的职务，叫做**危机顾问**。名片上写的是顾问，但他的实际工作是偷偷调查合并对象企业的秘密信息。基哲的任务是调查Jason的信息，竟然还要调查企业的隐私。才懂得汇款，对金融一无所知的基哲，从那天起像准备律师考试一样，读破各种金融书籍，了解对冲基金公司的业务……从汉堡到啤酒、酒店，他们的手、他们的痕迹无处不在。他们以尖端金融投资的美名，展开一场合法的投机，基哲对这些诈骗人愤怒。

期间被压迫的刑警本性爆发出来，他不管现场会不会危险，搭建关系，收集资料，从企业内权力暗斗结构到秘密的隐私，把所有的信息拿到手里……基哲以杰出的业绩受到瞩目，也得到Jason的信任。他能够接近深层次的内部信息，隐藏自己的真面目，开始做Jason的调查，但Jason的信息从某种程度开始完全被保密。基哲需要更加完整的信任，从李检察官拿高级信息，让Jason敞开心怀，慢慢变成他的亲信……**双重间谍，基哲履行双边的业务，在其中危险地走绳子**。

金融天才们玩的华丽金钱游戏，基哲也不知不觉开始中毒，靠优秀的信息力量，成功做到大型收购案件，感觉到很过瘾的快感，手上拿到巨额奖励，慢慢沉浸在投机之中。Jason不仅拥有天才的实力，也懂得如何对待人们，基哲看中了有人情味的Jason，慢慢开始动摇。看起来Jason是一个完美无缺的冷血人，但可怕的压力有时候让他失控，基哲看他会觉得不知原因的怜悯……有一天基哲偶然拿到Jason的非法内线交易信息，同时发现他被保密的黑暗过去。

Jason朴的韩国名字叫朴真宇。过去因“K Star”事件而遭到疑问死亡的大韩银行的职员朴昌旭是他的父亲！**基哲发现，这一切都是为遭到怨望死亡的父亲做的报仇**。基哲收集各种资料，如处理成自杀的朴昌旭死亡事件记录以及零散的其他信息，慢慢接近案件的真相……朴昌旭是“银行自有资本比率”的编辑人，这是当时大韩银行出售的核心根据。特检传唤调查之前，在小车里发现已变成尸体的他和速燃煤，他的死亡里面充满问号。根据基哲在重案组培养的特有预感，这事件是一个巨大阴谋的决定性证据！

在新圣物产的合并赌自己生命的Jason,为阻止它将基哲潜入到这里的李检察官，基哲在这中间目睹

惊人的真相。如果给李检察官内线交易信息，会拥有律师事务所的未来，如果继续追溯疑问死亡的真相，可以捍卫自己作为刑警的信念。基哲在Jason和李检察官之间，开始严重的烦恼……渐渐增强压力的李检察官，Jason也让人盯着基哲举动。

抓他，我才可以活！基哲想起在金融危机的时候，放弃家庭的父亲背影。基哲自己没有的爱，可是为自己的儿子俊赫，什么都愿意做。最后，为保护家人的未来，带内线交易信息，去南部地方检察院……这时一起调查新圣物产资料的重案组姜刑警给他打电话。过去的外汇危机时，新圣物产凭借‘金出口’，获取增值税非法受领利益！

基哲转身去见姜刑警，**基哲现在知道了当黄金精工师的父亲的下岗和衰败都是因为新圣物产，开始气愤。对Jason的复仇欲望感到同病相怜，同感他的心情。基哲决定站在真宇的一边，开始追求被隐瞒的真相。**

基哲接近李康俊检察官，要求与过去大韩银行有关的资料。为暴露Jason的复仇剧和收集证据，需要先抛出诱饵，得到种种资料。他将从李检察官拿来的资料汇报给Jason，正式加入信息之战。得益于基哲不断揭开新圣物产大股东们的犯罪记录，他们开始将议决权交给Jason。Jason终于确保大量份额，在股东大会之前准备一个最后的致命一击。

Jason让基哲去见机构投资者——国民年金的李社长。基哲指责李社长在大韩银行出售时拿到的游说资金的事情，胁迫他要反对合并……这瞬间，突然袭击的姜刑警和警察们。站在他们后面的是李康俊和联合侦察团的检察官们。其实基哲一直当亲兄弟的姜刑警是李检察官的走狗。李检察官一直在收到基哲举动的报告，这是他做的圈套，

联合侦察团的汽车到郊区的一个地方。他们在那残酷审讯基哲，李检察官要他说出Jason的内线交易信息，说是最后的机会，还提及基哲的老婆和儿子。面对李检察官的胁迫，无能为力崩溃的基哲，**把Jason交给他，我的家人才能活！**

基哲跟Jason说假报告，一切都很顺利。Jason跟基哲说真心话，自己为什么开始企业狩猎，关于自己父亲的事情……基哲责怪自己对现实屈服的卑鄙，酩酊大醉。这时，基哲发现Jason为有租金苦恼的自己，偷偷汇款大笔奖金的事情，突然来袭的巨大罪恶感。好久没见的儿子，俊赫向基哲跑来，说抓走坏人的爸爸是最帅的，基哲听了以后突然哽咽。老婆说，以后俊赫的世界可能会好一点吧，基哲忍着泪水。

股东大会当天，准备发言的Jason，站在他旁边的基哲。基哲跟潜入现场各处的官员交叉视线。李检察官在某处指挥整个场，基哲照着他的指示，努力让Jason自认……基哲辛辛苦苦诱导需要的口述，Jason站上了讲台，开始合并反对发言……股东们散发出一股冷气。突然出现的新圣集团的“白骑士”——太白集团投下赞成票，股东大会局势立刻逆转。Jason咬紧牙关，离开会场，这时李康俊出现在他面前。李康俊出示令状，紧急逮捕Jason。Jason静静地凝视脸变僵硬的基哲，两人呆呆看着

彼此。

在大型律师事务所工作的基哲，现在的他作为刑事案件专业律师，过一个舒适的生活，但在心理还是卡着一个石头。新圣集团合并不久，Jason被判非拘留起诉而释放，沉着准备卷土重来，注重于幕后准备工作。

这时媒体大大报道新圣集团的粉饰会计案！新圣物产的股价暴跌，跌到谷底，集团会长的传唤也快了……Jason不会错过这个机会，重新开始收购股份，正式宣布经营参与，跟公司要求外部董事选任和股票分红……新圣集团的法律事务所聘用金石出身的基哲，开始防御。从伙伴到敌人，两人再见到了。

基哲很清楚Jason的攻略方法，事前布置防御阵容，彻底防守。可是事情却搞得轩然大波。在包括新圣证券在内的金融圈，连天爆出腐败案件！这次的目标是一直被间接控制的韩圣银行！同时出现大量的不良债权，韩圣银行被逼到破产危机。发生挤兑现象，也开始传出风闻，国家当局担忧金融圈的连续破产，市场上出售它……

这时Jason露出之前隐藏的爪子，全精力集中在韩圣银行的收购，投入所有的火力……突如其来的合并案使得mofia以及李宪主心急。将韩圣银行让给别人，这就等于打开潘多拉盒子。自己的秘密资金和游说资金快要被暴露，李宪主面临危机，开始大刀阔斧的行动。向政治圈施压，通过金产分离废除法律，打造舆论反应，为防止国家财产的外流，应该由大企业收购银行。

围绕韩圣银行，新圣企业和金石展开收购战！围绕潘多拉盒子，Jason和基哲也正面对决……逆转，又逆转的紧迫情况。在决定性的时刻，基哲也露出自己的真面目。这一切都是Jason和基哲为收购韩圣银行所计划的全局！以前基哲跟Jason告白，其实自己当秘密间谍，Jason的眼光，他建议更大的计划。

展现出过去两人秘密安排的行动计划。按照与Jason说好的内容，做行动的基哲。在法律事务所隐秘收集粉饰会计证据的基哲，默默收购韩圣银行不良债权的Jason。**Jason促使法律修改，终于成功合并韩圣银行！**

还有，基哲继续调查Jason父亲自杀案，终于做到由知情职员的内幕举报！媒体连天大大报道过去大韩银行出售案件的真实攻防。

急迫的mofia和李宪主由李康俊当前头，动员所有卑鄙的阻碍，可是大势已经决定了。终于，为隐瞒大韩银行出售案件的腐败，李宪主扛起所有负担，被拘留……韩圣银行的收购案化为泡影，政府投入国有资金，使银行回生，作为政府拥有的银行。可以说，新圣集团花很多功夫的银行所有计划化为乌有。

金石和Jason也遭到庞大的损失。但他们拥有了大量的新圣集团份额，获取经营参与权和股东分红的扩大。在欢呼的平凡小股东们，他们参与股东大会一个一个发表自己的信念。

与Jason一起去百慕大岛的基哲。基哲问他做完父亲报仇的感觉，Jason说才刚刚开始。Jason将要狩猎位于百慕大的mofia纸上公司，问基哲“你有猎手的天赋，要不要一起做”。基哲想了一下，跑向在海滩上挥手的儿子俊赫。基哲在看着与小孩们玩耍的俊赫。俊赫炫耀‘我爸击倒坏人’。看见在度假村偷钱包的小贼。立刻跑上去，拧他胳膊的基哲，一张活力的脸。

2부
경기콘텐츠진흥원 · 한국영화감독조합

SCENARIO SHOWCASE

电影剧本创投会
시나리오 쇼케이스

김 준



경희대 영화과에서 연출을 전공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조감독 생활을 하였다.

현재는 영상회사 뱅필름의 대표 감독으로 TVCM 및 바이럴, 웹드라마를 기획/연출하고 있으며 최종목표인 영화감독을 위해 끊임없이 아이템을 개발,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있다.

이력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
디케이미디어 기획프로듀서
현 (주)뱅필름 대표감독

수상 및 선정

- 2003 단편영화 <지구를 망쳐라> 각본 / 연출
제1회 국제 대학생 영화제 비경쟁부문 (2003)
- 2008 단편영화 <소꿉놀이> 시나리오 각색 및 공동연출
제12회 올림피아국제아동청소년영화제 경쟁부문 (2009)
제5회 파르빈 에테서미 영화제 (2009, 이란)
제15회 팜스프링스국제단편영화제 경쟁부문(2009, 미국)
제11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2009)
제6회 쇼트쇼츠아시아영화제 아시아경쟁부문(2009, 일본)
- 2015 단편영화 <장례희망> 각본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비경쟁 부문 초청(2016)
- 2017 단편영화 <어떤 집들이> 각본 / 기획
제1회 서울영화제 대상

집필 작품

- 2003 단편영화 <지구를 망쳐라> 각본
- 2008 단편영화 <소꿉놀이> 각본
- 2015 단편영화 <장례희망> 각본
- 2015 영화 <선영이가 사라졌다> 각본
- 2016 영화 <봄> 각본
- 2017 단편영화 <어떤 집들이> 각본
- 2017 영화 <컨트리 로드> 각본

작품의도

벌써 30대 중반을 살고 있는 나는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댓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서로의 간단한 호구조사를 끝낸 후 기다리더라도 한 듯 시사,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서로 한참 이어간다. 그들의 이야기가 소음으로 전환되며 엉덩이를 떼고 머리카락이 풀려야 가야겠다고 생각할 때쯤 그 중 었던 소녀들(고등학교를 막 졸업했다는 20살의 동갑내기 둘)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그 아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고등학교시절 자신들의 서클인 똥클(똥똥이클럽의 약자로 먹는 것을 취미이자 특기로 갖고 있는 아이들이 서클에서 정해놓은 60kg이상의 체중을 유지하여야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 회원 수는 무려 30명 정도!)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서클의 철학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먹는 것'에도 어마 어마한 룰이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잘 먹는 방법'인데 그것은 '주문하는 방법'부터 '먹는 순서', '먹는 방법' 등등의 것들이 '체계적으로 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것도 잘 모르면서 그토록 성스러운 행위를 모욕되게 한다며 혀를 끌끌 찬다. 그렇게 동아리의 철학과 신념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둘은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 분식집의 공간과 공기, 주인이모의 제스처를 묘사하며 허공에 대고 먹는 마임까지 선사하는 데 그 표정과 재연방식이 얼마나 생생한 지 마치 내 입으로 그 어묵튀김이 들어오는 것 같은 착각도 느꼈다.

누가 보면 '고작 그게 청춘의 꿈이자 특기였다고?' 할 것을 너무나도 티 없이도 맑고 밝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소녀들을 보며 어릴 적 나의 담임이 말한 '가슴 뛰지 않는 청춘은 유죄!'라는 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열정에 기름을 부어가며, 청춘이니까 좀 아프기도 하면서 지금의 1분은 미래에 바꿀 수 없는 시간이니까, 허투루 허비 하지 않으며 미래를 설계하고 살아가겠지만, 아마 이 소녀들은 다시 그 때로 돌아간 다해도 거창하지 않게, 미래에 대한 생각과 꿈이 아닐지라도 현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매사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

참으로 남의 삶에 관심이 없고 무성의한 사람들이 생산해 내는 공해와 같은, 획일화된 시선과 어른이라 쓰고 곧대라 읽는 사람들이 정립해놓은 '치열함=성공'의 공식이 과연 그렇게나 우리의 삶의 질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던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참을 운다고 한들, 멍하니 허공을 보고 숨만 쉰다고 한들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영화는 흔한 청춘들의 성장영화와는 살짝 다른(?) 문법으로 유쾌한 '성장!'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시놉시스

신애 (19,여)

아빠, 엄마 그리고 치매 걸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신애는 평범한 고등학교 소녀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몸매도 예쁜 언니에게 항상 비교당하며 살아온 19년 인생은 고3이라는 타이틀이 걸리며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엄마 주위엔 유별나게 엄친아, 엄친딸들이 많은 건지 누구만 만나고 오면 늘어나는 잔소리만큼 신애의 고민도 점점 늘어만 간다. 그렇게 고난의 아홉수를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신애는 우연히 동네에서 하는 먹기 대회에서 자신이 ‘먹는 것’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느낀다. 친구 새롬의 지원을 받아 푸드파이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본격적으로 도전해보는 신애. 하면 할수록 점점 재미를 느끼고 급기야 전국의 먹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한다. 자신의 재능으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목표를 세우지만 주위의 굶지 않은 시선과 친구들과의 마찰은 신애를 흔들리게 만든다. 그렇게 포기하려 할 때쯤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지원해준 새롬이 서클장을 걸고 자신을 똥스에 입단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민하던 신애, 결국 새롬이를 위해 그리고 남들이 아닌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동아리 똥스에 입단을 결심한다. 신애를 시기하던 샘나를 가뿐히 이겨버리고 똥스에 입단한 신애. 신애의 진심을 알아본 동아리 친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디펜딩 챔피언 고바야시를 이기기 위해 세계대회 도전을 결심한다.

새롬 (19,여)

영동 발랄 유쾌한 새롬은 동아리 똥스의 서클장이자 신애의 가장 친한 친구다. 돈가스 가게에서 가뿐하게 미션을 클리어 하는 신애의 모습을 보고 푸드파이터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자신이 지금까지 아끼고 지켜왔던 똥스의 서클장 자리도 신애를 위해서라면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인기가 많아지며 변하는 신애의 모습에 상처도 받지만 결국 끝까지 믿으며 세계대회에 도전할 수 있게 돕는 최고의 조력자다.

샘나 (19,여)

시크한 성격의 샘나는 똥스의 부서클장이다. 어릴 적 누구보다 친했던 친구가 중학생이 되면서 겉모습에 집착을 하더니 결국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욕하며 왕따 시켰던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몸무게만큼 사람을 믿는다는 샘나는 마르고 예쁜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 똥스에 가입하려는 신애 또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리 없어 매순간마다 탄지를 걸지만 결국 신애의 진심을 알아보고 도움을 주게 되는 촌데레.

엄마 (48,여)

남들이 보는 시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 동네가 재개발이 확정되었지만 분담금을 내지 못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없지만 끝까지 주위의 눈을 의식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답답한 때에 쫓겨나온 미소엄마의 딸 자라는 점점 심해지고 그만큼 신애를 보며 울화통이 터진다. 코스프레라도 하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 거라는 엄마의 확신이 깨질 때쯤 주위 눈치 보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도전하고 있었던 신애가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며 받아놓은 트로피들을 보게 된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신애 엄마의 생각도 진심으로 무언가를 위해 도전하고 이뤄낸 신애를 보며 점점 변화하게 된다.

Prologue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지만 아직 꿈도, 확실한 진로도 정하지 못한 주인공 신애(19,여). 어느 날, 단짝 친구 새롬(19,여)와 함께 우연히 돈가스가게에서 먹기 이벤트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안 그래도 용돈이 바닥나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점심시간을 괴롭게 보내야 될 마당에 필연적으로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믿는 신애. 만류하는 새롬을 밀치고 결국 이벤트에 도전하게 되고 모두의 예상과는 반대로 당당히 미션을 클리어한다.

먹기 동아리 똥스의 서클장이자 여러 전국대회를 우승했던 절친 새롬은 신애의 먹는 모습을 보며 푸드파이터계의 디펜딩 챔피언 고바야시를 꺾을 유일한 사람이라 말한다. 원래 진정성이라고는 1%도 없는 새롬의 말을 흘려버리려는 신애에게 1억이라는 큰돈이 걸린 대회라 말하는 새롬. 신애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신애의 집은 분담금을 내지도 그렇다고 보상을 받고 나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어른들의 일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분위기상 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쯤은 눈치를 챈 신애는 만약 새롬의 말대로 자신이 천부적인 자질을 가진 푸드파이터라면 왠지 집에서도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 예쁜 오리가 될 기회가 생긴 것만 같다.

미션을 클리어하며 받았던 상품으로 매점심마다 돈가스 집을 방문하게 된 신애는 새로 생긴 그 가게에서 알바생(21,남)을 보고 설렌다. 더군다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미션을 성공했다며 신애를 먼저 알아봐주는 그를 왠지 좋아할 것만 같은데 그 모습을 멀리서 고깝게 쳐다보는 일진무리가 있다.

본격적으로 푸드파이터에 도전하려는 신애는 새롬의 서클 똥스에 가입하기 위해 찾아가지만 몸무게가 65킬로그램 이하라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서클장인 새롬도 규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에 방법을 고민하던 그때 신애가 똥스가 갖고 있는 대회정보를 넘겨달라며 부탁한다. 절친의 부탁에 똥스에 있는 전국의 먹기 대회정보를 넘기는 새롬. 여러 가지 대회에 대한 설명과 노하우가 적힌 서류를 바탕으로 대회를 나가게 된 신애. 새롬의 예언을 맞추기라도 하듯 첫 대회부터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신애는 기세를 몰아 모든 전국대회를 참가하며 우승을 싹쓸이 한다.

신애의 대회 독식에 위기감을 느낀 똥스. 특히나 신애의 가입을 반대했던 샘나(19,여)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 금방이라도 폭발하기 일보직전인데 마냥 여유로운 서클장의 모습이 눈에 거슬린다. 결국 샘나는 새롬의 그런 모습을 의심하는데 결국 핀치에 몰린 새롬은 자신의 서클장 타이틀을 걸고 신애의 테스트 날을 잡기로 한다.

전국의 여러 대회를 휩쓸며 자신의 재능을 확인한 신애는 인터넷 먹방을 시작한다. 수준이 다른 먹방에 구독자 1만 명을 금세 넘긴 신애의 채널이 인기를 끌며 이제 밖에서도 학교에서도 신애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방송으로도 꽤 들어오는 수입을 보며 점점 겉모습과 남들의 하는 말을 신경 쓰게 되는 신애. 거기에 좋

아하는 알바생과의 데이트까지 하며 더욱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겠다고 느낀 신애는 먹기 대회 참가를 포기하기 시작한다. 얼마 남지 않은 세계대회의 예선전 준비는커녕 먹방에 자신의 연락도 점점 피하는 신애의 모습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새롬은 신애가 점점 멀게만 느껴진다. 자신이 믿었던 제일 친한 친구 때문에 가장 아끼고 소중했던 서울 똥스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든 새롬, 신애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한편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돈가스 알바생 주위를 계속 맴도는 신애를 결국 옥상으로 끌고 온 일진무리. 그 곳에서 신애에게 알바생 오빠가 일진무리 중 한 명의 형부라며 말한다. 며칠 전 영화관에서 자신에게 어깨동무를 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하며 무언가 오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던 신애에게 전화를 바꿔주는데 통화내용이 충격적이다. ‘아버지가 돈가스가게 마케팅에 이용해야 된다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래서 말야! 나도 싫다 정말!!’.

충격 받은 신애는 식음을 전폐하고 무기력하게 산다. 푸드파이터라는 꿈을 가지고 처음으로 열심히 기쁘게 무언가를 해왔었는데 한 순간에 그것들이 무너지며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 새롬도 안타깝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만든 것만 같아 섣불리 손을 내밀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간만 흐른다. 그러던 어느 날, 등굣길에 탈수증상으로 실신을 하고 마는 신애. 누군가의 등에 업혀 양호실로 옮겨진다.

눈을 뜨는 신애는 오늘이 바로 똥스 입단 테스트일임을 알게 된다. 머뭇거리는 신애.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흐르고 똥스 안의 아이들은 이미 신애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정리하기 시작한다. 새롬도 인정하고 똥스의 서클장을 내놓으려고 하던 그때! 문이 열리며 신애가 들어온다. 그렇게 시작된 테스트. 보름이 넘게 식음을 전폐했던 신애는 컵라면을 보고 눈이 돌아버리며 미친 듯이 먹어치운다. 신애 결국 샘나를 가뿐히 이기며 똥스에 입단하게 된다.

세계대회를 위한 국내 예선전을 함께 준비하는 신애와 똥스 멤버들. 많이 먹으면 즐기 시작하는 신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트레이닝을 이어 나간다. 드디어 대회 날. 모든 가족과 똥스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 위로 오르는 신애. 기자인 언니도 취재를 위해 대회를 찾았다가 신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렇게 모두가 응원하는 대회가 시작되고 빠르게 먹던 신애 중반부를 넘어서며 속도가 떨어진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졸음에 비틀거리는 신애는 1위와의 격차가 벌어진다. 응원하던 사람들이 점점 체념할 때쯤 대회전날 샘나가 건넨 노래를 이어폰으로 듣는 신애. 학교 식당에서 매일 같이 흘러나오던 클래식과 그 공간의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눈을 감고 무의식으로 빠져드는 신애. 빠른 속도로 1위를 추격한다. 부저가 울리고 동률을 기록한 두 사람. 긴장되던 그 때 다른 도전자의 손에서 감춰놓은 소시지가 발견되며 세계대회 출전권을 따내는 신애.

여고생 최초로 먹기 세계대회에 출전하는 신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집에서도 자랑스러운 딸이 된 신애. 디펜딩 챔피언 고바야시와의 마지막 결전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재판

이주헌



인천 출생으로 시나리오 작가 겸 연출로 활동.

희곡작가로 활동 중인 아내(김수미)와 공동 집필을 즐겨함.

한 장르에 얽매이기보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의 복합장르의 영화를 추구.

이력

인천 세일고등학교 졸업

서울예대 영화과 졸업

1995 영화 <돈을 갖고 튀어라>로 영화계 입문

1997 영화 <깊은 슬픔> 제2조감독

2000 영화 <동감> 조감독

2012 MBN TV영화 <노크> 연출

수상 및 선정

2003 <오늘은 안 잡아> 싸이더스HQ & 스크린 주최 코미디부분 수상

2014 <네티즌 수사대> 1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NAFF 잇프로젝트 청송백자상 수상

집필 작품

2009 영화 <청담보살> 각본

2011 영화 <러브픽션> 윤색

2012 영화 <자칼이 온다> 각색

2012 MBN TV영화 <노크> 각본

2014 영화 <네티즌 수사대> 각본

작품의도

2000년 9명을 살해하고 12명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살인마 정두영.
그가 체포된 후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제 안에 악마가 있어요. 그 악마가 한 짓이에요.”
‘정두영의 이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을 가정해 스토리를 완성했다.
<재판>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한편 단순히 공포만을 주입시키는 방식이 아닌 법정 심리스릴러와 오컬트 호러의 유연한 결합을 통해 새롭고 완성도 높은 영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시놉시스

승헌

“법대로 하자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드리죠!”
정의감 넘치는 파이터 변호사. 미혼에 액티브한 운동을 즐기는 매력남이다.
민변 소속으로 돈 없고 뺨 없는 사람들을 변호하다 보니 가난하고 적도 많다.
그럼에도 대외적 이미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정계진출’이라는 욕망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홀로 키운 아버지에 애뒤틀 마음을 갖고 있다.

지옥

”난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죽인 건.. 내 안의 악령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장애를 가진 20대 초반의 청년.
장애에도 불구하고 조폭 보스인 아버지 때문에 험난한 성장과정을 겪었다.
유년시절 상대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분노로 남아있다.

최반장

”사명감이 어딴? 딱딱딱 들어오는 월급 때문에 범인 잡는 거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베테랑 강력계형사.
원칙을 지키려던 초임형사시절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이 권력의 힘에 뒤바뀐 이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형사의 측은 녹슬지 않았다.

박해천

”내가 사는 세계는.. 관대함이 곧 약점이야“
지옥의 아버지이자 조폭계의 살아있는 전설.
그를 나타내는 두 단어는 ‘카리스마’와 ‘냉혈함’이다.
등장만으로 주변 온도를 싸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며 차갑다.

황용철

”내 삶이 엉터리라도 아들 만큼은 제대로 건졌다.“
승헌의 아버지이자 말기 심부전증 환자.
오늘 날 승헌을 만든 무뚝뚝하지만 가슴 따뜻한 인물.
자신의 병이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늘 괴롭다.

그리고...

비밀의 악령

대낮 도심의 한 공원.

피를 뒤집어 쓴 지옥이 터벅터벅 걸어와 벤치에 앉는다..

그의 손에 들린 피 묻은 식칼. 공원 안 사람들은 그 모습에 경악하고...

벤치에 앉은 지옥의 눈이 스르르 감기며 깊은 잠에 빠져든다.

지옥은 방금 전 한 부유한 저택에 잠입, 싱크대에서 꺼낸 식칼로 일가족을 무참히 살해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최반장은 몇 가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금품을 노린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 경험상, 치정에 의한 살인이 확실한데, 피해자 가족과 안면식도 없을 뿐더러 하루 전 제대한 신분으로 범행동기가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옥은 누구나 국내 최대 조직의 보스인 박해천의 외아들.

“붉은 빛이 나를 불렀어요”취조 중이던 지옥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최반장은 그 붉은 빛이 뭐냐며 다그치지만 지옥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는다.

포승줄로 묶은 지옥을 데리고 현장검증을 하던 최반장은 현관 입구에 사설 경비업체에서 설치한 붉은 경비등을 바라본다.

국민 변호사로 불리는 승헌,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만성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늘 마음에 걸린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인 승헌을 지금껏 재혼도 하지 않고 키워준 아버지이기에 안타까움은 더욱 크기만 한데, 담당의사로부터 조만간 신장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은밀히 장기매매 브로커를 찾아가지만 브로커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을 요구한다.
그날 밤 승헌의 사무실에 찾아온 중년의 남자.
바로 조폭 보스인 박해천으로 자신의 아들인 지옥의 변호를 의뢰한다.
누가 봐도 명백한 유죄인데다 자신의 이미지를 고려해 거절하지만 브로커를 통해 무료로 장기이식을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한다.
사건 발생 후 첫 공판.
형식적인 업무로 일관한 승헌은 재판장의 선처만을 바란다는 말로 변론을 마친다.
범행동기가 무엇이나는 검사의 질문에 지옥은 난데없는 발언을 내뱉는다.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시다. 그들을 죽인 건...내 안의 악령입니다.”
일순간 재판장은 술렁이고, 승헌은 지옥의 강한 눈빛을 발견한다.

승헌은 학창시절 첫사랑이자 정신과의사인 가영을 찾아 지옥의 정신분석을 의뢰한다. 가영은 지옥의 뇌검사를 하던 중 분노 감정을 억눌러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뇌신경 전달물질 <세토로닌>이 보통 사람보다 덜 생성된다는 결과를 얻는다.
최근 감형의 이유가 되었던 외국의 몇몇 사례를 들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뻐하는 승헌.
가영은 다음 있을 재판에서 증언을 해주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재판을 앞두고 승헌을 갑자기 찾아온 가영은 평소 당차고 쾌활하던 모습과 달리 정체를 두려움에 떨며 더 이상 지옥의 분석을 못하겠다고 말하곤 사라진다.

다음날 승헌은 가영의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다.
운전을 하던 가영이 붉은 신호를 무시하고 인도를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순간 승헌은 ‘내안의 악령이..사람을 죽였어요’라고 말하던 지옥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미처 듣지 못한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다 공포로 가득한 가영의 목소리를 듣는다.
사건 당시 지옥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최면을 시도하던 중 지옥의 내면에 있던 악령을 보았다는 것.

가영의 의문스런 죽음과 지옥에게 불리한 증인과 증거가 더해지며 재판은 수세에 몰린다.
만약 이 재판에서 패한다면 지옥은 중형을 언도 받게 되고 가영의 죽음을 파헤칠 기회도 사라지기에 승헌의 고민은 깊어가고...
승헌은 고민 끝에 마지막 승부수를 꺼낸다. 법정에서 강령의식을 통해 악령의 존재를 규명하자는 것. 신성한

법정에서 쇼를 벌이자는 거냐며 강력히 반발하는 검사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라는 승헌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장은 승헌의 손을 들어준다.

‘빙의 현상에 의한 살인을 처벌할 것인가!’란 사상초유의 심리가 벌어지는 법정.
승헌은 괴짜스타일의 영매를 섭외해 지옥을 상대로 영혼을 부르는 의식을 시작한다.
잠시 후 법정에 스산한 기운이 감돌더니 지옥의 몸 안에 빙의 되어있던 악령이 깨어난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순간 법정은 악령에 빙의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아수라장으로 바뀐다.

한편 최반장은 해천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듣는다. 일년 전 지옥이 근무하던 부대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범인이었던 선임병과 가까운 사이였고 사건이 벌어지던 날 밤 함께 계근무를 섰다는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재판에서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승헌의 명성은 급속히 추락한다.
말고 있던 소송에서도 하고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로서의 생명도 위태롭다.
하지만 그가 진정 두려움을 느끼는 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살인 충동이다.

교도소에서 정신병원에 이송된 지옥을 찾아간 승헌은 입구에서 최반장과 마주친다.
면회실에서 만난 지옥은 살아있는 시체만큼이나 피폐한 몰골이다. .
총기사고가 벌어진 그 날, 선임병과 계근무 도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최반장이 강하게 추궁한다. 지옥은 대답대신 승헌에게 요즘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충동에 빠지지 않느냐며 되묻는다.
승헌은 순간 지옥이 자신을 변호사로 선임한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음을 직감한다.
“네 안의 악령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넌.. 악령을 죽였어. 그렇지?”
승헌의 질문에 지옥은 “악령을 죽여야만 해!!”라는 말을 반복하다 발작을 일으킨다.

일년 전 총기 난사사건을 조사하던 승헌과 최반장은 당시 사건의 주범인 선임병이 지옥이 제대한 날 군 감옥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렇다면 선임병에게 있던 악령이 지옥에게로 빙의된 것일까...??
지옥과 태민이 경계를 서던 초소는 부대가 이전해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
최반장은 문득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잊고 싶었던 38년 전의 사건이 떠오른다.
1980년 봄, 이 마을에 살고 있던 고등학생 연희가 당시 이동 중이던 공수부대원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다. 연희의 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아가 부대원들의 처벌을 간청하지만 계엄령 하에서 군이 공권력을 쥐고 있던 상태라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신입형사였던 최반장도 윗선의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연희는 자신을 강간한 군인들과 세상을 원망하다 부대 근처에서 목을 매 자살한다.
38년 전의 연희가 지옥의 몸을 빌어 복수를 하려는 것인가?

소득없이 올라오는 승헌과 최반장. 횡단보도의 신호가 붉은 색으로 바뀌자 멈추는 승헌. 붉은 신호등을 보고 사고를 낸 가영의 사고가 문득 떠오르지만 다행히 자신에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옆 좌석에 앉은 최반장이 어느새 악령에 빙의되어 승헌을 죽이려 한다.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기는 최반장, 승헌이 급 브레이크를 밟아 가까스로 총알을 피하고... 그리고 이어진 격투, 최반장이 승헌의 목을 조른다.

죽음 직전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는 승헌. 그제야 최반장도 제 정신을 찾는다.

두 사람은 이 악령의 저주를 풀지 못하면 지옥처럼 살인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진다. 순간 최반장에 갑작스런 공격에 정신을 잃는 승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뜬 승헌은 최반장이 남긴 메모지를 발견한다.

<악령은 38년 전의 그 소녀요... 내가 끝내지 못한 사건을 마무리 하겠소>

최반장은 규정을 어기고 정신병원에서 지옥을 끌고 나온다.

그리고 1년 전 지옥이 경계근무를 섰던 장소에 도착한다.

지옥이 악령에 빙의된 그 곳, 최반장은 총을 꺼내 지옥에게 겨눈다.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뒤늦게 도착한 승헌이 최반장을 제지하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이던 지옥이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해 고백한다.

1년 전 늦은 밤. 선임과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지옥은 어둠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여자를 발견한다. 아름다운 외모와 나뭇가지에 찢겨나간 치마사이로 드러난 하얀 다리. 뚫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한 선임병은 여자를 강간하자며 지옥을 꼬드긴다. 도와주는 척 다가가 반항하는 여자의 입을 틀어막고 옷을 벗기는 선임병. 잠시 후 초소 안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던 지옥은 낯 나간 표정으로 돌아오는 선임병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본다. 별일 아니겠지 란 생각으로 여자에게 걸어가는 지옥. 치마가 벗겨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끌어안는 순간 그녀의 모습은 악령이 된 연희로 바뀐다.

비명을 지르며 일어서는 지옥, 그리고 막사 쪽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총소리.

고개를 돌리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연희, 지옥의 그 당황하는 얼굴이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다.

자신을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지옥.

승헌과 최반장, 그런 지옥을 바라보며 저주가 풀리기를 기원하는데..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는 승헌, 다가가 주우면 오래된 낡은 군번줄이다.

흙을 털어내고 이름을 확인하는 승헌의 동공이 확대된다.

굳은 표정으로 차를 몰며 질주하는 승헌이 최반장의 침묵을 깬다.

“만약,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면저를 먼저 쏘세요.”

군번줄에 표시된 이름은 황용철. 바로 승헌 아버지다.

승헌과 지옥을 둘러싼 심령현상, 그리고 자신을 변호사로 선임한 이유가 명백히 풀리고..

마침 병실에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황용철, 느닷없는 아들의 방문에 반가워하지만 승헌이 내미는 군번줄을 바라보며 놀라는데...

38년 전 그 날.

연희의 눈에 군용 붉은 후레쉬 불빛이 번쩍인다.

군인들이 거친 숨소리를 뿜어대며 교대로 그녀를 강간하고 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연희의 눈동자.

위장 크림을 바른 군인들의 얼굴은 연희에게 마치 악마로 보인다.

연희의 손에 한 군인의 목에서 떼어낸 군번줄이 쥐어져 있다.

연희의 악령에 빙의된 승헌이 복수를 위해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

최반장이 제지하려 하지만 이미 승헌의 몸을 차지한 연희의 영혼은 황용철의 팔에 연결된 관을 뽑는다. 역류되어 팔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위독한 상황. 승헌을 겨누는 최반장의 총구, 그러나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서서히 숨이 멎어가는 황용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받아들이려는 듯 평온한 얼굴이다. 순간 승헌과 연희에게 과거 기억들이 되살아난다.

악령과 내면의 싸움을 벌이던 승헌의 눈에 눈물이 흐르며 연희의 영혼은 사라진다.

황급히 달려온 간호사가 다시 관을 연결하자 황용철의 몸은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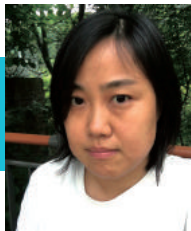
‘그래 이제 저주는 끝난 거야’라고 되뇌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최반장, 일순간 눈빛이 붉게 빛나더니 황용철의 몸을 끌어안고 창밖으로 몸을 던진다.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황용철과 최반장을 내려다보는 승헌.

연희는 가해자와 방관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일까...?

밤도망

최신춘



1986년 서울 출생.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연출했고 데이터 매니저, 바이럴 광고 연출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장편 시나리오를 쓴다.

이력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영상연출과 졸업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전공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전문사 연출전공 졸업

수상 및 선정

2008 다큐멘터리 <알바당 선언> 연출(RTV 대학생영상공모전 대상, 인디다큐페스티벌 상영)
2010 다큐멘터리 <미안마 선언> 연출(OBS 영상페스티벌 우수상, 인디다큐페스티벌 개막작)
2010 단편영화 <가장 보통의 후라보노> 각본, 연출(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 촬영상)
2011 단편영화 <행운동 검소년> 연출 미장센단편영화제, 대구단편영화제, 뉴욕아시아영화제 상영)
2014 단편영화 <팡팡이 익스프레스> 각본, 연출(DMC 단편영화페스티벌, Roxie Theater New Korean Films 상영)

집필 작품

2011 장편영화 <환상속의 그대> 조감독
2013 장편영화 <용의자> 데이터 매니저
2014 장편영화 <은밀한 유혹> 데이터 매니저
2014 다큐멘터리 <명량, 회오리바다를 향하여> 데이터 매니저

작품의도

밤에 도망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밤으로부터, 어둠과 악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을 지우고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당신은 ‘밤도망’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

시놉시스

상록(30대, 남자)

‘에버그린 탐정연구소’를 운영하며 치매 노인이나 가출 와이프, 실종자들을 찾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 수익성이 떨어지는 의뢰들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다.

화경(40대, 여자)

가냘픈 외모지만 어딘지 모를 독기를 품은 부인. 그녀의 과거가 드러날수록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다는 말은 거짓임이 드러난다.

영미(20대, 여자)

중고차 거래소의 직원. 상록과 비밀 연애 중이며 그의 ‘밤도망’을 위해 탐차를 몰래 내주었다. 예기치 못하게 사라진 그를 찾아 나선다.

필구(20대, 남자)

중고차 거래소의 직원. 상록이 몰고 간 탐차의 주인. 탈북자인 그는 탐차에 중요한 ‘물건’을 숨겨 놓았다. 그 때문에 영미와 함께 상록을 찾아 나서게 된다

영철(30대, 남자)

중고차 거래소의 사장. 고교시절부터 상록과 친한 친구이며 양숙이다. 영미의 오빠.

앞새(10세, 여자)
화경의 딸. 그녀를 바보처럼 믿고 따른다.

동천(10세, 남자)
화경의 아들. 그러나 그녀를 믿지 않는다.

치호(40대, 남자)
화경을 지독하게 쫓는 신원 미상의 남자.

<에버그린 탐정연구소>

사람 찾기 전문, 가정불화 해결, 기업 보안 강화.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한상록 실장 010-XXX-XXXX

새벽녘의 먹자골목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선다. 오토바이를 탄 남자는 홍보용 명함을 하나씩 빠르게 날리며 지나간다. 마구 날리는 명함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차창과 술집의 문틈에 정확히 꽂혀든다. 남자의 이름은 상록. 그의 사무실에 초철했던 중년 부인이 찾아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의뢰를 한다.
자신과 아이들을 숨겨달라는 것이다.

“제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 주세요.
바닥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평소였다면 흥신소를 찾아가라며 단칼에 거절했을 의뢰지만 두 달 전 집으로 돌려보낸 베트남 신부 시나가 남편에게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록은 왠지 모를 죄책감에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상록은 영철의 중고차 거래소에 세워진 탐차를 영미에게 빌려 화경과 그녀의 아들 동천, 딸 앞새를 태워 야반도주 즉 ‘밤도망’을 떠나게 된다. 화경을 쫓는 빗쟁이, 치호를 피해 겨우 경기도를 벗어나는 상록의 탐차.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잠을 쫓기 위해 화경과 대화를 나누던 상록은 그녀가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불길한 예감 끝에 우연히 들른 휴게소에서 화경을 쫓던 치호와 빗쟁이들을 마주쳐 도망치는 상록. 앞새와 동천, 화경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상록은 예기치 못한 치호의 공격을 받아 쓰러진다. ‘○○경찰서 강력계 송치호’. 상록은 화경을 쫓던 치호가 그녀의 설명대로 빗쟁이가 아니라 강력계 형사임을 알게 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경찰에 쫓기고 있는 화경에게 속아버린 상록, 탐차의 냉동고에 꼼짝없이 갇혀버린다.

상록의 연인 영미와 탐차 안에 북한산 필로폰 ‘빙두’를 숨겨놓은 필구, 그리고 자신의 탐차를 훔친 것에 분노하는 영철이 위험에 처한 상록을 찾아 나선다. 화경은 자신을 쫓는 형사 치호에게서 벗어나려 애쓰지만 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상록은 비극적인 삶을 살던 화경이 오래 전 밤도망에 성공하여 신분을 바꾸고 은둔하며 살아온 여자임을 알게 된다. 장애인, 노숙자 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사로 일했지만 부패한 형사 치호에게 폭행과 상납 강요 등의 압박을 오랫동안 당하던 것 까지도.
상록은 딜레마에 빠진다. 아이들과 함께 치호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화경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속여 곤경에 빠지게 한 의뢰인일 뿐인 화경과의 계약을 파기할 것인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당신은 어쨌든 오늘밤 내 의뢰인입니다..”

상록은 어린 앞새의 부탁으로 화경을 돕기로 결정, 부패한 형사 치호에게 거액의 ‘빙두’를 미끼로 놓고 거짓 협상을 벌이기 시작한다. 영미와 필구, 영철이 위험에 처한 앞새와 동천을 돕고, 상록은 자신의 의뢰인 화경을 치호로부터 구해 낸다.

상록은 화경의 시설에 남아 있던 실종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낸다. 또한 치호가 마약 거래를 하려했음을 경찰에 고발하여 탐정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화경은 상록에게 했던 의뢰처럼 비극적인 인생으로부터 사라지는 데 성공하여 바닷가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과의 새 출발을 준비한다.

The plumps

June KIM



After studying theater and film at Kyung Hee University, KIM has worked as an assistant director for various projects. Currently, KIM works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BANGFILM Co.,Ltd., planning and directing TV commercials, viral ads, web-based dramas. KIM never stops developing ideas and writing scripts to reach his final goal of becoming a film director.

HISTORY

Graduated from Kyung Hee University in Theater and Film
Producer at DK Medi
Currently director at BANGFILM Co.,Ltd.

AWARDS AND SELECTION

- 2003 Wrote and directed <Ruin the Earth>
-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 Film Festival, Out of Competition)
- 2008 Adapted screenplay and co-directed <Kid's Play>
- Olympi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Competition (2009)
- Parvin Etesami Film Festival (2009, Iran)
- Palm Springs International Short Fest, In Competition (2009, USA)
- Seoul International Youth Film Festival (2009)
- Short Shorts Film Festival & Asia, Asia Competition (2009, Japan Competition)
- 2015 wrote Short Film <Fake Funeral>
- Out of competition, BIFAN 2016
- 2017 wrote and planned Short Film <A Housewarming Party>
- Grand prize at Seoul Film Festa

WORK

- 2003 Screenplay for short <Ruin the Earth>
2008 Screenplay for short <Kid's Play>
2015 Screenplay for short <Fake Funeral>
2015 Screenplay for feature <Seonyoung has disappeared>
2016 Screenplay for feature <Spring>
2017 Screenplay for short <A Housewarming Party>
2017 Screenplay for feature <Country Road>

Work Note

Being in mid thirty, I met a dozen of people at a guest house in a trip to Jeju island. Once finished with basic information about each other, they keep talking about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they care, as if they have been waiting for this forever. As I started to feel the conversations become a noise, I hear one interesting story of two young looking girls (20 years old who just graduated a high school) just before I stand up to head to sleep.

The story from the girls is about a student group from their high school called "The Plumps" (Named after the look of members with great appetite for food and their passion of eating, you could not join the group if you weighed less than 60kgs, and there were around 30 members in it!). They summarize the philosophy of the group, there exists such particular rules in 'eating'. That says the way of 'well-eating' consists of a 'systemic approach' such as 'how to order food', 'the order of eating', and 'how to eat'. They disregard people who just eat food without knowing any of these sacred acts. These two girls are so into their philosophy of the group and their faith in it, it seems like they are back to their high school and start talking about the small street food place they used to drop by and how it felt like to be part of the cult. They mimic the owner lady and how they ate food in the air. Their facial expression and the action were so lively as if I was sat there and the fish cake they ordered back then was actually coming into my own mouth.

Watching the girls continue their conversations in so much innocence and joy that some may wise off 'what a great talent and passion as young souls could have', I remembered the phrase my teacher once remarked, 'It is illegal to be cold hearted when young'. I found it too harsh now. Some will focus on their passion every moment, taking the hard reality for granted as youth, not wasting a single moment, and busy planning their future when in high school. If these young ladies were sent back to their high school again, they would probably still be the same light-hearted, maybe not definite with their future plans or dreams yet, but ever grateful and enjoy the everyday life.

Seriously, how much does the equation of 'Fierce competition=Success in life' make our lives better? It is just a result of people talks that are careless about others' lives and armed with unified views with no personalities. People we call adults and understand as old fossils. Who can say it is meaningless even if you cry hours under your duvet or just breathe calmly over an empty wall?

This film will definitely show how the youth 'grows' in a cheerful, but a little different(?) way from other usual youth films do.

Synopsis

Shinae (19, Female)

Shinae is just one another teenaged girl in high school. She lives with her Dad, Mom and a Granny who has a dementia. For all her life of 19 years, she has been compared with her older sister who is prettier and excels in study. Now Shinae reaches the last grade of high school, she feels it is time to decide for her future. How is it possible that the kids of Mom's friends are all pretty and good students? As often as Mom comes home after meeting a friend of hers, Shinae feels pressured. As she lives each day with the stress, she happens to participate in an eating contest in a neighborhood restaurant, and she finds she is gifted in 'eating'. With a support from friend, Saerom, she learns about a profession called 'food fighter' and decides to try it properly. She finds it more fun as she enters more contests and starts to progress and make great scores in the country wide competitions. Shinae thinks she can actually help the parents with this talent and wants to set up her life goal as a world championship. However the others cynical views on her and the conflicts with friends give her hard times. Shinae was ready to give up when she learns Saerom, who has always trusted her and being supportive, was trying to get her into the school group 'The plumps' over her own leadership of president. After a long thought, Shinae decides to enter the group for Saerom, so for her own happiness not for others. She defeats Saemna easily who was jealous and joins the group. With the support from the family and the group friends who see Shinae's true passion, Shinae decides to challenge the world championship to win the defending champion, Gobayashi.

Saerom (19, Female)

Whimsical and bright, Saerom is the leader of the group The Plumps and the best friend of Shinae. She sees Shinae clears the mission easily at the pork cutlet restaurant, leads her to the path of a food fighter. She is a real friend of Shinae for whom she can give The Plumps leadership away that she kept so far and cared so much. She is hurt while watching Shinae changes as she gains popularity, but never stops trusting her and supports her challenge to the world championship. She is the best assistance.

Saemna 'meaning Jealous'(19, Female)

Saemna is the vice president of the school group 'The Plumps'. Her character is cool and chic. But she has a traumatic memory from being bullied by her once best friend in the childhood, who became obsessive about superficial look as she entered a middle school. Now Saemna trusts others based on their body weights. She is assured that skinny pretty girls are bitch. She first finds Shinae trying to join the group annoying, interrupts it every moment, but finally sees the truth in Shinae and helps her in the end. She sounds cold but warm in heart, a Tsundere she is.

Mom (48, Female)

To Mom, others view is most important than anything. Even her town is confirmed to be developed, she won't be able to get a new house allotted as she cannot afford the shares of the expenses. Still in double bind, she has not opened this issue from the worry how others would think. This is the worst timing as Miso's mom just never stops bragging about her daughter, her own daughter Shinae makes her anger burns in. Mom has believed pretending would make her feel like high society people. By the time she realizes it is not true, she notices the trophies that Shinae won from various eating contests, challenging herself without thinking about others. Gradually Mom changes her way of thinking as she watches Shinae endeavors and achieves what she really wants in heart.

Prologue

Shinae(19, Female) reached grade 12 but without any dreams or certainty about the paths in life. One day, she spots an eating contest event in a pork cutlet restaurant with bestie, Saerom(19, Female). What a timing! She just spent most of her pocket money and was feeling devastated how to pass the coming lunch hour which was her favorite time in the world. She believes this is the inevitable chance that God gives to her. Saerom is not sure if she lets her do it but Shinae goes for it and fairly clears the mission as no one expected.

Saerom is the president of the student group, 'The Plumps' and has won many domestic eating contests. As she sees her best friend Shinae eats, she finds her to be the only contestant to win against the defending champion, Gobayashi in the food fighters

world. Shinae casually passes the comment over as Saerom never tells anything with any sincerity. That is the moment when Saerom reveals the prize is KRW 100 million. Now Shinae is being convinced. No wonder they are living in a neighborhood that is confirmed to be developed, but not being able to pay the shares of the expenses, nor received the compensation and moved out yet. She does not know in details as it is the matters of adults world, but she senses it is related with money in large in the circumstance. If Shinae is really a gifted food fighter as Saerom says, maybe she will gain an opportunity to be a beautiful swan, not the ugly duckling.

As a contest prize, Shinae goes to this newly opened pork cutlet restaurant for every lunch time. There she sees a part timer(21, Male) and feels the butterflies inside. It feels she is falling into him as he appreciates her talent that she is the first one to clear the mission. But there is a gang of girls with unapproving look.

With full admiration to be a professional food fighter, Shinae knocks on the door of The Plumps'but gets rejected as she weighs less than 65kgs. Even Saerom cannot change the rules as a president, they think hard to solve the problem. Then Shinae asks for some contest information that The Plumps has accumulated so far. Saerom hands over all the information in country wide eating contests as requested. Shinae tries out various events based on the know-hows from the document that she received from Saerom. By winning the first trophy from the very first contest she attended, Shinae starts the journey of getting most of the first prizes in the country wide contests just as how Saerom has expected.

The Plumps feels threatened by Shinae's dominance in the contests. Saemna who was against Shinae joining the group is specially upset and just about to explode, finds strange how the president Saerom is still so relaxed about the situation. Eventually, Saemna is getting suspicious about Saerom's attitude over this, which leads that Saerom puts her leadership over Shinae's entrance test.

Shinae is now convinced about her talent in eating after numerous contests, starts a personal internet eating show. Her eating class is different from anything else in the field. With the number of subscription over 10,000 so quickly, her channel is popular throughout the school and outside, people start to recognize her. Now the income from the internet is increasing, Shinae starts to care about her look and what others comment about her. Furthermore, she starts dating with the restaurant part timer she likes, her interests in the look pick up. She feels she needs to care for her look even more, gradually gives up attending eating contests. Saerom finds it strange that Shinae

does not prepare for the coming world championship qualifier, even avoiding internet eating show. She feels so distant when she does not respond to her messages. Saerom is afraid she may lose The Plumps which she cares and loves so much because of her best friend once trusted. Saerom blames Shinae for this.

In the other hand, the girls gang takes Shinae to a rooftop as she ignored their warning and still hangs out with the restaurant part timer. There, Shinae is told that he is married to one of the gang's older sister. Shinae cannot believe it as she remembers so clearly that he puts his arm around her shoulder while watching a movie the other day. When she thinks there must be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one brings a phone to her to listen to. "It is my dad who asks me to be friendly with her. She is a great marketing tool for the restaurant! Believe me, I hate this!!". What a shock.

Stuck so strong, Shinae cannot eat and lives every day without a meaning. With the life goal of being a food fighter, she was living her life with passion and joy for the first time. Now, all is gone and she feels she lost it all. Looking at her, her mom and Saerom are sorry and want to help but hesitate as it seems it is partly their fault to let her live like this. One day, Shinae collapses due to dehydration on her way to school, brought to the nurse room.

When wakes up, she realizes it is The Plumps entrance test day. She cannot decide easily. As time passes, The Plumps members understand it as Shinae has given up, start to tidy up. Saerom also accepts the situation and just about to give her leadership away, when the door opens and Shinae steps in. That is how the test begins. Since Shinae has stopped eating for more than 15 days, the moment she looks at cup noodles, she goes absolutely crazy and eat up everything. It was an easy win over Saemna and finally she joins The Plumps.

Shinae and the The Plumps members prepare the world championship qualifier together. Lots of training begin to overcome the weakness of Shinae's sleepiness when eaten too much. Finally it is the qualifier event day. Shinae gets on to the stage while all her family and The Plumps friends watch. Her sister now a reporter is at the event and sees Shinae as well. The contest starts with everyone's support, and Shinae has a fine start eating up fast, but slows down a bit as time passes half of the event. To make things worse, she starts to feel sleepy, which makes the gap with the winning contestant wider. While the supporters begin to accept the failure, Shinae listens to the song through earphones that Saemna handed over a day before the event. It is recorded of a classical music that her school canteen always plays as well as the usual

sound of the surrounding space. Shinae closes her eyes and reaches deep down into unconsciousness, then rapidly chases up the winning contestant. Buzzer goes off and they finish with the same record. With extreme tension, it is found that the other contestant's hid a sausage in the hand. Shinae gets the ticket to enter the world championship.

Shinae is the first high schooler who enters the world eating championship, and becomes so popular. She is a proud daughter at home too. Now, for the last round of the event, she leaves for the US to compete with the defending champion, Gobayashi.

Trial

Juhean LEE



**Born in Incheon. Works as a screen writer and director.
Enjoys co-writing with his wife, KIM Sumi, a playwright.
Rather than limiting himself to one genre, he pursues multi-genre film that feels like a roller-coaster ride.**

HISTORY

Graduated from Se-il High School, Incheon

Graduated from Seoul Institute of the Arts in film

1995 Started working in the film industry with <Millions in My Account>

1997 Second assistant director of <Deep Blue>

2000 Assistant director of <Ditto>

2012 Director of MBN TV Film <Knock>

AWARDS AND SELECTION

2003 <Won't Hold You Tonight>

- won comedy prize at the award hosted by Sidus HQ and Screen

2014 <N.S.I>

- won Cheong Song White Porcelain Award at BIFAN 2014

WORK

2009 Screenplay of <Fortune Salon>

2011 Embroidered scripts of <LOVE FICTION>

2012 Adapted <Code Name: Jackal>

2012 Screenplay of MBN TV Film <Knock>

2014 Screenplay of <N.S.I>

Work Note

In 2000, a serial killer named Jeong Duyeong killed nine people and caused severe injury to 12 people. When people asked him why he committed the crime, he answered, "I don't know. It just happened. There is a demon in me. It's the demon who committed the crime." I wondered what if what Jeong Duyeong said was true and came up with the story. By developing a story based on a true story, I intend to give the audience a sense of déjà vu while completing a never-seen-before, high-quality film that flexibly combines psychological legal thriller with occult horror instead just infusing the audience with fear.

Synopsis

Seungheon

"I will show how scary the law can be."

An attorney filled with a fighting spirit and will to bring righteousness. A hot single guy who enjoys active sports. As a member of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ungheon speaks for those without money or connections and therefore is poor and has many enemies. He is obsessed with establishing his public image because he desires to enter the political circle. He thinks dearly of his father, who raised him by himself.

Jiwook

"I didn't kill those people. It was the demon inside me who killed them!"

A young man in his early twenties, suffering Asperger syndrome. Jiwook's childhood was harsh as his father is a boss of a gang. When he was young, his mother was killed by the rival gang, leaving him the trauma which has become a rage towards his father.

Detective Choi

"What? A sense of duty? I capture criminals because it pays my bill every month."

An experienced homicide detective who is about to retire. Detective Choi used to be a man of principle when he started his career, but when his case was turned upside down due to those in power, he learns to compromise with the world. Though he is physically getting old, his keen sense as a detective is still young and fresh.

Park Haecheon

"In the world that I'm living in, showing mercy becomes your weakness."

Park Haecheon is Jiwook's father and a living legend among the gangs. He can be described in two words: charismatic and cold-blooded. He is so terrifying and cold that he can freeze the atmosphere just by entering the scene.

Hwang Yongcheol

"My life may be a wreck, but I have a great son."

Hwang Yongcheol is Seungheon's father and a patient in the late stage of chronic renal failure. He may not be friendly, but he is a warm-hearted man who made what Seungheon is today. He feels terrible that he has become a burden to his son because of his illness.

And, the mysterious demon.

A park in the middle of the day.

Jiwook, covered in blood, walks and sits on a bench.

He is holding a bloody kitchen knife. People at the park panic by the scene. Jinwook sitting on the bench closes his eyes as he falls into a deep sleep.

Jiwook sneaked into a wealthy mansion and brutally murdered the entire family with the kitchen knife taken from the sink. Detective Choi, who is in charge of the case, feels something fishy about it. Given that there were no attempts to steal the money and the valuables, Detective Choi knows from the experience that it's a passion-induced crime. However, Jiwook doesn't have any reasonable motives to murder as he doesn't know the family at all. On top of that, he was just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a day ago.

Plus, Jiwook is the only son of Park Haecheon, the boss of the biggest gang in Korea.

"A red light called me," says Jiwook during the questioning. Detective Choi pressures Jiwook to

answer what the red light is, but Jiwook stops talking.

While inspecting the crime scene with Jiwook tied in ropes, Detective Choi stares at the red security light at the front door entrance installed by a private security company.

Seungheon is an attorney beloved by Korean citizens that even the political circle sends him a love call. However, his father who suffers from a chronic renal failure always troubles his mind. He is sorry because his father raised him all by himself without getting married again after his mother has passed away. When the doctor tells him that his father's life could be in danger unless he receives a kidney transplant soon, he secretly contacts an organ trafficking broker, who asks for a significant amount of money he can't afford.

On that night, a middle-aged man comes to Seungheon's office. He is a gang's boss and father of Jiwook, Park Haecheon. He asks Seungheon to defend his son. Seungheon turns it down because it is evident that Jiwook is guilty and because his public image can get hurt by defending him. When Park Haecheon offers a free kidney transplant for his father, Seungheon reluctantly accepts the job.

On the first trial, Seungheon only made a perfunctory effort, finishing off his defense asking for mercy to the judge. When the DA asks Jiwook what his motive of the crime, he answers, "I didn't kill them. It was the demon inside me who killed them."

His answer stirs up the court while Seungheon sees the fire burning in Jiwook's eyes.

Seungheon finds Gayeong, his first love from his school days and psychiatrist, and asks to do a psycho-analysis of Jiwook. While scanning Jiwook's brain, Gayeong discovers that his brain emits far less serotonin, a neurotransmitter that brings psychological stability by suppressing anger, than ordinary people. Seungheon is happy that he now has favorable, objective evidence which was used to reduce a sentence in several cases abroad. Gayeong promises Seungheon to give testimony on his next trial. However, right before the hearing, Gayeong comes to Seungheon. She is not in her usual bright, bold mood. Shaken by the unknown fear, she says she can't do psycho-analysis of Jiwook anymore and disappears.

On the next day, Seungheon is shocked to hear that Gayeong died from a strange car accident. He was told that Gayeong, who was driving, jumped the lights, dashed towards the pedestrian walk, causing multiple casualties, and died at the scene.

At the moment, Seungheon remembers Jiwook saying, "the demon inside me killed them." Then he checks the voice message that he couldn't check before and hears the voice of Gayeong in terror. She says that she saw the demon inside Jiwook while doing a hypnosis therapy to revive his memories.

Seungheon is pushed into a corner during the trial because of the mysterious death of Gayeong,

and a witness and evidence against Jiwook. If Seungheon loses this trial, Jiwook would get a severe sentence, and the chance to investigate Gayeong's death would be gone.

After thinking hard, Seungheon proposes an idea that can change the game: to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the demon by performing a spiritual ceremony at the court. While the DA thinks it would be a contempt of a sacred court, Seungheon insists it's the only way to find the truth. The judge holds Seungheon's hand.

'Will they prosecute a murderer possessed by a spirit?' An unprecedented hearing takes place at the court. Seungheon invites an eccentric psychic and performs a ceremony on Jiwook to summon the spirit. After a while, a spooky atmosphere surrounds the court, and the demon inside Jiwook wakes up. People watch the scene in awe. Suddenly, the court becomes chaotic when people try to kill one another as they were possessed by the evil spirit.

Meanwhile, Detective Choi heard something unexpected from Haecheon: a year ago, there was a shooting in the military unit that Jiwook served. Jiwook was close to the senior officer who fired the gun, and they were both on guard that night.

What happened between the two?

Due to the unfortunate accident at the court, Seungheon's reputation plummets. He is fired from his cases and is referred to the disciplinary committee, putting his career in danger. What really scares him, however, is the sudden urge to kill, which he has never felt before.

Seungheon visits Jiwook who is now transferred from jail to a psychiatric hospital where he runs into Detective Choi. Together, they meet Jiwook who now looks like a living corpse. Detective Choi pushes Jiwook to say what really happened on the night of shooting with his senior officer. Instead of answering him, Jiwook asks Seungheon if he feels the urge to kill someone these days. Seungheon immediately realizes that there is a reason why Jiwook hired him as his attorney. "The demon inside you didn't kill those people. It was you who killed the demon, wasn't it?" asks Seungheon. Then Jiwook keeps on saying, "The demon must die!" and have a seizure.

While investigating the military shooting case from a year ago, Seungheon and Detective Choi heard that the shooter killed himself on the day Jiwook was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Does that mean that the demon in him has transferred into Jiwook? The guard post that Jiwook and Taemin were on duty has moved, leaving only traces. Suddenly, Detective Choi remembers a case from 38 years ago that he forgot or wished to forget. In the spring of 1980, Yeonhui, a high school student who lived in the town was raped by airborne soldiers who were on the move. Yeonhui's father asks the police to punish the soldiers, but there wasn't a proper investigation as the military held power at the time under the martial law. Detective Choi, then a rookie, was forced to stop his

investigation due to the pressure from those in power. In the end, Yeonhui hung herself and died, blaming the soldiers who raped her and the world. Is Yeonhui getting her revenge through the body of Jiwook?

Seungheon and Detective Choi come back without producing any results. When the light turns red on the crossroad, Seungheon stops the car. The red light reminds Seungheon of Gayeong's accident, but fortunately, he does not feel any different.

Suddenly, possessed by the demon, Detective Choi on the passenger seat tries to kill Seungheon. Detective Choi takes out a gun and pulls the trigger. Seungheon slams on the brake and barely avoids the bullet. The struggle between the two continues. Detective Choi strangles Seungheon. When Seungheon barely escapes his death, Detective Choi finally comes to his senses. The two fear that they might become murderers like Jiwook if they can't lift the curse of the demon. Suddenly, Detective Choi attacks Seungheon again, leaving him unconscious. After a while, Seungheon wakes up and finds a note left by Detective Choi.

"The demon is the girl from 38 years ago. I will put an end to the case that I couldn't finish before."

Detective Choi violates the protocol, takes Jiwook out of the hospital, and arrives at the site where Jiwook was on guard a year ago. At the place where Jiwook got possessed, Detective Choi points his gun at Jiwook. When he is about to pull the trigger, Seungheon arrives and stops him. Covered in guilt and fear, Jiwook tells them what happened that night.

A year ago, Jiwook, who was on guard with his senior officer, found a woman lost in the darkness. Aroused by the beautiful woman with white legs revealing through the pieces of the skirt torn by tree branches, the senior officer persuaded Jiwook into raping her. The senior officer approached the girl as if he would help, but suddenly covered her mouth and undressed her.

Jiwook, who was waiting for his turn at the post, looked suspiciously at his senior officer who seems bewitched. Thinking that it must not be a big deal, Jiwook walked towards the girl. When he hugged the girl lying on the floor without her skirt, she transformed into Yeonhui who became a demon. Jiwook stood up screaming out loud then heard a loud gunshot from the barracks. When he turned his head, Yeonhui was gone. His confused look changes into the current face of Jiwook. Jiwook kneels and weeps, asking for forgiveness. Seungheon and Detective Choi look at him in the hopes that the curse is lifted. Seungheon finds something shiny on the floor. He picks it up. It's an old military dog tag. His eyes open wide when he sees the name on the dog tag.

Seungheon drives in a serious mood with Detective Choi in silence.

"If I try to kill someone, just shoot me first," says Seungheon.

The name on the dog tag was Hwang Yongcheol, Seungheon's father. The psychic phenomenon around Seungheon and Jiwook and the reason Jiwook hired Seungheon as his attorney are now

clear.

Hwang Yongcheol, who is on dialysis at the hospital ward, enjoys the surprise visit from his son. However, he is shocked to see the dog tag that his son handed to him.

On the day, 38 years ago.

The red military light flashes in the eyes of Yeonhui. Breathing heavily, the soldiers take a turn to rape Yeonhui. Her eyes are filled with fear. The faces of the soldiers in camouflage are like those of demons to Yeonhui.

In the hand of Yeonhui, there is a dog tag that she took from a soldier.

Possessed by the spirit of Yeonhui, Seungheon tries to kill his father for revenge. In spite of Detective Choi's efforts to stop her, Yeonhui's spirit in Seungheon pulls out the tube connected to Hwang Yongcheol's arm. His blood spurts from his arms due to regurgitation. It's not going to take long until Hwang dies. Detective Choi points his gun at Seungheon, but he can't pull the trigger.

Hwang Yongcheol's breath fades away. He looks calm as if he accepts the faults he made. Suddenly, memories from the past flood into Seungheon and Yeonhui.

Seungheon, who was fighting the spirit inside him, breaks into tears as Yeonhui's spirit disappears. A nurse hurries in and reconnects the tube to Hwang Yongcheol, and he quickly becomes stable. Detective Choi sighs in relief saying, "Good, the curse is gone." Suddenly, his eyes shine in red then he hugs Hwang Yongcheol and throws himself out of the window. Seungheon looks down at Hwang Yongcheol and Detective Choi bleeding to death on the cold floor. Did Yeonhui not forgive the perpetrator and the onlooker?

Run Away From The Night

Sinchoon CHOI



Born in Seoul, 1986. CHOI Sinchoon has directed shorts and documentaries. CHOI used to work as a data manager for films and director for viral advertisements. Now, CHOI is writing scenarios for feature films.

HISTORY

Graduated from Korea Animation High School, Film directing
Graduated from College of Law, Kookmin University, Public Law
Graduated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Filmmaking (M.F.A)

AWARDS AND SELECTION

- 2008 Directed documentary film <Part-timer Manifesto>
- won the grand prize at RTV College Student Film Contest, screened at Seoul Independent Documentary Film Festival
- 2010 Directed documentary film <I'm A Loser, Baby>
- won excellence award at OBS Film Festival, Opening Film for Seoul Independent Documentary Film Festival
- 2010 Wrote and directed <The Most Usual Bubblegum>
- won EOS MOVIE Cinematography at Seoul International Extreme-Short Image & Film Festival
- 2011 Directed <The Lucky Gumboy>
- screened at Mise-en-scène Short Film Festival, Daegu Independent Short Film Festival,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 2014 Wrote and directed <Trampoline Express>
- screened at DMC Short Film Festival, Roxie Theater New Korean Films

WORK

- 2011 Assistant director of feature film <Dear Dolphin>
2013 Data manager of feature film <The Suspect>
2014 Data manager of feature film <Perfect Proposal>
2014 Data manager of documentary film <Roaring Currents: The Road of the Admiral>

Work Note

Moonlight Flit is a story about people who run away at night. They flee from the darkness and evil. For those who have to wipe everything out and start a new life again, you are ready to do a moonlight flit.

Synopsis

Sangrok (30s, Male)

Sangrok, a private investigator who runs Evergreen Investigation Firm, helps seniors with dementia or finds wives who ran away from home or other missing persons. His firm is in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the less-profitable demands.

Hwagyeong (40s, Female)

Though she seems soft on the outside, she looks somewhat resentful. She said she is an ordinary housewife, but that proved to be a lie as her past is revealed.

Yeongmi (20s, Female)

Yeongmi works at a used car dealership. She lends a truck to Sangrok, who she is dating secretly, for his moonlight flit. She searches for Sangrok when he disappears unexpectedly.

Pilgu (20s, Male)

Pilgu also works at the used car dealership. He is the owner of the truck that Sangrok borrows. Pilgu is a North Korean defector, and he had hidden something important in the truck. So he goes after Sangrok with Yeongmi.

Yeongcheol (30s, Male)

Yeongcheol is the owner of the used car dealership. He has been a great friend and enemy to Sangrok since high school. Yeongcheol is Yeongmi's brother.

Ipsae (10, Female)

Ipsae is Hwagyeong's daughter. She naively trusts her mom.

Dongcheon (10, Male)

Dongcheon is Hwagyeong's son who does not trust his mother.

Chiho (40s, Male)

A mysterious man who fiercely chases after Hwagyeong.

<Evergreen Investigation Firm>

Specialized in finding people, resolving family troubles, and reinforcing a company's security.

We can help you with whatever you need.

Call Han Sangrok 010-XXX-XXXX

A motorcycle enters a food alley around dawn. The guy on the bike quickly throws his business cards one after another. Every single business card flying around finds its way into the car windows and door cracks. The guy on the bike is Sangrok. One day, a tired-looking, middle-aged woman comes to his office and asks for something that he has never heard of: to hide her and her children.

"I urge you to make me disappear from this world.

I want to start all over again."

Usually, Sangrok turns down such request at once, but he takes the job. It's because he felt guilty when Sina, a Vietnamese wife, was beaten to death after he turned down her request.

Sangrok borrows a truck parked at the car dealership from Yeongmi and does a moonlight flit with Hwagyeong and her children, Dongcheon and Ipsae. Sangrok's truck manages to leave Gyeonggi Province away from Chiho and other creditors who chase after Hwagyeong. Well past the midnight, Sangrok chats with Hwagyeong to stay awake and starts to feel that she is not an ordinary housewife.

While feeling uneasy, Sangrok stops at a rest area by chance then runs into Chiho and other creditors who were chasing after Hwagyeong. Ipsae, Dongcheon, and Hwagyeong scatter away when Sangrok takes an unexpected blow from Chiho. "Song Chiho from homicide squad, 00 Police Station." Sangrok realizes that Chiho is not a creditor like Hwagyeong said, but a homicide detective.

Deceived by Hwagyeong who is wanted by the police for an unknown reason, Sangrok ends up stuck in the truck's freezer.

Meanwhile, three people hit the road to find Sangrok who is now in danger: Sangrok's girlfriend, Yeongmi; Pilgu, who hid "binggu," meth from North Korea, in his truck; and Yeongcheol who is furious that Sangrok stole his truck from him. Though Hwagyeong strives to run away from Chiho, the detective who is after her, it is not easy to escape from his grasp.

Sangrok finds out that Hwagyeong has lived in seclusion with a fake identity after she successfully escaped her previous life by doing a moonlight flit a long time ago. Sangrok also discovers that she worked as a social worker and operated a facility for the disabled and homeless people while Chiho, a corrupt detective, has assaulted her and forced to pay him a bribe.

Sangrok is now in a dilemma. Is he going to help Hwagyeong who tries to escape with her children from Chiho or is he going to break the contract as the client deceived him and put him in all these troubles?

"No matter what, you are my client of the night."

Sangrok decides to help Hwagyeong at the request of the young Ipsae and conducts a fake negotiation with Chiho using binggu as a bait. Yeongmi, Pilgu, and Yeongcheol help Ipsae and Dongcheon who were in danger while Sangrok saves his client, Hwagyeong, from Chiho.

Sangrok sends home everyone at the Hwagyeong's facility who was actually reported missing. Also, he reports to the police that Chiho intended to do a drug dealing and wins the recognition from them as a detective. Just like the request that she proposed to Sangrok, Hwagyeong successfully disappears from her tragic life. After settling down at a beach, she prepares for a brand new start with her children.



在庆熙大学电影系专修演出，经历过多种现场的副导演。

目前作为Bangfilm代表导演，企划、演出TVCM、病毒视频以及网络电视剧。

为实现自己最终目标的电影导演，不断开发想法，编写剧本。

简历

庆熙大学戏剧电影系毕业

DK Media企划制作人

现任Bangfilm股份有限公司代表导演

获奖或评选

2003 短片《搞坏地球》剧本/导演

- 2003国际大学生电影节非竞争部门

2008 短片《家家酒》剧本改编及共同导演

- 2009奥林匹克儿童青少年电影节竞争部门

- 2009Parvin E'tesami影展（伊朗）

- 2009棕榈泉国际电影节竞争部门（美国）

- 2009首尔国际青少年电影节

- 2009 ShortShorts亚洲电影节亚洲竞争部门（日本）

2015 短片《葬礼希望》剧本

- 富川国际幻想电影节非竞争部门邀请（2016）

2017 短片《一个乔迁宴》剧本/企划

- 第1届首尔电影节大奖

创作作品

2003 短片《搞坏地球》剧本

2008 短片《家家酒》剧本

2015 短片《葬礼希望》剧本

2015 电影《仙英消失了》剧本

2016 电影《春天》剧本

2017 短片《一个乔迁宴》剧本

2017 电影《Countryroad》剧本

作品意图

我已经到了三十多岁的年龄段，在济州岛旅行中一个民宿里认识了十五六个人。我们互相简单介绍自己的基本信息，好像大家都在等着介绍结束，开始热烈的谈论，主题纵横时事、政治、经济，聊了很久。在我耳边，他们的故事变成杂音，正想离开这里去睡觉的时候，年轻的女孩子们（说是刚毕业高中的2名20岁同龄朋友）谈的内容，让我注意。

她们说的故事是高中时她们的社团，名叫胖团（意指胖子社团，“吃”就是她们的爱好也是专长，要符合她们自己定的标准——体重高于60公斤，才能进入的社团，成员高达30人左右！），简单说她们社团的哲学，就是“吃”也有挺严格的规矩。名副其实的“吃好的方法”，这是从“点菜的方法”，“吃的顺序”到“吃的方法”等等，一切是都有“体系”的。她们还叹气说，人们不懂这些，侮辱这种神圣的行为。这样热烈辩论社团哲学和信念，她们好像回到那个时光里，描绘小吃店的空间、空气、老板娘的动作，在虚空中示范在吃东西的哑剧，她们的表情和重演方式多么有生动感、多么精彩，让我错觉那鱼饼快要进我的嘴里。

有人看这会说“你才拿这个当成青春的梦想和专长？”，可是当我看到她们无忧无虑，开心天真聊天的样子，觉得我小时候班主任说的“不让你心动的青春有罪！”这番话太苛刻。有人会在自己热情上加燃油，既然是青春，可以接受一些痛苦，现在的1分钟无法与未来交换的，不会浪费时间，设计自己未来。但我想这些少女们重返那个时代，也是不会要求太大的，即使没有对未来的想法和梦想，也会感谢现在，做自己的最大努力，做什么事都会开开心心过生活的。

有些人对他人生活没有关怀、也毫无诚意，他们生产出像污染般的单一化视线，加上我们写出“长辈”、念成“老头”的人们奠定“激烈=成功”这样的公式，这到底让我们的生活质量变得多么丰富呢？即使盖着被子大哭一场，呆呆看空中呼吸，谁能说这些是没有意义的？

这部电影用与其他青春片有点不同（？）的语法，肯定能展现出愉快的“成长！”。

剧本大纲

信爱（19，女）

与爸爸、妈妈、患有痴呆症的奶奶一起生活的信爱，是普通的高中生。她有一个成绩好，漂亮苗条的姐姐，周边的人总是比较信爱和她姐姐。信爱19年的人生现在套上“高三”的标题，好像该决定什么的时候了。是不是妈妈周边有特别多的“高福帅”和“白富美”，妈妈出去见人回家后的唠叨日益增加，信爱的苦恼也随之增加。一天一天，这样勉强过“九道门槛”的信爱，偶然在小区举办的竞吃比赛中发现，自己对“吃”有非凡的才华。有朋友“瑟罗”的帮助，发现竞吃比赛选手（foodfighter）职业。信爱认为靠自己才华能够帮助父母，将世界大赛冠军作为目标。但是周边人的消极视线和朋友之间的摩擦使得信爱动摇。信爱快要放弃的时候，得知了一直支持自己的瑟罗其实赌自己团长位置，让信爱进入小胖社团。认真考虑的信爱，还是为瑟罗，以及为专属于自己的快乐，决定要加入小胖。信爱轻而易举的赢了一直嫉妒自己的森娜，加入小胖。认出信爱真心的社团朋友们和家人都帮助她，信爱决定参加世界大赛，挑战卫冕冠军小林。

瑟罗（19，女）

另类，活泼，愉快的瑟罗是社团“小胖”的团长，也是信爱最好的朋友。看见信爱在猪排店的竞吃比赛中轻轻松松做完任务的样子，指引她竞吃比赛选手的路。为了信爱，她可以让步自己珍惜、守护的小胖社团的团长位置，她是真正的知音。变红之后有所改变的信爱给她一定的伤害，但她一直相信信爱，帮她挑战世界大赛，信爱最好的助手。

森娜（19，女）

个性炫酷的森娜是小胖社团的副团长。小时候最要好的朋友上中学以后，开始执着于外貌，终于开始跟其他朋友骂森娜，欺凌她，这个事情成为她的心理创伤。体重多少，她就相信多少，森娜有一个坚定的哲学，又瘦又美的人没有素质。她不能看好要加入小胖的信爱，事事件件找她的把柄，可是到最后森娜也感觉到信爱的真心、给帮助，她是一个外硬内软的人。

妈妈（48，女）

对妈妈而言，世界上最重要的是他人的眼光。社区的再开发工程已经确定了，但缴不了分担金，不能购买预售的公寓，但她意识到周边的眼光，不知所措左右为难。在这烦闷的时候，那讨厌的微笑妈妈自夸女儿的程度越来越深，转头看看女儿信爱，让人气冲头顶。她曾相信假装一下，可能会跟得上所谓走红的人，当她的确信快要崩溃的时候发现女儿信爱不顾周边人的眼光，全力挑战什么东西，在多数大会上获奖拿到的奖牌。看似不会改变的信爱妈妈，看着真心挑战、实现的信爱，妈妈的想法也逐渐改变。

Prologue

到了高3的年级，但还没决定自己梦想或自己前途的主人公信爱（19，女）。有一天与自己的好友瑟罗（19，女）看到在猪排店举办一个竞吃活动。正好用光了零用钱，在自己最喜欢的午餐时间快要变成折磨她的时间。信爱相信，这必定是上天为她准备的机会。信爱推开阻止她的瑟罗，挑战活动，与大家所预测的不同，轻轻松松完成了任务。

吃喝的社团“小胖”团长兼曾经在许多全国大会夺冠的瑟罗在看信爱吃的样子，说她是唯一能够应对竞吃比赛界卫冕冠军小林的人。其实瑟罗是不管说什么，里面完全没有真诚的，信爱把它当成耳边风，瑟罗再说这个大会的奖金高达1亿韩元。信爱的眼睛开始动摇。这也能理解。信爱家住在再开发地区，他们没有缴纳分担金，也没有收取补偿金而出。信爱虽然不懂大人的事，但看气氛已经察觉到钱是最大问题，如果像瑟罗说的一样，自己有竞吃选手天赋的话，可能在家里不用再当丑小鸭，这是一个可变成‘美小鸭’的机会。

凭挑战成功的时候拿到的奖品，每天中午去猪排店的信爱。她在新开的店里看到打工生（21，男），开始心动。而且他主动跟信爱打招呼说，你做到没有人成功的任务。信爱觉得自己会喜欢上他，但在一方有一群不良学生看她看不顺眼。

要正式准备竞吃比赛的信爱，找瑟罗的小胖社团，想加入社团，但体重不到65公斤所以被拒绝。团长瑟罗也不能随便修改规矩，想方设法把她加入到里面，这时信爱请瑟罗，把小胖的竞吃比赛信息交给她。对好友的请求，瑟罗把小胖拥有的所有全国竞吃比赛信息交给信爱。资料上有各种比赛的说明和秘诀，信爱基于这个文件参加全国各比赛。好像证明瑟罗预言一样，从第一次比赛开始夺冠的信爱，接着这个趋势，参加全国所有比赛，统统都拿冠军。

信爱占领所有大会，小胖感到危机感。尤其反对信爱加入的森娜（19，女）气得要命，快要爆发，但团长毫无担忧的样子更加让她不高兴。终于森娜开始怀疑瑟罗，被逼到角落的瑟罗，赌自己的团长地位，选定信爱的加入测试日期。

在全国各大大会拿冠军，确认自己才华的信爱开始播网络吃秀。她那与众不同的吃秀受很大的欢迎，信爱频道的订阅人数很快破万，现在在上街、在学校，有些人开始认出信爱。信爱通过吃秀也获得不少收入，随之开始在乎外貌和他人说的话。加上，信爱和自己喜欢的打工生去约会，信爱觉得自己要管理外貌，开始放弃竞吃比赛的参加。现在的信爱不用说世界大赛的预赛准备，做吃秀，也躲避瑟罗的联系，瑟罗觉得不对劲，也觉得很疏远。因为自己相信的最好的朋友，会失去自己最珍惜、对自己最重要的社团‘小胖’，瑟罗这么想，抱怨信爱。

不理自己警告，一直徘徊猪排店打工生周边的信爱，不良学生们终于把信爱叫到学校屋顶。她们在那跟信爱说，那个打工哥哥是自己人的姐夫。但信爱明明记得前几天在电影院里搭自己肩膀的他，心想肯定有误会。她们把手机交给她，通话内容却令人惊讶。“爸爸说为猪排店宣传，要对她好

点！我也不喜欢，真的！！”

受到冲击的信爱，不吃不喝，过得毫无力气。她有了想当竞吃选手的梦想，人生第一次努力做自己喜欢的事，但这一切都在一瞬间塌下来，感觉好像一无所有。看着她的妈妈，瑟罗都觉得可惜，她们也觉得这里好像有自己的责任，不敢伸出手，珍贵的时间就这样过下去。有一天，上学的路上因脱水，昏倒的信爱。被某人背着到保健室。

睁开眼睛的信爱，发现今天就是小胖的加入测试日。犹豫的信爱。时间就这样过着，小胖的人们想信爱不会来，开始收拾。瑟罗也认输，要让团长地位的那一刻！门被打开，信爱进来了。这样开始入团测试。半个多月没吃没喝的信爱，看见碗面就失去理性，开始疯狂的吃。信爱，终于赢了森娜瑟罗，加入小胖。

为世界大赛，一起准备国内预赛的信爱和小胖会员们。吃多了会开始打盹的信爱，为克服她的这个弱点，继续做种种锻炼。比赛当天，家人和朋友们在看，上台的信爱。当记者的姐姐也为比赛采访来到现场，看见信爱。大家的加油，比赛开始了，初期维持快速的信爱，过了一半她的速度变慢。难上加难，因睡意摇摇不稳的信爱，她和第一名的差距逐渐被拉大。加油的人们也慢慢放弃，用耳机听前一天森娜给的曲子。这是录音在学校食堂里放的古典音乐和那空间的声音。闭上眼睛，进入无意识的信爱。快速追击第一名。时间铃响了，成绩平分的两个人。紧张的时刻，对方挑战者的手上发现藏好的香肠，信爱获取世界大赛的参与权。

作为女高中生，首次参加竞吃世界大赛的信爱，人气冲天。现在，信爱在家里是个骄傲的女儿。为参与卫冕冠军小林的决战，向美国出发。

裁判

李柱宪



仁川出生，电影剧本作家兼导演。

喜欢与戏剧作家太太（金秀美、音）的联合编辑。

与其拘泥于一个类型，不如追求复合类型的电影，这让人感觉到过山车的快感。

简历

毕业于仁川世一高中

毕业于首尔艺术大专电影系

1995 电影《拿钱走人》进入电影界

1997 电影《深深地忧伤》第2副导演

2000 电影《同感》副导演

2012 MBN TV电影《鬼影敲门》导演

获奖或评选

2003 《今天不抓你》SidusHQ&Screen主办，喜剧部门获奖

2014 《网友侦察队》获得2014富川国际幻想电影节NAFF it project青松白瓷奖

创作作品

2009 电影《清潭菩萨》剧本

2011 电影《爱情小说》润文

2012 电影《胡狼来了》改编

2012 MBN TV电影《鬼影来了》剧本

2014 电影《网友侦察队》剧本

作品意图

2000年杀害9人，给12人重伤的连环杀人犯郑斗英。

他被逮捕后，对为什么做这种事的提问回答，

“不清楚，不知不觉……我里面有恶魔，是那恶魔做的。”

我假设‘如果郑斗英的话是真实的？’，完成我的故事。

《裁判》以实际事件为基础，适用法庭心理惊险和神秘恐怖片的灵活结合，追求高水平的电影。

剧本大纲

承宪

“我就让你体会照法律做是多么可怕的！”

义气满满的战士律师，未婚，喜欢做剧烈运动的魅力男士。

促进民主律师协会所属，辩护没钱没背景的人，自然没钱，敌人却多。

但他这么执着于对外形象，是因为他有“政坛进军”的欲望。

他对从小一个人养大自己的父亲怀有心疼的感觉。

志旭

“我……没杀他们。杀他们的……是我里面的恶灵！！！！！”

患有阿斯伯格症候群的20来岁青年。

虽然有障碍，拥有黑社会老大的父亲，经历过艰苦的成长过程。

在幼年时代，由对立的黑帮杀死母亲，这事件留下的创伤转变成对父亲的愤怒。

催班长

“哪儿有使命感？只为每个月准时到的月薪抓犯人”

快要退休的资深重案组刑警。

要坚持原则的初任刑警时期，自己侦查的事件遭到权力方的阻碍，推翻了侦察结果。

之后他沦为和世界妥协的人。

身体不如以前，但刑警的本性依然锐利。

朴海天

“在我的世界……宽容就是弱点”

志旭的父亲，黑帮界鲜活的传说。

形容他的词就是“领袖气质”和“冷血”

他的出现就可以降低周边温度，颇有压倒性，也很寒冷。

黄龙哲

“我的人生可能是草包，但我儿子真了不起。”

承宪的父亲，肾功能衰竭终末期患者

打造今日承宪的人，步态体贴，但内心温暖的人。

觉得自己的病给儿子包袱，总是很难过。

还有……

秘密的恶灵

白天，市区的公园。

血液淋漓的志旭，蹣跚走过来坐上长椅。

他的手里握着一把沾血的菜刀，公园里看见他的人开始惊恐……

坐在长椅上的志旭，慢慢闭眼睛，沉睡。

志旭刚刚潜入一个有钱人的豪宅。用从橱柜拿的菜刀，残酷杀害一家人。侦查案件的催班长还是不能不想几个疑惑。这里没有企图金钱的痕迹，按经验，肯定是痴情引起的杀人。但志旭与受害者家人没有一面之交，而且他是前一天刚刚退伍的人，他的犯罪动机不明确。

而且志旭是人人都知道的韩国最大黑帮老大，朴海天的独生子。

“红色光叫了我”，审讯中从志旭口中出来的一句话。

催班长追问那红色光是什么，催促他，但志旭不再说话。

带着被警绳捆绑的志旭进行现场验证的催班长，在大门口观察私立保安公司设置的红色警卫灯。

被称为国民律师的承宪，他的人气红得受到政界的邀请。

但他因为患有肾功能衰竭的父亲，总是放不下心。

小时候失去母亲的承宪，他父亲至今不再结婚而自己养育他，所以承宪更心疼父亲。父亲的主治医说，赶紧要做肾移植，不然有生命危险。承宪秘密找器官中介人，但中介人要求无法承担的巨额。

那天晚上，来到承宪办公室的中年男子。

就是黑帮老大朴海天，要求自己儿子志旭的辩护。

这是无论怎么看，明明有罪，也考虑到自己形象，志旭拒绝他的委托。但他说会通过中介人，让承宪父亲做免费器官移植，承宪无奈地接受。

案件发生后，第一个公判。

以表面上的业务态度做到底的承宪，最后以‘只希望审判长善处’结束辩论。

检察官问犯罪动机，志旭说出无根无据的发言。

“我没有杀人。杀他们的是……我里面的恶灵。”

一度，法庭动摇了，承宪发现志旭的强烈眼光。

承宪去找学生时代的初恋兼心理医生的嘉英，向她委托志旭的精神分析。嘉英进行志旭的大脑检查，发现他所生产的血清素比一般人少。血清素是压制愤怒的感情，带来情绪稳定效果的脑袋神经传达物质。

最近在几个外国案例中，这种结果被用为减刑的根据，现在有了可以主导裁判的客观证据，开心的承宪。

嘉英答应在下一个裁判上发表证言。

可是裁判之前，突然来找承宪的嘉英。嘉英跟她平时活泼、坚强的样子不同，由于不知实体的极度恐怖，说不能再做志旭的分析，走了。

第二天，承宪听到嘉英因疑惑的交通事故而死亡，受到冲击。

开车的嘉英不顾红灯，往人道冲上去，造成多数的伤亡者，自己在当场死亡。

那刹那承宪想起了，说“是我里面的恶灵……杀人了”的志旭。然后确认还没听取的语音讯息，听到嘉英被恐惧笼罩的声音。

内容是她为激活志旭的当时记忆做催眠的时候，看到志旭里面的恶灵。

嘉英的疑问死亡，加上对志旭不利的证人、证据，裁判逼到劣势。

如果在这裁判中输掉的话，志旭会被判为重型，追溯嘉英死亡的机会也会一起消失，承宪的苦恼越来越严重。

长长的苦恼后，承宪抛出最后的筹码。在法庭进行降灵仪式，澄清恶灵的存在。

检察官强烈反驳，这是在神圣的法庭搞秀的，承宪说这是查明真实的最后一个试图，两者的意见尖锐相碰的法庭，审判长举承宪的手。

“由凭依现象的杀人，能处罚吗！”在法庭进行一个史无前例的审理。

承宪邀请奇人风格的巫师，开始做以志旭为对象，招魂的仪式。

稍后，寒冷的气氛席卷法庭，在志旭身体里面凭依的恶灵觉醒了。

观看这个场景的人都很惊恐。

法庭马上变成被恶灵凭依的人们互相杀害的战场。

催班长从海天听到意外的消息。一年前在志旭当兵的部队里发生过枪械乱射事件，志旭跟当时事件犯人上级兵的关系较好，事件发生的那天他们两个一起做执勤。

那天晚上，在那两人之间发生了什么事……

因裁判上不光彩的事件，承宪的声誉也急速坠落。

在他负责的诉讼中被解雇，被送到惩罚委员会，他的律师生命岌岌可危。

但是真正让他感到恐惧的是，从未感觉过的杀人冲动。

志旭从监狱移交到精神医院，承宪在医院门口碰巧催班长。

在会客室见到的志旭可以说是还活着的尸体，荒废的样子。

发生枪械事件的那天，跟上级兵执勤的时候发生了什么事，催班长强有力的追问。

志旭不回答，反而问承宪最近有没有想杀死什么人的冲动。

承宪直觉到，志旭选任自己作为律师，肯定有原因的。

“不是你里面的恶灵杀人。你……杀了恶灵，对吧？”

承宪问，志旭只反复“一定要杀恶灵！！”，开始发作。

调查一年前的枪械事件的承宪和催班长，听到当时事件的主犯上级兵于志旭退伍的那天，在军队监狱里自杀了。

那么原在上级兵身上的恶灵凭依到志旭了吗？

志旭与泰民执勤的哨所，现在整个部队搬迁了，只留下痕迹。

催班长的脑海里浮现出期间忘记的，不，是想要忘记的，38年前的事件。

1980年春天，当时住在这村里的高中生莲熙被当时在移动的空降部队军人们受到集体强奸。莲熙父到警察署恳求军人的处罚，但当时是在戒严令下由军人掌控公共权力的时代，无法进行正常侦查。

当时刚当警察的催班长也受到上面的压力，不得不中断侦查。

最后，莲熙抱怨强奸自己的军人和世界，在部队附近吊脖子自杀了。

是不是38年前的莲熙借用志旭的身体做报仇？

毫无收获的，回首尔的承宪和催班长。人行道的信号转为红灯，停车的承宪。忽然想起看到信号灯的红灯，起车祸的嘉英，幸好自己没有什么变化。

这时，坐在旁边的催班长被恶灵凭依了，要杀死承宪。

拿枪扣扳机的催班长，承宪踩急刹车，好不容易避开子弹……

接下来的格斗，催班长勒紧承宪的脖子。

在死亡的门槛上避免危机的承宪，催班长也清醒了。

两人陷入一种恐惧，如果不能解开这个恶灵的诅咒，会像志旭变成杀人犯。那瞬间被催班长的攻击，昏倒的承宪。

不知过了多长时间……睁开眼睛的承宪发现催班长留下的纸条。

《恶灵是38年前的那少女……我来总结当时没做完的案件》

催班长打破规定，从精神医院带志旭出来。

然后来到一年前志旭执勤的那里。

志旭被恶灵凭依的那里，催班长拿出枪，瞄准志旭。

快要扣扳机的刹那，来得晚一步的承宪阻止催班长……
被罪恶感和恐惧笼罩的志旭，透露那夜的事件。

一年前的深夜，跟上级兵执勤的志旭发现在黑暗中迷路的女人。美丽的外貌，被树枝撕掉的裙子下隐隐约约的白嫩的小腿。上级兵无法忍住自己奔腾的情欲，怂恿一起强奸她。上级兵好像帮助她，靠近她捂住反抗的嘴，强制脱开她衣服。
稍后，在哨所等待下一轮的志旭，可疑的眼神看着失魂落魄回来的上级兵。没什么事吧，这么想，往女人走过去的志旭，裙子被脱掉，倒在地上。志旭抱住她的时候，她变成化为恶灵的莲熙。
惊叫起身的志旭，从军营传出来轰响的枪声。
志旭转头，无影无踪的莲熙，志旭惊恐慌张的脸变成现在的样子。
下跪哭泣的志旭，说请原谅我。
承宪和催班长，凝视志旭，希望能解开诅咒……
承宪在地上发现一个闪亮的东西，靠近捡到的东西是陈旧的军牌。
抖掉尘土确认名字的承宪，他的瞳孔变大了。

挂着一副僵硬的脸疾走的承宪，打破催班长的沉默。
“如果我要杀了谁……你先射我”
军牌上刻着的名字是黄龙哲，承宪的父亲。
围绕承宪和志旭的心灵现象，和指定自己当律师，所有的原因都揭开了。
刚好在病房做血透的黄龙哲，高高兴兴迎接突然来医院的儿子，可是在承宪出示的军牌前吃惊。
38年前的那天，
莲熙眼前闪烁着红红的军用手电筒灯光。
军人们吐出粗气，轮流接连强奸她。
被恐惧席卷的莲熙眼睛。
脸上涂伪装霜的军人们，在莲熙眼里他们像是恶魔。
莲熙手里握着从一个军人脖子上拔掉的军牌。

被莲熙恶灵凭依的承宪，为报仇，要杀自己的父亲。
催班长要阻止他，但已经占据承宪身体的莲熙魂灵拔掉黄龙哲胳膊上连着的线。逆流，胳膊上喷出来的血液，再过一阵子他的生命有危险了。催班长的手枪瞄准承宪，但不能扣扳机。
呼吸慢慢变细的黄龙哲，好像要接受自己犯的错误带来的结果，平安的脸。那刹那，在承宪和莲熙眼前重现的记忆。
与恶灵开始内面对决的承宪，流下眼泪，莲熙的灵魂在消失。
急急忙忙跑来的护士再把管线连接，黄龙哲的状态很快稳定下来……
‘好了，诅咒这样结束了’心里反复嘟囔着，放心的叹一口气的催班长，眼睛一亮，抱住黄龙哲，朝窗外投身。
冷冷的地上，流着血垂死的黄龙哲和催班长，在楼上看着他们的承宪。
是莲熙不原谅加害人和旁观者的吗……？

半夜逃走

崔新春



1986年首尔出生，演出过短片和纪录片，当过数据管理员、病毒式广告导演，目前编写长篇电影剧本。

简历

毕业于韩国动画高中映像演出系
毕业于国民大学法律学院公法学系
毕业于韩国艺术综合学校映像院电影系专门师演出专业

获奖或评选

2008 纪录片《打工党宣言》导演（RTV大学生视频征集大赛大奖，在独立纪录片节放映）
2010 纪录片《缅甸宣言》导演（OBS视频庆典优秀奖，独立纪录片节开幕作品）
2010 短片《最普通的口香糖》剧本，导演（首尔国际超短篇视频庆典摄影奖）
2011 短片《幸运洞口香糖少年》导演，在Mise-en-scene短篇电影节、大丘短篇电影节、纽约亚洲电影节上放映
2014 短片《滂滂特快》剧本，导演（在DMC短篇电影节、Roxie Theater New Korean Films放映）

创作作品

2011 长篇电影《幻想中的你》副导演
2013 长篇电影《嫌疑者》数据管理员
2014 长篇电影《隐秘的诱惑》数据管理员
2014 纪录片《鸣梁:向着旋风之海》数据管理员

作品意图

故事关于在夜间逃跑的人们。

故事关于从夜晚、从黑暗、从“恶”，要逃跑的人们。

删除过去的一切，要重新开始人生的你，准备好做一个“夜跑”。

剧本大纲

常绿（30多岁，男）

经营“evergreen侦探研究所”，专门搜查痴呆老人、出家老婆、失踪人的侦探。由于收益性低的委托，饱受经营难。

和京（40多岁，女）

在细弱的外表里，含着毒气的夫人。她的过去一一揭开，证明她说的“原来是个普通主妇”是假的。

英美（20多岁，女）

二手车交易所的职员，与常绿做秘密恋爱，为他的“夜跑”偷偷给了卡车。预想不到他的失踪，去寻找他。

必求（20多岁，男）

二手车交易所职员。常绿开的卡车是他的。这是一名脱北者，在卡车里藏了重要的“东西”。因此与英美一起开始寻找常绿。

英哲（30多岁，男）

二手车交易所老板。从高中与常绿做好朋友，也是对手。英美的哥哥。

小叶（10岁，女）

和京的女儿，像傻子一样，相信她，顺从她。

东天（10岁，男）

和京儿子，但不相信她。

治浩（40多岁，男）

执着的，追和京的身份不明的男子。

《Evergreen侦探研究所》

寻人专门，家庭不和解决，企业安全强化。

统统都可以帮忙。

室长韩常绿 010-XXX-XXXX

在凌晨的小吃街，近来一辆摩托车。骑摩托车的男人在车上快速的飘出宣传名片，一个都没有落掉。他飘过去的名片准会插到车窗或酒吧门隙。男人叫做常绿。在他的办公室，来了一位憔悴的中年夫人，委托他从没听过的事情。要求窝藏自己和孩子们。

“拜托让我在这世界上消失。

我想从零再开始……”

平常绿会一言之下拒绝这种要求，让她去找征信所的。但他发现2个月前，劝回家的越南媳妇sina给老公打死，一直有不知原因的罪恶感，所以接受她的委托。

常绿跟英美接一辆停在英哲二手车店的卡车，载和京、她儿子东天和女儿小叶，开始半夜逃跑，即“夜跑”。追逐和京的债主，为了避开治浩，常绿的卡车千辛万苦离开京畿道。早就过了午夜，为退睡意跟和京搭讪的常绿，他感觉和京并不是一个普通的家庭主妇。

不吉祥的预感，在偶然停留的休息站里碰巧治浩和债主们，逃跑的常绿。小叶和东天、和京一一散开，常绿意想不到，受到治浩的攻击，打倒。‘○○警察署重案组松治浩“，常绿发现追逐和京的治浩不是她所说的债主，而是重案组刑警。

不知原因被警察追的和京，给她上当的常绿，常绿被坐困在卡车的冷冻库。

常绿的恋人英美，在卡车上藏了北韩非洛谤‘病毒’的必求，对自己卡车的盗窃愤怒的英哲，三人上路寻找陷入危机的常绿。和京努力从追逐自己的刑警治浩逃跑，可是摆脱他的陷阱，并不容易。

常绿知道了和京曾经活着一个残酷人生，很久以前成功做到夜跑，换一个身份隐遁生活的女人。她

当社工经营残疾人、流浪人设施，但腐败警察治浩长期对她行使暴行和强制上供。
常绿陷入左右为难。要帮助带孩子们摆脱治浩陷阱的和京吗。 还是和京只是个骗常绿牵着他下困境的委托人，废弃与和京的签约。

“不管怎样，今晚你是我的委托人……”

常绿听小叶的请求，决定还是帮和京。向治浩拿出巨额的“病毒”当诱饵，开始进行“假谈判”。英美、必求和英哲帮助处于危险的小叶和东天，常绿在治浩手上救出自己委托人和京。

常绿帮留在和京设施的失踪人员回家。也到警察举报治浩要做毒品买卖的事，得到侦探资格的认可。和京跟常绿委托的事情实现了，从悲惨的人生消失，在一个海边扎根，准备与孩子们的新开始。

SCENARIO SHOWCASE

발행인 PUBLISHER

최용배 CHOI Yongbae

电影剧本创投会

시나리오 쇼케이스

B.I.G 책임 B.I.G CHIEF

김종원 KIM Jongwon

발행일 PUBLISHING DATE

2018. 7.

책임 편집 CHIEF EDITOR

남종석 Jongsuk Thomas NAM

원고 및 편집 TEXTING & EDITING

문새연 Samantha MOON

이 슬 LEE Seul

최봉균 CHOI Bongkyun

김현진 KIM Hyunjin

번역 TRANSLATION

김정민 KIM Jungmin

김고운 KIM Goun

디자인 · 인쇄 DESIGN & PRINT

Spaceform

B.I.G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 B.I.G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부천시청 별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Fantastic Office, 210 Gilju-ro, Bucheon-city, Gyeonggi-do, 14547, Korea

PHONE +82 32 327 6313

Web www.bifan.kr/eng/big/index.asp

>> 본 책자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장르영화산업 제작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통해 발간되었습니다.

THIS CATALOGUE IS PUBLISHED THROUGH SUPPORT FOR 'GENRE FILM INDUSTRY PROJECT' BY GYEONGGI PROVINCE AND GYEONGGI CONTENT AGENCY.